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암묵적 이론에 기초한 스포츠실천지능척도 개발

제주대학교 대학원

체 육 학 과

이 영 주

2021년 8월

The Development of Sports Practice Intelligence Scale Based on Implicit Theory

Young-ju, Lee
(Supervised by professor Duk-Ji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Kinesiology

2021. 08

This dissertation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Myung-Hwan, Yang, Prof. of Kinesiology
.....
.....
.....

.....
Dat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제목 차례>

ABSTRACT

I. 서론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목적	6
3. 용어의 정의	7
1) 성공지능	7
2) 상황판단 검사	7
3) 암묵적 이론	7
4) 마음가짐	8
5) 자아탄력성	8
6) 자기조절 동기	8
7) 사회적 행동	9
II. 이론적 배경	10
1. Sternberg의 성공지능	10
1) 지능의 이해	10
2) Sternsrg의 삼원지능 이론(Triarchic theory of intelligence)	12
3) 성공지능	16
4)상황판단 검사의 구성과 평가	18
2. 암묵적 이론	23
1) 사회 인지적 동기	23

2) 사회 인지 동기 모형	25
3. 선행연구 고찰	28
1) 성공지능 이론의 구인타당성과 측정도구	28
2) 자기이론(Self-Theory)과 운동능력	34
Ⅲ. 연구 1	37
1. 문제제기	37
1) 연구목적	37
2) 연구문제	37
2. 연구방법	38
1) 연구대상	38
가. 심층면담 집단	38
나. 개방형조사 집단	39
다. 사전조사 집단	40
라. 본조사 집단	40
2) 연구절차	42
가. 1단계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검토	43
나. 2단계 심층면담	46
다. 3단계 개방형 조사	47
라. 4단계 사전조사	50
마. 5단계 본조사	52
바. 자료분석	53
3. 자료처리	54
4. 연구결과	55

1) 개방형 설문조사	55
2) 사전조사	59
(1) 문항추출 및 문항분석	59
(2) 탐색적 요인분석	60
(3) 문항분석 및 신뢰도 분석	64
3) 본조사	66
4) 확인적 요인분석	68
5. 논의	72
IV. 연구 2	77
1. 문제제기	77
1) 연구목적	77
2) 연구모형	78
3) 연구문제	79
2. 연구방법	80
1) 연구대상	80
2) 측정도구	81
(1) 실친지능	81
(2) 자아탄력성	83
(3) 자기조절 동기	84
(4) 친사회적 행동	85
(6) 반사회적 행동	86
3. 연구절차	87
4. 자료처리	88
5. 연구결과	89
1) 확인적 요인분석	89
2) 준거 타당도	92

3) 실천지능과 준거변인과의 다중회귀분석	93
4) 검사/재검사 신뢰도	96
6. 논의	97
V. 종합논의	101
VI. 결론	104
참고 문헌	105
부록 1	127
부록 2	130
부록 3	134
부록 4	138

<표 차례>

표 1. Sternberg의 성공지능에 대한 정의	18
표 2. 지시문 차이에 따른 일반 인지능력, 성격 및 상황판단검사의 상위분석예시	20
표 3. 국내의 상황판단 연구	22
표 4. 성취목표에 따른 성취행동특성	26
표 5. 교사용 실천지능검사의 하위영역 및 행동전략의 의미	29
표 5. 암묵적 이론의 측정 요인 및 문항내용	28
표 6. PIT-MST검사 하위영역 및 행동전략에 속하는 문항 및 선택지	30
표 7. STAT의 검사요인	31
표 8. KSTAT의 하위검사 구성: 능력 영역×정보 자극 유형	31
표 9. KSTAT 세 능력과 하위검사간의 상호상관행렬	32
표 10. Biddle, Wang, Chatzisarntis & Spray(2003)의 운동능력 믿음 척도내용	34
표 1-1. 신명진의(2014)의 면담질문 내용	39
표 1-2. 개방형조사 집단의 일반적 특성	39
표 1-3. 사전조사 집단의 일반적 특성	40
표 1-4. 본조사 집단의 일반적 특성	41
표 1-5. 성공지능 및 암묵적 이론 문헌연구 검토내용	45
표 1-6. 신명진(2014)의 생활실천지능 측정을 위한 면담질문	47
표 1-7. 스포츠 상황에 따른 마음가짐 내용분석 문항	49
표 1-8. 스포츠 상황에 따른 실천지능 하위 요인별 예비문항	50
표 1-9. 스포츠 상황에 따른 실천지능 하위 요인별 최종문항 선별	53
표 1-10. 상황1-적응 요인의 내용분석 결과	56
표 1-11. 상황2-선택 요인의 내용분석 결과	57
표 1-12. 상황3-구성 요인의 내용분석 결과	57
표 1-13. 상황(4,5,6)에 따른 마음가짐 내용분석 결과	58
표 1-14. 축전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계수(n=300)	59
표 1-15. 상황1-실천행동능력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61

표 1-16. 상황2-자기관리능력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62
표 1-17. 상황3-대인관계능력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63
표 1-18. 실천지능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결과	65
표 1-19. 최종문항의 기술통계치와 문항-전체 상관계수(n=300)	67
표 1-20. 실천지능척도의 적합도 지수(n=300)	68
표 1-21. 스포츠 상황에 따른 실천지능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70
표 1-22. 구성개념의 상관행렬과 분산추출지수	71
표 2-1. 인구특성학적 배경변인(n=292)	80
표 2-2. 실천지능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결과	82
표 2-3. 자아탄력성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83
표 2-4. 자기조절 동기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84
표 2-5. 친사회적 행동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85
표 2-6. 반사회적 행동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86
표 2-7. 스포츠실천지능 척도의 적합도 지수(n=292)	89
표 2-8. 측정모형에 대한 경로추정치 결과	90
표 2-9. 스포츠실천지능과 준거변인과의 상관관계(n=292)	92
표 2-10. 스포츠실천지능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	95
표 2-11. 스포츠실천지능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결과	96

<그림 차례>

그림 1. Sternberg의 삼정이론	13
그림 2. Sternberg의 삼원지능이론	15
그림 3. 암묵적 이론에서 제안하는 동기프로세스 모형	27
그림 4. 학생-운동선수의 스포츠 능력믿음과 성취목표 및 행동조절의 구조적 관계	35
그림 5. 스포츠 능력믿음 검사지의 확인적 경로모형	36
그림 6. 스포츠실천지능 척도개발 절차	42
그림 7. 스포츠 상황에 따른 실천지능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69
그림 8. 연구 2의 연구모형	78
그림 9. 스포츠실천지능 측정모형의 경로 도형	91

ABSTRACT

The Development of Sports Practical Intelligence Scale Based on Implicit Theory

Young-ju, Lee

Department of Kinesiolog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Directed by Prof, Duk-Jin, Kim, Ph, D.

Sternberg suggests that successful intelligence is presented from the ability which effectively adapts to, creates and selects the environment in order to be successful in personal life and social norms, and this ability is the implicit knowledge acquired by experi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reliable and reasonable measurement questionnaires based on implicit theory to identify practice intelligence that young players might experience in sports events. To this end, two sequential studies confirmed the applicability of implicit theory to sports events. First, the study 1 aims to develop sports practice intelligence scale for 462 players in universities and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s, and then verifies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developed measurement tool. Data has been collected in universities and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s of J province and two metropolitan cities from June 2020 to April 2021. The practice intelligence questions were carefully selected through indepth-interview and preliminary examination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leading data. Through the contents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procedures,

sports practice intelligence scale with 3 factors and 26 questions consisting of practice intelligence skills, self-management skills, and interpersonal skills was developed. And the study 2 aims to reconfirm the factor structure of sports practical intelligence scale developed in the study 1 and closely examine the relationship with reference variable to measure the safety of measurement tool. The subjects of the study 2 are 292 players of university and high school and the data collection was made from 10th of May 2021 to 31st of May 2021. The results of the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corroborate the results of Study 1, and it is shown that the reliability estimates measured with internal agreement were also satisfactory. As a result of examining correlation between subfactors of practical intelligence and extrinsic variables, the subfactor of practical intelligence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ego-resilience, autonomous motivation and prosocial behavior, and only the practical action ability, the subfactor of practical intelligence,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antisocial behavior. Also, the result of testing test-retest reliability for 32 undergraduates, which was performed twice at 4 weeks intervals, was satisfactory, thereby the safety of sports practical intelligence scale according to time was proved. Therefore, sports practical intelligence scale confirmed that criterion-related validity as well as construct validity is high. In conclusion, this study drew the component of practical intelligence from sports attitude, or in terms of belief applied to players in certain areas through the correlation between practical intelligence and implicit theory defined by culture and environment which domain specificity of sports has. Hereupon, the sports practical intelligence scale developed by this study expects that it will be able to be used as useful tool to understand the practical intelligence that youth players should have in sports performance events.

Key words: successful intelligence, practical intelligence, implicit theory, practical action ability, governability, interpersonal ability.

I. 서론

1. 문제의 제기

기록과 승패로 성공이 결정되는 운동선수의 경우 운동을 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선행조건은 바로 신체능력이다. 따라서 타고난 신체조건이나 운동 재능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 그렇다면 뛰어난 신체조건이나 운동 재능을 갖춘 선수만이 운동선수로 성공할 수 있다는 전제를 붙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명쾌하게 답변을 하기 어렵다. 재능은 좋은 유전자나 능력을 타고나야만 하는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활용하는데 수반되는 노력의 자세를 갖춘 선수가 성공을 달성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Sternberg & Grigorenko, 2004).

운동선수들은 예측불허의 경기상황 중 득점을 내기 위해 빠른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할 때가 허다하다. 판단 능력은 선수 자신뿐만 아니라 팀의 성적과 기록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경기상황에서 개인의 성공적인 수행 능력과 관련하여 실천지능(practical intelligence)의 개념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지능 이론가들은 성공지능(successful intelligence)이란 개인의 성공수행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모든 능력이 수반되는 개념이라는데 합의하며, 이러한 능력은 경험에 의해서 습득된다고 주장한다(Sternberg & Detterman, 1986; Sternberg & Hedlund, 2002). Sternberg(2004)에 따르면, 경험에 의해서 학습되는 지능은 단일 실체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지능의 다양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지능의 다양성은 분석적 능력, 실용적 능력, 그리고 창의적 능력이 어떻게 성공적인 지능에 통합되는지가 핵심이며 IQ 기반 테스트의 점수가 실용적인 지적 기술의 좋은 예측변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브라질의 심리학자 Nunes(1994)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길거리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거리 수학’을 문제 없이 해결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Nunes는 아이들을 교실로 데려와 수학 연산과 관련한 시험을 보게 했을 때 종이로 된 형식의 수학 문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할 기회가 없던 아이들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측정

되지 않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사례는 실천지능이 IQ 기반 테스트와는 별개로 직무 관련 기술에 유용한 예측변수임을 입증하며 지능의 다양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성공지능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각 전문분야에 따라 개인의 역량이 다르다는 것으로 Sternberg(1985b, 1997, 1999)는 일련의 연구를 통해 지능의 구성 능력은 분석적, 창의적 및 실용적인 지능이 조합을 이룰 때 성공적인 지능을 구성하며 이 세 능력의 상대적 독립성을 제안했다(Sternberg, Grigorenko, Ferrari, & Clinkenbeard, 1999; Sternberg & Lubart, 1996; Sternberg, Wagner, Williams, & Horvath, 1995). 이 관점에 따르면, 성공적인 지능이란 환경적 맥락 안에서 자신의 성공에 대하여 어떠한 개념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업가, 음악가, 운동선수, 농부, 광부들에게서 ‘학교’는 그들의 목표와 무관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실질적인 성공은 학문적 지능과 부정적 상관관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은 개인적인 목표의 관점에서 정의되며 각각의 영역에서 능력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강조한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 약점을 파악하여 이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 환경에 맞게 스스로를 변화하고, 때로는 환경에 맞게 환경을 변경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환경을 찾을 수 있는 능력에서 성공지능이 발현되는 것이다(Sternberg, 2004). 개인의 삶과 사회적 기준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수정 보완하여 이루어내는 능력으로 분석지능(analytical intelligence), 창의지능(creative intelligence), 실천지능(practical intelligence) 3개의 하위요소 중 실천지능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adapting)하고, 환경을 조성(shaping) 및 선택(selecting)하는 능력으로 기존 지능이론으로는 설명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으로써 지능을 정의(Sternberg, 1997, 1998ab)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실천지능은 학업지능(IQ)과는 달리 사회적 맥락이나 실제 생활에서의 성공적인 적응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지능개념으로, 국내에서는 심리학, 교육학, 경영학 분야에서의 연구를 필두로 시작되었다. 하대현(2009)이 Sternberg의 지능이론에 기초하여 제작한 한국형 스텐버그 삼위일체 지능검사(Korea Sternberg Triarchic Test: KSTAT), 성공지능 하위요소들간의 타당도를 보기 위한 연구(하대현, 2005, 2009)를 비롯하여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신중호, 권희경, 2004; 하대현 2004), 학업성취와 관련한 타당성 연구(문용린, 강민수, 2004) 등 Sternberg의 지능이론과 관련한 많은 연

구가 수행되었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교육학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로 체육·스포츠 분야에서의 실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육·스포츠 분야의 특수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체육·스포츠 분야에서 화두 되고 있는 성공지능은 축구선수의 전술운용 능력 및 순간 판단력과 축구지능(윤영길, 2004), 실천지능(윤영길, 2009), 경기지능(윤영길, 2011) 등 축구 경기력 논의에서 성공지능 도입(윤영길, 황보관, 2013) 등을 통해 구체화 되고 있다. 이러한 실천지능은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수행 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적절하게 잘 수행하고, 소속된 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행하는 능력’(백순근, 2005)과 관련된다. 예로, 신명진(2014)은 새로운 팀으로 이적한 선수가 그 팀 분위기에 빨리 적응하는 경우와 하위권 팀에 부임한 감독이 기존 팀 분위기와 다른 새로운 팀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 혹은 여러 팀 중 자신의 목표와 가장 부합되는 팀을 선택하는 경우 등이 스포츠 맥락에서 말하는 실천지능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실천지능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으로 신명진(2014)은 운동선수가 경험하는 스포츠 환경을 경쟁환경과 일반환경으로 구분하여 운동선수의 개인 성공을 위한 최고수행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실천지능 구성개념을 탐색하여 상황판단검사를 적용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상황판단검사(SJT: Situational Judgment Test)는 Sternberg와 동료들(Cianciolo & Sternberg, 2004; Wagner & Sternberg, 1985)이 실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적용한 기법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전략을 고르거나 각 대처전략에 평점 하는 방법(Motowidlo, Hanson & Crafts, 1997; Thornton & Cleveland, 1990)이다. 주로 경영학, 교육학 분야에서 직업 수행력을 보기 위한 측정 방법으로써 지필형, 인터뷰형(Latham, Saari, Pursell & Champion, 1980), 비디오형(Jones & DeCotiis, 1986)으로 구분돼있다. 신명진(2014), 임현수(2005)를 비롯한 백순근과 임현수(2006)가 상황판단검사를 통해 개발한 중학교 교사들의 실천지능 측정 도구가 있으며 구성타당도와 신뢰도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리커트(Likert) 척도에 개별 선택지의 효과성을 평정하게 하는 방법으로써 최근의 실천지능검사 방법으로 Likert식 척도 방법을 채택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Chan & Schmitt, 1997; Mcdaniel & Nguyen, 2001; Wagner, 1987; Wagner & Sternberg, 1985).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봤을 때, 운동선수들이 운동수행 중 주위 사람들의 평가(성적)를 통해 나타나는 사고와 행동은 태도, 즉 자신의 신념과 실천지능을 연관시킬

수 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선수 자신이 어떠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운동 수행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종목이 갖는 독립적이면서도 영역 특수성(domain-specificity)은 선수 개인이 갖는 태도에 따라 운동능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운동선수들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태도, 마음가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수 개인이 갖는 내적 관심이나 흥미, 태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운동능력들에 어떠한 신념을 가졌는지를 파악하면 실천지능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신념을 실제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y)이 있다. Dweck과 동료들(Dweck, 1985, 1986; Dweck & Elliott, 1983; Elliott & Dweck, 1988; Dweck & Leggett, 1988)이 주장하는 암묵적 신념에서 나타나는 성공에 대한 기대, 지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은 동기의 변화가 더 중요한 매커니즘임을 말한다. 또한 Sternberg(1985)는 암묵적 이론은 개인의 발달단계, 경험, 지식, 환경의 총체적인 영향을 받음으로써 조직적인 체계를 이룬다고 제안하며 실천지능의 핵심은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의 습득과 활용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우선, Sternberg의 성공지능 및 Dweck과 동료들의 동기체계(Motivation Process Model: MPM)를 고찰하여 운동선수에게 요구되는 실천지능의 개념에 비추어 정의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의 개발이 본 연구의 초점이다.

학생들이어도 운동선수와 일반학생들이 갖는 신념은 다르다. 또한 같은 운동선수여도 운동 종목에 따라 다를 것으로 추측된다. 조직사회에는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조직에서 발생하는 갈등 혹은 문제 상황에 대처하려는 방법을 강제로 선택하게 할 경우, 오답이라고 해서 잘못된 행동 방안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Weekley, Ployhart & Holtz, 2006; 최윤미, 2008 인용)것으로 보고한다. 따라서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환경과 상황은 일반학생들이 경험할 수 없는 영역 특수성을 갖는 분야이므로 상황판단검사 방법을 적용하여 개발한 신명진(2014)의 연구 상황을 일부 발췌하여 리커트(Likert) 척도에 평정하게 하는 방식을 적용했을 때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운동선수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 잘 적응하고 주어진 과제를 이해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지능과 신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리커트 척도의 측정방법을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상황판단검사(SJT: Situational Judgment Test)기법을 적용하여 개발한 신명진(2014)의 청소년 운동선수 생활실천지능 척도 예시문항을 일부 발췌하여 운동선수들의 신념적 관점을 탐색하고 체육·스포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지능척도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2편의 순차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실천지능의 구인을 탐색한 후 다양한 스포츠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스포츠실천지능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된 실천지능척도의 측정모형을 확정하고, 준거관련 변인들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실생활에서의 성공적인 적응 능력과 관련이 있는 실천지능의 개념에 비추어 성공에 대한 기대와 지능에 대한 신념에서 핵심적 요소는 동기의 변화라고 주장하는 Dweck(2006, 2017)의 암묵적 이론에 기초해 스포츠 상황에 따른 개인의 신념을 파악하여 스포츠 상황에 적용 가능한 실천지능척도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두 편의 순차적인 연구 계획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1의 목적은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스포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된 신명진(2014)의 스포츠 환경을 참고하여 훈련 상황, 진로 결정에 따른 상황, 팀 구성원들과의 상황의 제시문항을 개념화하고 3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다. 또한 스포츠 상황에 따라 운동선수들이 어떠한 신념적 관점을 갖는지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별된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요인구조를 확인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의 적합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 2의 목적은 연구 1에서 개발된 스포츠실천지능척도의 준거 또는 결과변인과의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있다. 사회인지 동기 이론가들(Dweck, 1985; Dweck & Leggett, 1988; Deci & Ryan, 1985ab, Moldern & Dweck, 2006)은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 자체보다는 행동의 원인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행동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Dweck, Walton & Cohen(2014)에 의하면 마음가짐이 자신에 대한 믿음, 학교나 사회적 소속감에서 드는 감정, 그리고 자율규제 능력을 포함함으로써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기 및 행동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인지적 요인으로 자아탄력성, 자기조절동기, 친사회적·반사회적 행동의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공지능

Sternberg의 성공지능(successful intelligence)이란 각 전문분야에 따라 개인의 역량은 다르게 나타나며, 개인의 삶과 사회적 기준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수정 및 보완 하여 이루어 내는 개인의 전반적인 능력을 의미한다(Sternberg, 1985, 1997, 1999). 또한 성공지능은 삼위일체이론의 틀 안에서 내용(content), 맥락(context), 지향(orientation)이라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의 틀을 제시하며 분석지능, 창의지능, 실천지능 3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된다.

2) 상황판단 검사

상황판단 측정은 조직 혹은 학업의 상황에서 학습자가 직면할 다양한 상황들에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를 측정하는 검사이다. 주로 선발장면에서 상황 판단력을 측정하는데 활용되며 검사 구성은 업무, 학업과 관련 있는 상황 시나리오와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발생 가능한 행동을 서술한 대안(option)을 몇 개 제시한 후 가장 잘 할 것 같은(most likely)행동을 선택하는 행동성향 지시문과 어떤 행동이 가장 적절한 행동인지(best)를 선택하는 지식형 지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Chan & Schmitt, 2002).

3) 암묵적 이론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ies) 또는 내재적 이론은 마음가짐에 따라 지능에 대한 자신감은 숙달 지향적인 자질의 열쇠라는 능력 향상에 대한 믿음에 관하여 갖는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 가지는 신념 즉 자기이론(Self-Theory)에 따른 서로 다른 관점 때문이라고 정의한다(Dweck, 2006; Dweck, Chiu & Hong, 1995).

4) 마음가짐

마음가짐(mindset)은 성취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일지라도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인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견해는 동일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 가지는 신념 또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는 것으로, 이러한 마음가짐은 내재적 이론 즉,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y)에 기반을 두고 있다. Dweck & Leggett(1988)은 지능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통해 지능의 가변성에 대한 신념을 실체론(entity theory)과 증진론(increment theory) 2개 차원으로 정의하였다. 실체론은 지능은 선천적이고 고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노력을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을 의미하는 반면, 증진론은 노력 여하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을 의미한다.

Dweck(2000)은 실체론을 고정마인드셋(fixed mindset), 증진론을 성장마인드셋(growth mindset)으로 명명하였고, 선행연구(강상범, 김덕진, 2020)에서 마인드셋(mindset)이 마음가짐으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진 개념을 바탕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weck(2006, 2017)의 성장마음가짐에 근거하여 개인의 능력에 대한 가변성을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5)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개인의 긍정적이고 주관적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성격적 요인으로써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적 요구에 따른 위협에도 불구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말한다(Block & Block, 2006). 즉, 자기 통제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자기 열망은 이로인한 행동을 하도록 자아강화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움 추구, 감정 조절, 긍정적 미래 성향 요인의 측정값의 총합점수로 정의하였다.

6) 자기조절동기

자기조절동기(Self-Regulated Motivation)는 일반적으로 행동을 촉발시키고 유지 및 지속시키는 내적인 원동력을 말하며, 자기결정이론에서는 자기결정 연속체를 따라 5개의 상이한 동기 유형(내재적 동기, 확인적 조절, 내사적 조절, 외적 조절, 무동기)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자율적 동기(내재적 동기, 확인적 조절)는 운동이 재미

있고 즐겁기 때문에 의지적이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제적 동기(내사적 조절, 외적조절, 무동기)는 내적인 심리적 압박감이나 대인 간에 느끼는 압력 때문에 강제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로 구분하여 측정값의 총합점수로 정의하였다.

7) 사회적 행동

사회인지이론(Bandura, 1991)에서는 스포츠 상황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행동을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과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으로 구분하였다(Kavussanu, 2006; Sage, Kavussanu & Duda, 2006).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이란 개인이 행한 행동 뒤에 기대되는 외적인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타인을 돕거나 도움을 주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Eisenberg, Fabes & Spinrad, 2006), 스포츠상황에서의 예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심판판정에 승복하는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김선욱, 양명환, 2020 재인용).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은 타인을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공동체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이기적인 행동을 의미한다(Miller, Lynam & Leukefeld, 2003). 스포츠상황에서의 예로는 경기규칙을 위반하고, 불법약물복용(doping),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동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포츠 종목 자체의 규범적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 모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임변장, 2000; 한이석, 2004; 김선욱, 양명환, 2020).

II. 이론적 배경

본 장은 세 개의 절로 구성되었다. 1절에서는 Sternberg의 성공지능에 관한 기술이 이루어졌고, 2절에서는 지능의 암묵적 이론에서 제시하는 Dweck의 동기이론에 관한 기술이 이루어졌다. 3절에서는 Sternberg의 성공지능과 Dweck의 암묵적 이론과 관련한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1. Sternberg의 성공지능

1) 지능의 이해

지능(Intelligence)이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심리학적 개념으로 표현하나 광대한 연구결과에 비해 ‘지능은 이것이다’라고 합의된 정의는 부재이다(Sternberg, 1985ab). 이는 인지 능력과 특성을 나타내는 지능의 중요성에 비해 인간의 다양한 정신 능력 중 지적 능력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문용린, 강민수, 2004). 그동안 많이 알려진 지능에 대한 정의는 진리나 사실의 관점에 대한 좋은 반응력, 추상적 사고 능력,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능력, 소유하고 있는 지식의 양과 지식을 알 수 있는 능력, 능력을 획득하는 능력, 경험에 의한 학습능력 등으로 지능을 정의하였다(임규혁, 임웅, 2007; Galton, 1869). 지능이 문화에 따라 매우 다르고 고유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지능 개념의 일반화 경향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다(Berry, 1984; Sternberg, 1999; 임정훈, 한기순, 이지연, 2008 재인용).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능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추상적 생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세 가지를 포함한 능력이 지능이라고 지적한다(Eggen & Kauchak, 2006). 지능은 여러 학자들마다 정의, 구조, 기능에 대한 다른 견해를 보인다. Terman은 지능을 ‘추상적인 사상을 다루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Wechsler는 ‘유목적으로 행동, 합리적으로 사고,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종합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Binet은 지능을 ‘인식능력’이라고 보며 이 인식능력은 이해력, 창조력,

비판력, 행동의 방향설정 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구본재, 2015 인용).

Sternberg & Berg(1986)는 1921년에 논의된 지능의 개념과 1986년에 조사한 지능의 개념 간에 변모된 지능의 개념을 나타내는 여러 특징과 새로운 연구의 동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냈다. 그들에 따르면 1921년의 연구는 심리측정학적인 정의가 주를 이루었으나, 1986년의 연구에서는 정보처리, 상황 주의적, 생물학적 경향이 우세하다(하대현, 1996)는 것을 보고하였다. 7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지능의 본질에 대한 생각은 학교뿐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전통적 지능의 개념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이론과도 공존하고 있다. 지능을 한 개의 일반적 요인과 여러 개의 특수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Spearman의 2요인설(g요인과 s요인), 여러 개의 특수요인이 기초 정신능력 이라고 보는 Thurstone(1938)의 다요인설, Guilford의 180개의 지능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능구조 입체 모형설(structure of intellect model), Cattell(1963)의 유동적 지능(fluid intelligence)과 결정적 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을 제안했다. 지능에 대한 요인분석적 접근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Spearman의 지능이론은 일반(g)요인이론 혹은 2요인이라 불린다. 그는 인간의 지능이 두 가지 주요요인을 일반요인(general factor: g요인), 특수요인(specific factor: s요인)으로 이루어진다고 제안하였다. g요인 즉, 일반지능이란 언어문제, 수문제, 도형문제를 해결할 때 내용을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능력과 귀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 기억, 암기 등과 같은 지적 활동 등을 초월한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의미한다. s요인 즉, 특수지능이란 언어문제나 수문제와 같은 어떤 특정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일반요인에 의해 대표되는 능력은 모든 지적 과제 수행에 관여하는 반면, 특수 요인들에 의해 대표되는 각 능력들은 그렇지 못했기에 심리학적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현대의 견해에서 Sternberg(1985)는 지능의 삼정이론(triarchic theory)과 삼원지능이론(triarchic theory of intelligence)을 제안했다. 이 이론은 맥락, 경험, 정보처리기술의 세 요소를 강조하는데 지능적인 사람들은 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변화하고 적응하며 적절하게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힌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 책략, 상위인지가 우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이론에서 정의하는 성공지능에 따르면, 지성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주어진 자신의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교정하거나 보상하는

능력 및 환경에 적응, 형성, 선택하는 능력 그리고, 분석적, 창의적, 실용적 역학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이 중 개인이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지는 지능의 첫 번째 구성요소로 한 개인은 운동선수, 예술가, 연예인, 정치가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인물이 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또는 그 밖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직업을 갖는 것을 목표로 정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전형적으로 개인이 어떤 목표를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그 목표를 의미 있게 실현할 수 있도록 무엇을 했느냐이다. 따라서 지능은 세 가지 하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의미 있는 목표를 식별하는 것, 의미 있는 방식으로 목표를 조정하여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일관된 이야기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는 지능은 개개인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음악가가 되고자 하는 개인은 저명한 소설가가 되고자 하는 개인과는 다른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일련의 일관된 목표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능 평가는 어떤 목표를 선택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개인이 가치 있는 목표를 선택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기질을 보여주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 Sternberg 의 삼원지능이론(triarchic theory of intelligence)

근 1세기 동안 지능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개인이 가진 지능의 양을 측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왜 지적 능력이 높은지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근래에 들어 심리학자들은 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학 주제를 인지적 관점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고 현재는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을 포함한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지적 관점의 지능연구에서는 지능이 발현되는 정보처리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의적 관점은 성취 능력에서 제시하는 가치, 태도, 호기심, 흥미 등의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초점을 둔다. 교육 현장에서 학업 성공 요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Binet(1905)의 지능검사를 통한 시도 이후에 교육학에서 주요 연구 주제로 자리 잡으며 이론에 기반한 지능을 설명하려 하였으나 근래에는 성공지능 형태로 논의하고 있다(Sternberg et, al., 1985a).

전통적 관점에서 지능(intelligence)은 개인의 성공수행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환경

에 적응하는 능력으로, 성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수정 및 보완하는 능력을 일컫는다(Sternberg, 2003). 이러한 능력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그 능력은 다를 수 있으며 경험에 의해서 습득된다고 하였다(Sternberg & Hedlund, 2002). Sternberg(1985ab)는 지능의 개념을 지적행동이 나타나기까지의 여러 정신적 과정을 제안하여 인지적 관점을 도입한 이론을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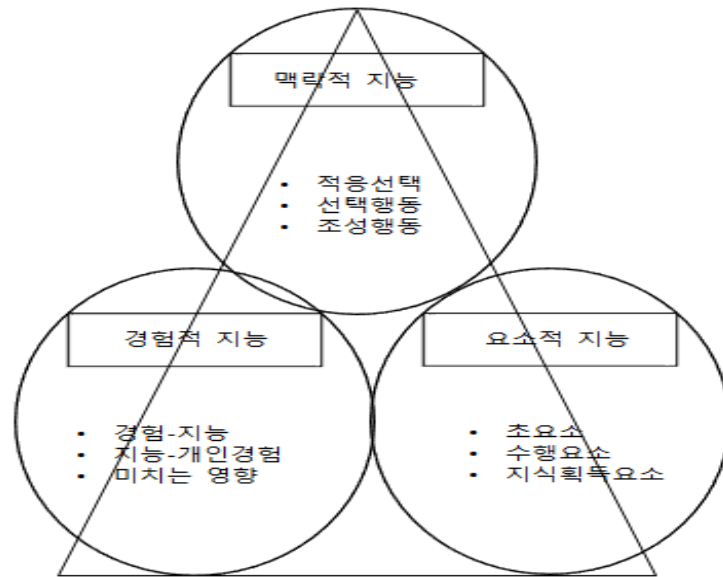


그림 6. Sternberg의 삼정이론

시했으며 뿐만 아니라 현실적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도 지능에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그림 1>은 Sternberg의 삼정이론(triarchic theory) 모형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각 지능의 유형은 요소적 지능, 경험적 지능, 맥락적 지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유형은 다시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요소적 지능은 지적 행동을 관찰하는 세 가지 정신과정 요소로 되어있다. 초요소는 나머지 요소들의 활동에 방향을 정하는 일종의 행정을 담당하는 과정으로 지적 문제의 성격을 규정하고, 문제해결전략을 선택하며, 해결이 완수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수행요소는 단기 기억과 연역 추리 등과 같이 문제해결이나 과업 수행에서 사용될 수 있는 측정 요소이다. 지식 획득 요소는 정보를 학습하고 저장하는 것과 관련된 과정으로 암기력 향상을 위해

채택하는 전략이 이 요소에 포함된다. 경험적 지능은 새로운 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으로 지능에는 경험한 적이 있는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적 틀 내에서 학습하고 생각하는 능력도 포함한다(Sternberg, 1985, 1996). 맥락적 지능은 개인이 생존을 위하여 처해 있는 환경이 요구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적응행동과 기존의 환경이 맞지 않을 때 자신의 요구와 재능에 적합한 새로운 환경을 찾는 선택행동, 새로운 환경의 선택이 여의치 않을 때 기존의 요구에 맞게 고치려는 조성행동들에 필요한 정신적 활동을 포함한다. 삼정이론을 통해 Sternberg는 기존의 지능검사는 경험적 지능과 맥락적 지능의 측정을 전적으로 간과하고 있고 요소적 지능에서 주로 수행요소의 측정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20세기 들어서며 과학적 심리학의 발달은 지능의 측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00년대 초 현대지능 검사와 비슷한 최초의 지능검사가 Binet에 의해 고안되었다. Binet 역시 지능의 개념을 인지적인 면에만 제한한 적이 없으며 학업상황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 후 Terman(1916)과 Wechsler(1958)등으로 이어져 학업상황과 선발장면 등에 많이 활용되면서 지능의 이미지는 심리측정적이며 후속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이처럼 전통적 지능의 관점은 인간의 다양한 능력과 역량을 모두 지능이라고 간주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인간 능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Gardner, 1983; 1999), 정서지능(Goleman, 1995; 1998), 그리고 성공지능(Sternberg, 1997; 1999)도 이런 흐름 중 하나이다.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이 서로 독립적인 지능을 가정하고 있는데 반해 Sternberg의 성공지능에서 주장하는 바는 각 개인마다 어떠한 무언가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악가가 되기를 바라는 학생은 운동선수가 되기를 바라는 학생과는 가는 길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양쪽 모두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설정할 것이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일관적인 환경이 주어진다. 따라서 교육은 어떤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는가보다 개인이 그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가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Sternberg, 2004). 차 후 Sternberg의 삼원지능이론에서 주장하는 성공지능의 구체적 개념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성공지능은 자신의 강점을 이용하고 약점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맞추고 선택하기 위하여 자신의 분석적, 창의적, 실제적인 능력을 결합하여 인생에서의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이 삼

원지능이론의 세 가지 하위요인이다. 이 세 하위요인은 다시 요소하위이론과 상황하위이론과 경험하위이론으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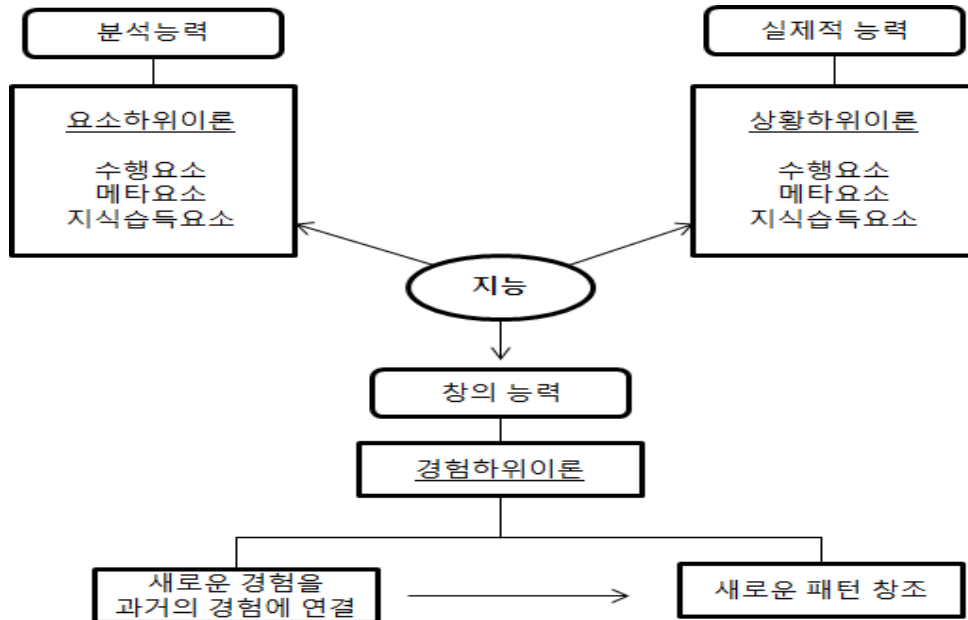


그림 7. Sternberg 삼원지능이론 (임규혁, 임웅, 2007 인용)

상황하위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적 능력이 존재한다면 직업이나 다른 일상생활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실제적 지능과 분석지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서로 문화권이 다른 동양과 서양에서 실제적 지능의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단지 그 문화가 요구하는 상황 때문에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Lim, Plucker & Im, 2002). 또 다른 이론(정신자치체이론 The theory of mental self-govement)에서 Sternberg(1988, 1990, 1997)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용이하고 선호하는 사고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서는 한 상황에서 보이는 특정한 선호의 경향을 가진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고양식

을 보일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양식은 하나의 특질로서 개인 내에 존재하기 보다는 환경에 따라 변화되고 사회화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임정훈, 한기순, 이지연, 2008).

3) 성공지능

성공지능(Successful Intelligence)은 개인 성공을 위해 필요한 지능으로 한 영역에서 실천지능이 높다고 해서 다른 영역의 실천지능도 함께 높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천지능은 개념적 차이가 존재한다.

성공적인 삶을 획득하기 위한 지능의 능력은 논리적 과제 해결에 적용하는 학업지능(IQ 등)능력으로 분석, 평가와 같은 분석지능(analytical intelligence), 창조, 발명, 발견과 관련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의 창의지능(creative intelligence), 그리고 배운 것의 실행과 실생활 적용에 관련된 실천지능(practical intelligence)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실천지능(practical intelligence)은 성공지능의 하위요소중 하나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조성 및 선택하는 능력으로 기존 지능이론으로는 설명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으로, 실제 생활상황에서 활용하는 동시에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인식한 환경에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신명진, 2014; 윤영길, 2009; 강영심 & 송연주, 2002; Sternberg & Hedlund, 2002; Williams, Blythe, White, Sternberg & Gardner, 1996)으로 정의한다. 전자가 주로 학문적으로 ‘잘 아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후자는 실제 상황에서 ‘잘 행하는 능력’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는 앎과 행함 또는 이론과 실제에 대한 개념적 구분과 같은 맥락이며, 여기서 앎 혹은 이론이 학문지능과 관련된 것이라면, 행함 혹은 실제는 실천지능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지능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실생활이나 직업 현장에서의 문제나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능력임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실천지능(practical intelligence)이란 환경을 이해하여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Williams, et. al., 1996)이며, 실생활에서 개인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자신의 경험에서 획득한 지식과 전략을 사용하여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백순근, 임현수, 2006), 즉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따라

서 실천지능은 개인이 실생활에서 잘 적응하는 능력이며, 개인이 속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Sternberg(1985, 1988, 1996)는 일상의 삶에서 현실 생활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며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묵시적 지식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타인의 행동 의도와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고 타인의 기분, 기질, 동기나 욕구 등을 잘 구별해서 적절히 반응 및 적용하는데 있다. 즉, 암묵적 지식의 습득과 활용에 중점을 둔다. 여기서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란 주어진 환경에서 성공을 위해 알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어떠한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근거하여 지능의 개념을 알아내므로 보다 그 상황에 적절한 암묵적인 지능 이론 일 수 있다. 이는 일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자신의 지능개념이므로 이러한 개념은 이미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으므로 '창안(invented)된다'기 보다는 '발견(discovered)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임을 제시하였다(Sternberg, 1985a; Sternberg, Conway, Ketron & Bernstein, 1981). Sternberg(2003)는 암묵적 지식 연구를 통해 첫째, 암묵적 지식은 경험을 사려 깊게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습득되며 중요한 것은 경험 자체 보다 경험으로부터 얼마나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둘째, 암묵적 지식은 영역 특수적이다. 셋째, 암묵적 지식의 습득과 활용은 전통적인 능력(IQ)과 비교적 독립적이다. 넷째, 암묵적 지식은 IQ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직무 성공의 준거를 잘 예측한다. 다섯째, 암묵적 지식은 IQ와 그 밖의 다른 성격, 학습 및 사고양식과 같은 측정치를 넘어 추가로 직무 성공의 준거를 예측한다(하대현, 2005 인용; McClelland, 1973; Sternberg et al., 1999; Sternberg & Wagner, 1993; Sternberg, Wagner, Williams, & Horvath, 1995)는 결과를 밝혀냈다. 그러나 Sternberg는 성공지능(successful Intelligence)은 개인 성공을 위해 필요한 지능이지만 한 영역에서 실천지능이 높다고 해서 다른 영역의 실천지능도 함께 높은 것은 아니며, 이것은 지적 수준의 차이가 아닌 특정 환경 속에서 발생된 처리 과정의 오류라고 지적하면서 환경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다(하대현, 2003).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서 개인마다 선택, 적응, 조성하는 방법은 다르고 이런 능력이 좋은 개인이 성공지능이 좋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은 Sternberg가 제시한 성공지능에 대한 정의이다.

표 1. Sternberg의 성공지능에 대한 정의(하대현, 2004; 신명진, 2014 인용)

	분석지능	창의지능	실천지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논리적 과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 ·효율적인 정보처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없는 요소를 연관시켜 새로운 것을 창출 ·반직접적인 경험을 자동화 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어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능력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성공지능 진단검사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를 해결하는 맥락으로부터 학습 및 비판적 사고하기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문제풀기, 결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풀어야 할 문제를 결정 및 새롭고 흥미 있는 아이디어 만들어 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을 뛰어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과적으로 해결, 일상의 문제풀기, 아이디어 실행, 지능이 실세계 맥락에 적용되어 질 때 사용되는 능력

4) 상황판단검사의 구성과 평가

조직 및 학업 상황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요구에 맞는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 의사결정 및 판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업무 수행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조직에서는 업무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응 기준으로 수행능력을 설정할 수도 있다(Chan & Schmitt, 2006).

Chan & Schmitt(2006)는 상황 판단력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개인의 일반적인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황 판단력을 측정하는 상황판단검사는 1920년대에 도입되었고 선발장면에서 시나리오와 대안 방식을 이용하여 검사를 제작하였지만(File, 1945), 산업 심리분야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시점은 Motowidlo, Dunnette & Carter (1990)가 저 충실도 시뮬레이션(low-fidelity simulation)검사로 지필형 상황판단검사를 소개하기 시작한 이후이다. 상황판단검사는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가설적인 업무 상황을 시나리오로 제시하며 지원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요구하기보다 검사의 형태로 문서화하여 기술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는 수행자가 실제 상황과 관련 있는 행동을 직접 시행한다는 점에서 충실도가 높은 검사 방법이고 실제 업무 상황과 유사하므로 좋은 수행지표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상황판단력을 검사하는 상황판단검사는 내용 타당도가 높고 어느 정도의 준거 관련 타당도가 있지만(Chan & Schmitt, 1997), 구성개념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구성 개념에 관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상황판단력은 실용지능(practical intelligence)이라는 하나의 구성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지능과 성격 등 여러 개의 구성 개념이 존재한다는 관점이다. Wagner & Sternberg(1985)는 업무장면과 학업장면에서 일반지능과 구별되는 실용지능이 존재하고 실용지능에 관해서는 상황판단검사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cDaniel 등(2001)이나 Weekley & Jones(1999)는 상황판단력은 일반 인지능력뿐 아니라 성격 및 경험 등 복수의 구성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구성개념이 하나 이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관점에서 상황판단력의 예측변수로 일반인지능력(Clevenger et, al., 2001; McDaniel et, al., 2001; Weekley & Jones, 1997, 1999) 성격의 5요인(Big 5) 중 성실성(conscientiousness), 원만성(agreeableness), 정서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을 고려한다(Clevenger et, al., 2001; McDaniel & Nguyen 2001; Smith & McDaniel, 1998; Weekley & Jones, 1999, 2005). 경험(experience)도 상황판단력의 중요한 구성개념이라는 연구(Smith & McDaniel, 1998; Weekley & Jones, 1999)가 있지만 Clevenger 등(2001)의 연구 결과에서는 경험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경험에 대한 정의가 혼재해 있어서 업무 기간이나 업무 내용에 대한 숙련도를 통칭하여 경험으로 정의한다. 상황판단검사에서 사용되는 지시문 유형은 크게 최선(best), 최악(worst)을 묻는 지식형(knowledge)지시문과 가장 할 것 같은(most likely),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least likely) 행동을 묻는 행동성향(behavior tendency)지시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동 성향 지시문에서는 시나리오를 보고 자신의 행동 의도 및 행동 성향을 초점으로 대안을 선택하지만 지시문에서는 직무 지식이나 인지능력과 상관이 있는 정답을 초점으로 대안을 선택한다(Nguyen et, al., 2003). 일부 연구에서는 지시문에 따라 상황판단검사의 구성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McDaniel et, al., 2003). McDaniel 등(2003)은 상위 분석을 통해 지시문이 구성개념에 영향을 미치며, 지식형 지시문이 행동 성향 지시문의 경우에 비해 인지적 능력과 상관이 높고 행동 성향 지시문이 지식형 지시문에 비해 성격과의 상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McDaniel 등(2003)이 보고한 상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McDaniel 등(2006)은 행동 성향 지시문을 사용한 상황판단검사는 성격 특질 및 맥

략 수행과 유의한 상관 값을 가지며, 지식형 지시문을 사용한 상황판단검사는 일반 인지능력 및 과업 수행과 유의한 상관 값을 가진다고 하였다. 강민우 등(2005)의 연구에서 도 행동 성향 지시문의 상황판단검사가 성실성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고 과업 수행($r=.18$)보다는 맥락 수행과 상관이 높게($r=.35$) 나타났다.

행동 성향 상황판단검사가 수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Motowldlo 등(1990)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리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행동 일관성 원리(behavior consistency)이다. 가령 지원자들에게 직접 겪지 않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지원자들은 과거에 가장 비슷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했는지를 회상하려고 할 것이다. 즉, 상황판단검사에서 상황제시를 통해서 지원자들의 과거에 어떻게 행동하였는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다. 지원자들은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회상하는 작업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에 대한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황판단검사의 문항이 재고자 하는 속성을 적절히 이끌어서 측정한다면 지원자들의 응답은 유사한 장면에서 그들이 행동할 표본(sample)이 되고 결과적으로 미래 수행의 예측지표가 될 수 있다.

표 2. 지시문 차이에 따른 일반인지능력, 성격 및 상황판단검사의 상위분석예시

지시문 유형	표본수	연구수효	진상관(p)
일반인지능력(general mental ability)	22,553	62	.39
행동성향 지시문	5,263	21	.23
지식형 지시문	17,290	41	.43
원만성(agreeableness)	14,131	16	.33
행동성향 지시문	5,828	11	.53
지식형 지시문	8,303	5	.20
성실성(conscientiousness)	19,656	19	.37
행동성향 지시문	5,902	11	.51
지식형 지시문	13,754	8	.33
정서안정성(emotional stability)	7,718	14	.41
행동성향 지시문	5,728	10	.51
지식형 지시문	1,990	4	.11

주) p는 상위분석(meta analysis)에서 나온 모집단 상관값

두 번째는 목표설정이론(goal-setting theory)에서의 의도(intention)이다. Latham et al.,(1980)에서 제안하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물어보면 지원자들은 상황에 대해 자신이 의도하는 행동을 선택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는 직무를 잘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행동 성향 지시문에서는 지원자들의 각각의 상황에서 의도하는 행동을 측정할 수 있다. Wagner & Sternberg(1985)와 Wagner(1987)는 상황판단검사를 일반 정신 능력 검사와는 다른 실생활에서의 지능인 묵시지(tacit knowledge) 혹은 실용 지능(practical intelligence)을 측정하는 검사라고 주장하였다. Wagner & Sternberg(1985)는 전통적인 학업지능이상의 개념으로 지능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Schmitt 와 Chan(2006)은 상황판단검사가 맥락적지식(contextual knowledge)과 적응력(adaptability)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실용 지능 상황판단검사의 구성개념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표 3>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상황판단 측정 연구이다.

표 3. 국내외 상황판단 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대상
Chan & Schmitt, (1997)	인지 능력 시험에 대한 반응: 인종, 시험 수행, 대면적 타당성 인식 및 시험 응시 동기 사이의 관계	대학생
Schmitt & Chan, (2006)	인사선발측정	관리자
Weekley & Jones, (1999)	상황판단에 대한 추가연구	7개 영업 조직
Motowidlo, Dunnette & Carte, (1990)	저충실도 시뮬레이션 (low-fidelity simulation)검사로 지필형 상황판단검사 적용(전기통신업)	관리자
Motowidlo, 등(1990)	대인관계, 해결, 의사소통과 전반적 효과성을 준거로 상황판단검사의 타당도 연구	관리자
정현성, 박동건(2009)	지식형 상황판단검사의 채점용 답 결정과 채점방식에 따른 준거관련 타당도 비교연구	산업조직
강민우, 윤창영, 이순목 (2005).	지시문과 채점방식에 상황판단검사의 타당도 비교연구	산업조직
백순근, 임현수(2006)	실천지능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중학교 교사
신명진(2015)	스포츠심리학에서 상황판단검사의 필요성과 채점방식에 따른 타당성 비교	청소년 운동선수
이상철, 이순목, 조영일 (2003).	·지필형 상황판단검사에 대한 비평적 고찰	산업조직
정현성, 박동건(2009)	지식형 상황판단검사의 채점용 답(Scoring key) 결정과 채점 방식에 따른 준거관련 타당도 비교 연구	기업 관리자

2. 암묵적 이론

1) 사회 인지적 동기

대부분의 동기 이론가들은 동기부여가 모든 학습된 반응의 수행에 관련되어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의 근원이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부로부터 발생한다는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의 관계를 제시한다(Deci & Ryan, 1985b; Dweck, 1999; Mueller & Dweck, 1998).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ies) 또는 내재적 이론은 마음가짐에 따라 지능에 대한 자신감은 숙달 지향적인 자질의 열쇠라는 능력 향상에 대한 믿음에 관하여 갖는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 가지는 신념 즉 자기이론(Self-Theory)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Dweck, 2006; Dweck, Chiu & Hong, 1995). 특히 자신의 지능이 노력을 통해 변화될 수 없다는 고정된 특성이거나 노력과 투자를 통해 증가 및 개선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관리 가능한 관점으로 암묵적 이론(Implicit Personality Theories; IPT)은 자신의 지능이 명시적인 지식이 아니라 암묵적인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Dweck, 1996; Dweck & Bempechat, 1983; Dweck & Elliott, 1983). 이는 사람들이 인간의 속성을 안정적 실체 또는 수정 가능한 실체로 평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Dweck et al., 1983). 비록 사람들이 재능과 적성, 기질 또는 관심사 등 모든 면에서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적응과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우리의 능력과 지능은 타고난 변화가 없다고 정의한 고정된 특성과 대조적이다. Dweck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고유한 재능(또는 능력이 없거나)이 성공을 정의한다고 믿는 사람들보다 더 큰 성공률을 보인다고 말한다. 이런 마음가짐은 학교, 학생 및 교사에게 이론을 적용하기보다는 교육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 및 자기결정이론에 대한 연구와 다르다. 수많은 연구와 주요 연구를 통해 지능의 IPT는 신념 체계로 작용했고, 이는 성취 행동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Dweck et al., 1999, 2006).

Dweck, Chiu & Hong(1995)은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의 결과를 구명하기 위해 40

년간 많은 연구와 노력의 결실로 암묵적 이론을 통해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가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그것이 마음가짐이라는 것이다(Dweck, 2006). 암묵적 성격 이론(Implicit Personality Theories; IPT)은 학업 및 예술, 과학, 스포츠, 비즈니스 각 분야에서 위인이 된 사람들의 구성 체계나 믿음체계로 표현하며 특히 성취맥락에서 동기 및 행동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Dweck, 1999; Dweck et, al., 1995). Dweck와 동료들(1983, 1985, 1986, 1988)이 제시하는 동기 프로세스 모델(Motivation Process Model: MPM)은 기본적으로 환경변수가 경계조건으로 작용하는 특성 지향 성격 이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하나의 극단적 행동 패턴에서 다른 극단적 행동 패턴에 대한 무력한 행동에 이르기까지 성취맥락에서 적응적 행동의 전체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심적인 설명구조는 인지적 능력 즉, 지능의 암묵적 성격 이론으로 전체 작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체계로 작용한다고 제안한다. 그 중심 구조에는 인간 특성의 부적응성에 대한 개인의 믿음에 관한 것으로 목표 개발과 정보 처리를 결정하고, 이는 다시 자신의 지능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행동을 결정하는 성격 특성이 어떻게 특정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 선행조건들을 설명하는 이론적 골조로 활용되고 있다(Dweck, 1996; Dweck, Hong & Chiu, 1993; Molden & Dweck, 2000).

암묵적 이론은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의 다양한 이론과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동기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인간 특성의 가변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은 성취맥락에서 인지적 행동과 지능의 암묵적 성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체계로 작용한다고 가정한다(Erdley & Dweck, 1993; Dweck, 1993, 1989; Dweck & Elliott, 1983). 이 이론에서는 지각된 유능성이나 능력이 성취동기와 행동을 결정짓는 선행조건 또는 결정요인이라는데 합의를 보이며, 구체적으로 이들 이론은 성취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은 유능성을 얻기 위하여 참여자체를 즐기고 노력하는 반면, 자신의 능력을 낮게 지각하는 사람은 낮은 동기로 지속력이 떨어져 노력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Duda, 1989). Claudia, Mueller & Dweck(1998)의 연구에 의하면, 지능(예, 똑똑하다)에 관한 칭찬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과에 대한 신념을 바꾸어 성취동기에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며, 능력에 대한 칭찬은 동기부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예로, 초등학교 3

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시험성적을 타 학교 학생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때,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진 학생 40%는 자신의 결함이 주위 사람들에게 들어나는 것을 수치심으로 느껴 자신의 점수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 사고방식을 가진 학생 13% 만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성적을 위조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보인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Dweck(2006)은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사이에 지능은 고정된 특성이라고 믿는 학생들이 2학년 18%, 3학년 42%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정된 신념을 지닌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암묵적 이론(IPT)은 사회 인지적 동기 성격 모형에서 제시하는 동기부여와 행동 그 가운데 성취동기 맥락에서 중요한 결과를 입증하였다.

2) 사회 인지 동기모형

사회 인지 동기모형은 동기적인 측면에서 성취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마음가짐에 따라 성취행동이 다르게 결정된다고 보는 성취모형이다(Dweck & Leggett, 1988). 이 모형에서 사회인지란 환경적 사건들, 신념, 가치의 개인적 요인 그리고 행동 등은 서로에 대해 영향을 준다는 사회인지이론에 기반하며(Bandura, 1986), 학교 성적, 거절, 피드백, 칭찬, 비난 등의 사회적 상황과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 기대, 목적 유형인 사회인지적 변인이 행동을 중재하고 조절한다고 본다(Dweck, 2000; Mischel, Shoda, & Rodriguez, 1989). 즉, 사회인지적 변인에 영향을 받는 마음가짐에 따라 목표지향성이 달라지고 과제수행 결과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달리 지각하며 이후의 성취반응이 나타난다(Dweck & Leggett, 1988). 사회 인지 동기모형은 Murray(1938)와 McClelland(1985)의 성취동기이론과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귀인이론(Heider, 1958; Weiner, 1985)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동기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초기에 목표성향을 설명하였고, 점차 실패 경험에 대한 귀인과 이로 인한 정서와 인지, 행동 등으로 확장하여 이후, 이러한 프로세스는 다양한 방면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Cimpian, Arce, Markman & Dweck, 2007; Grant & Dweck, 2003; Heckhausen & Dweck, 1998; Levy & Dweck, 1998). Dweck(1986)은 적응적 및 부 적응적 동기 패턴을 설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동기 프로세스의 연구 기반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학생들이 인지 과제에 대해 추구하는 특정 목

표가 성공과 실패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형성하고 인지 수행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부적응 동기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과 개입의 설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이러한 동기 프로세스 모델(Motivation Process Model)은 기본적 경계조건으로 작용하는 특성 지향적 성격론이라고 지적한다(Dweck, 1986, 1989; Dweck & Elliott, 1983; Dweck & Leggett, 1988; Erdley & Dweck, 1993). 예를 들어 높은 성취도를 가진 사람이 표준적 능력을 획득하여 역량에 대한 유리한 판단의 달성에 초점을 맞춘 성과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동기 프로세스 모델(MPM)의 초점은 그 행동에서 다루어지는 목표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격특성이 어떻게 특정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였다(Dweck 1986). 그 예로, 성취상황에서 학생들의 목표는 두 가지 패턴을 다르게 함양한다는 것을 확인했다<표 4 참조>. 지능이 고정된 특성(실체이론)이라고 믿는 학생들은 성과목표에 따라 행동이 나타나는 반면, 지능이 가변(증분론)적이라고 믿는 아이들은 그 특성을 학습목표를 개발하는 쪽으로 행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예로 동료관계에 점진적 견해를 가진 청소년들은 동료집단에서 사회적 역량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숙달 지향적인 사회적 목표를 가지는 반면, 동료관계에 고정화된 견해를 가진 청소년은 동료집단에서 무능하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우려감 등의 부정적 견해가 작용하여 이러한 동료관계는 성과 지향적인 목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Rudolph, 2010). 이러한 의미에서 성과목표에 적용된 동기 프로세스 모델(MPM)은 지능의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ies)의 개인 내 중심효과에

표 4. 성취목표에 따른 성취 행동 특성

지능론	성취목표성향	현재능력	행동패턴
실체이론 (고정지능)	성과목표 (예:목표에 대한 긍정적 판단 /부정적 판단을 피하는 것)	높은경우→	탐색, 도전, 높은 지속성
		낮은경우→	무기력, 회피, 낮은 지속성
증분론 (성장지능)	학습목표 (역량강화)	높은경우→	마스터 지향적 도전추구, 학습촉진
		낮은경우→	높은 지속력

관한 성격적 지능 이론임을 지지할 수 있다(Dweck, 1996; Elliott & Harackiewicz, 1996). MPM의 구성 요소는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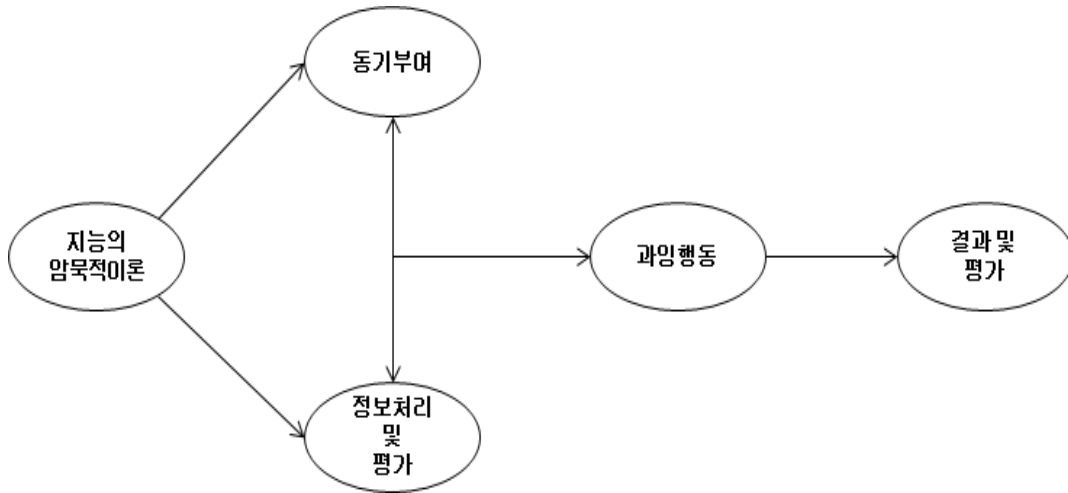


그림 3. 암묵적 이론에서 제안하는 동기 프로세스모형(Abd-El-Fattah, 2006 인용)

3. 선행연구 고찰

1) 성공 지능이론의 구인타당성과 측정도구

성공지능(successful intelligence)은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지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한다(이영만, 2006). 즉, 기존의 학업능력만을 강조하던 지능이론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학업능력 이외에도 존재하는 지능의 실체를 밝혀내면서 의미를 확장하였다. 또한 성공지능은 다차원적인 하위지능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능을 포괄적으로 설명한다(강지훈, 윤영길, 2013). 학교에서 우수생뿐만 아니라 인생의 우수생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교육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분야에서 성공지능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학업성취(강영심, 송연주, 2002; 나동진, 김진철, 이정규, 2005; 문용린, 강민수, 2004; Sternberg, 1998b)와 수업적용(Sternberg, 1998a)에 관련된 접근을 중심으로 성공지능의 도입(Sternberg, 1999)과 적용(이영만, 2007; Sternberg & Grigorenko, 2004), 이론적 고찰(하대현, 2004, 2005), 활용 가능성(신종호, 권희경, 2004), 측정도구의 타당성(하대현, 2009), 교사용 실천지능검사의 타당화(백순근, 임현수, 2006)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 실천지능 검사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실천지능은 일반적 능력이라기보다는 특정 영역이나 상황과 연계된 특수한 능력으로 특정 영역에서 주어진 상황 및 여건에서의 적합성과 효용성을 더 중시한다. 따라서 직업에 따라 실천지능은 다를 수 있으며, 또 같은 직업 내에서도 직급이나 부서에 따라 실천지능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보고한다(백순근, 2005). 이러한 관점에서 백순근(2005)은 교사가 교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교사의 실천지능으로 규정하고, 교직수행지능의 하위영역으로 ①교과교육 ②생활지도 ③행정업무 ④학생과의 관계 ⑤학부모와의 관계 ⑥동료교사와의 관계 ⑦자기계발의 일곱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하위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행동전략을 자기조절, 상황조정, 무관심의 세 유형으로 분류한 다음, 교직수행지능의 측정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하위영역×행동전략’으로 이원화하여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5>는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나 업무에 따른 7가지 하위 영역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표 5. 교사용 실천지능검사의 하위영역 및 행동전략의 의미(백순근, 임현수, 2006)

구분	의미
하위 영역	교과교육: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업무와 관련
	생활지도: 학생들의 인성, 진로, 교내외 활동 등을 지도하는 업무와 관련
	행정업무: 학급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되는 각종 행정 및 사무적 업무와 관련
	학생과의 관계: 교사와 학생과의 인간관계와 관련
	학부모와의 관계: 교사와 학부모와의 인간관계와 관련
	동료교사와의 관계: 교사와 교사와의 인간관계와 관련
행동 전략	자기개발: 자신의 전문성이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관련
	자기조절: 주어진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희생함으로써 해결 또는 해소하려는 행동전략
	상황조정: 주어진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 타인의 변화나 여건의 개선을 추구함으로써 해결 또는 해소하려는 행동전략
	무관심: 주어진 문제나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등 자신과 무관한 문제나 갈등 상황인 것처럼 처리하는 행동전략

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갈등 상황을 해결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행동전략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표 5참조>.

백순근, 임현수(2006)는 교사용 실천지능 검사의 7가지 하위 영역과 3가지 행동전략 유형의 이원분류표에 근거하여 중학교 교사용 실천지능검사(PIT-MST: Practical Intelligence Test for Middle School)를 개발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PIT-MST에서 제시한 각 하위영역의 갈등상황이나 문제 상황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들로서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사례들로 구체적인 예시문항을 제시하고 있다. <표 6>은 PIT-MST에 포함된 하위영역 및 행동전략에 속하는 문항 및 선택지 이다. 각 문항에 대하여 교사가 선택지와 같은 상황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1, 2, 3순위를 표시하도록 한 응답 결과를 활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채점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PIT-MST의 재검사신뢰도는 .83, Cronbach α =.67로 보고하고 있다.

표 6. PIT-MST 검사 하위영역 및 행동전략에 속하는 문항 및 선택지(백순근, 임현수 2006)

PIT-MST 하위영역			행동전략		
7 영역	문제나 갈등상황	문항 번호	자기 조절	상황 조정	무관심
교과교육	도시지역 학생들에게 세계문화 가르치기	1	①	③	②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 지도 문제	8	②	③	①
	시험범위까지 진도를 마치지 못한 상황	15	③	①	②
생활지도	교칙과 교사 신념간의 갈등 상황	2	②	①	③
	학생이 진로선택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	9	②	③	①
	고교진학과 관련한 진로지도	16	②	①	③
행정업무	교육청 설문조사 회송 업무 상황	3	②	③	①
	학생에게 급식비 독촉을 요구하는 행정실과의 갈등	10	②	③	①
	교내 기초학력 증진반 담당 요청 상황	17	①	③	②
학생과의 관계	음악실 청소 담당 학생들이 청소를 하지 않는 상황	4	②	③	①
	학생들이 교사에게 밤늦게 문자 및 전화하는 상황	11	①	②	③
	담당 학생이 교장선생님께 혼나고 있는 상황	18	③	①	②
학부모와의 관계	학부모의 수행평가 접수 배려 부탁 상황	5	③	①	②
	학급 환경 미화에 대한 학부모와의 갈등	12	②	③	①
	교육관 차이에서 기인하는 학부모와의 갈등	19	②	③	①
동료교사와의 관계	갑작스런 교사회식 모임 참여 문제	6	②	③	①
	부장교사의 수업시수 청탁상황	13	①	②	③
	동료교사로부터 동아리 활동을 부탁받은 상황	20	①	②	③
자기개발	방학 중 본인의 어학연수와 학생캠프 인솔교사 참여 갈등	7	②	③	①
	방학 중 계획을 세워 자기개발을 하는 문제	14	②	③	①
	현장연구 수행 부탁을 받은 상황	21	②	③	①

성공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Sternberg가 삼원지능이론에 근거하여 제작한 STAT(Sternberg, 1993)를 많이 사용한다. STAT는 삼원지능검사로써 분석지능, 창의지능, 실천지능을 다양하게 측정하기 위해 각 능력마다 언어, 수, 도형영역에서 객관식과 논술형태로 12개의 하위검사로 구성된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TAT의 측정요인은 <표 7>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구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STAT를 번안하여 연령과 수준에 맞게 사용하는 도구와 Sternberg의 이해력검사(Comprehensive Ability Test; CAT)를 개발하기 위해 제안한 문항에 근거하여 제작한 신종합지능검사(박도순, 하대현, 성태제, 2000; 나동진 등, 2005), 그리고 문용린 및 강민수(2004)가 제작한 성공지능검사도구, 하대현(2009)이 제작한 한국판 삼원지능검사(Korea Sternberg Triarchic Abilities Test; KSTAT)가 있다.

표 7. STAT의 검사요인(이영만, 2006 인용)

하위지능	영역	검사요인
분석지능	언어영역	단어의 의미 추론
	수 영역	규칙 찾아 빈칸 채우기
	도형영역	도형 관계에 따른 공간 채우기
창의지능	언어영역	최상의 해결책 찾기
	수 영역	스스로 원리 찾기
	도형영역	효과적인 길 찾기, 도형 넓이 비교
실천지능	언어영역	단어 추리와 관계 찾기
	수 영역	규칙을 이용한 문제해결
	도형영역	도형의 변형 속에 규칙 찾기

<표 8>은 KSTAT에서 제시한 3가지 능력과 3가지 정보자극 유형의 교차되어 나타나는 하위검사이다. 일상추리 검사는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추리와 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상 도형 추리는 일상생활에서의 도형추리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여러 종류의 길 안내문을 보고 지형이나 지형물에 대한 위치, 방향, 거리를 추리해야하는 10의 문항을 구성한다.

표 8. KSTAT의 하위검사 구성: 능력 영역 × 정보자극 유형(하대현, 2009)

정보자극유형	KSTAT 능력		
	분석	창의	실제
언어	언어 이해력	가설적 사고 신기한 언어 튜추	일상추리(언어)*
수	수열 추리	통찰	일상추리(수)*
도형	도형 유추	-	일상 도형 추리

하대현(2009)의 KSTAT를 우리나라 중학생 2,132명에게 실시하여 성공 지능이론을 구성하는 분석, 창의, 실제 능력의 구인타당성과 관련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KSTAT를 우리나라 중학생에게 실시한 결과, 창의 능력과 실제 능력은 일반지능 g와 각각 유의한 상관을 보이며, 창의, 실제 능력간의 상관은 상호독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보인 것을 확인하였다<표 9 참조>.

표 9. KSTAT 세 능력과 하위 검사간의 상호상관행렬(n=2,132)

KSTAT하위검사	1	2	3	4	5	6	7	8	9	10	11
1.분석능력	-										
2.언어이해력	.72**	-									
3.수열추리	.80**	.36**	-								
4.도형유추	.72**	.31**	.38**	-							
5.창의능력	.60**	.52**	.44**	.41**	-						
6.가설적사고	.34**	.33**	.20**	.24**	.71**	-					
7.신기한언어유추	.49**	.41**	.35**	.36**	.78**	.34**	-				
8.통찰	.51**	.42**	.42**	.31**	.71**	.28**	.32**	-			
9.실제능력	.56**	.48**	.43**	.36**	.52**	.32**	.42**	.41**	-		
10.일상추리	.51**	.47**	.38**	.30**	.48**	.31**	.37**	.38**	.83**	-	
11.일상도형추리	.42**	.33**	.33**	.29**	.39**	.23**	.33**	.30**	.80**	.35**	-

**p<.001

이러한 검증을 통해 하대현은 Sternberg의 가설이 대체로 지지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Sternberg가 그간의 지능이론과 연구, 교육 및 산업 장면에서 기여해온 공헌은 간과할 수 없다고 제시한다.

Sternberg(1981, 1985b)는 사람들이 지적 능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암묵적 이론을 분석하여 ‘지능’의 개념에는 전통적인 일반지능 이외에 실용지능의 개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실제로 그는 암묵적 이론과 관련한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지능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기초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지능을 평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암묵적 이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명확한 형태는 아니지만 의식 속에서 이미 특정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신념과 같은 것을 말한다. 암묵적 이론과 실용지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어떠한 인식이 존재하는지를 수행한 선행연구로 양수정, 이순목(1999)의 연구가 있다.

양수정, 이순목(1999)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능의 암묵이론적 접근을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학업지능과 실용지능의 구성개념을 확인하였다. 먼저, 학업지능에서는 ①문제해결능력 ②자기관리능력 ③창의력 ④기억력 ⑤개인주의 성향 ⑥언어능력 및 ⑦자기효능감이 발견되었고, 실용지능에서는 ①자기관리능력 ②대인관계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사회규범능력 ⑤창의력 ⑥언어능력 ⑦이해타산적 성향 및 지배적 성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한다. 또한 Lim, Jonathan, & Im(2002)은 한국 성인들과 미국 성인들과의 암묵적 이론과 학문적 지능, 지적지능, 일상적 지능의 차이를 본

연구를 통해 학문적 지능에서는 ①사회적 능력 ②문제해결능력 ③실무능력 ④상황 대처능력 ⑤언어능력으로 구분하였고, 일상적 지능에서는 ①사회적능력 ②문제해결 능력 ③실무능력 ④기억력으로 구분하였다. 지적지능으로는 ①사회적 능력 ②문제 해결능력 ③상황대처능력 ④자기관리능력 ⑤실무능력으로 구분하여 한국 사람들이 암묵적 지능이론에서 사회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평가할 때 태도와 그 이후의 암묵적 이론 사이에 또 다른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스포츠에서는 지능을 축구지능, 신체지능, 경기지능 등의 관점으로 논의하는데, 축구지능(윤영길, 2004; 윤영길, 이용수, 2006)은 순간판단력, 생각하는 플레이, 임기응 변능력, 창의력을 포함한 능력으로, 신체지능(윤영길, 2011)은 체력이나 운동기술, 체력조건, 운동발현과 조절 등 경기나 훈련에서 자기신체를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 일 수 있는 능력으로 본다. 그리고 윤영길(2011)은 경기지능을 경기상황에 적용해 환경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는 능력으로써, 경기지능의 하위요인은 성공지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체육 스포츠 분야에서 실천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 검사 방법으로 신명진(2014)의 청소년 운동선수 생활실천지능 상황판단검사 도구가 있다. 신명진(2014)은 운동선수로 성공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스포츠 환경을 경쟁환경 과 일반환경으로 분류하였다. 스포츠 경쟁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잘 해결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상황대처 능력, 상황판단 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을 포함한 단일요인의 15문항 의 갈등상황을 제시한 척도이다. 청소년 운동선수 468명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실천 지능 상황판단검사의 구성타당도, 변별타당도, 수렴타당도 및 신뢰도도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2) 자기이론(Self-Theory)과 운동능력

능력의 자기이론을 체육과 스포츠에 적용한 Sarrazin, Biddle, Famose, Cury, Fox & Durand(1996)은 운동능력에 대한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지(The Conceptions of the Nature of Athletic Ability Questionnaire; CNAAQ)를 통해 6가지 운동능력믿음(안정적, 재능, 일반적, 학습, 증가된, 특별한)을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Biddle, Wang, Chatzisarntis 와 Spray(2003)는 운동능력에 대한 믿음이 상위 2개의 믿음(실재 믿음=안정적, 재능; 증가된 믿음=향상,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CNAAQ를 CNAAQ-2로 명명하였다(박중길, 김기형, 2010) <표 10참조>. 이들 연구자들은 운동능력에 대한 개인의 실재믿음과 증가된 믿음이 내적흥미와 동기 수준을 예측하는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들은 개인이 특정 활동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질 때 보다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어 보다 나은 수행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Hughes & Zhang, 2007; Howell & Buro, 2008; Malmberg & Little, 2007). 이와 같은 결과는 스포츠와 체육에서 시도된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표 10. Biddle, Wang, Chatzisarntis & Spray(2003)의 운동능력 믿음 척도 내용

요인	문항 내용
실재 믿음	2.내가 충분히 연습을 한다면 운동실력은 항상 좋아질 것이다. 3.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운동능력을 타고날 필요가 있다. 4.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운동기능은 항상 좋아질 것이다. 6.내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능 믿음	8.뛰어난 실력(운동)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1.내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이 필요하다. 5.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 운동기능이 좋아야 한다. 7.내가 가진 운동능력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Biddle 등(1999)은 증가된 믿음과 실재 믿음이 각각 과제성향과 자아성향을 예측하고, 두 목표는 지각된 유능감에 직접 효과를 미치나 과제성향은 스포츠 참가 의도에 직접효과뿐 아니라 지각된 유능감을 통해 간접 효과를 준다고 보고하였다. 유사한 결과들이 능력믿음과 동

기 구인과의 관계연구에서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다(Biddle & Wang, 2003; Cury, Da Fonseca, Rufo, & Sarrazin, 2002; Lintune, Valkonen, Leskinen, & Biddle, 1999; Spray et al., 2006; Whitehead, Andree, & Lee, 2004).

국내에서 박중길, 김기형(2010)은 Biddle 등(1999)의 원칙도 CNAAQ-2와 Lonsdale & Hodge, Rose(2008)가 개발한 '스포츠 행동 조절검사지(Behavioral Regulation in Sport Questionnaire; BRSQ)로 남·녀 중고등학교와 대학 운동선수들의 인지와 행동을 측정하는 스포츠 능력믿음 및 스포츠 행동 조절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구조적 모형은 <그림 4>와 같다<그림 5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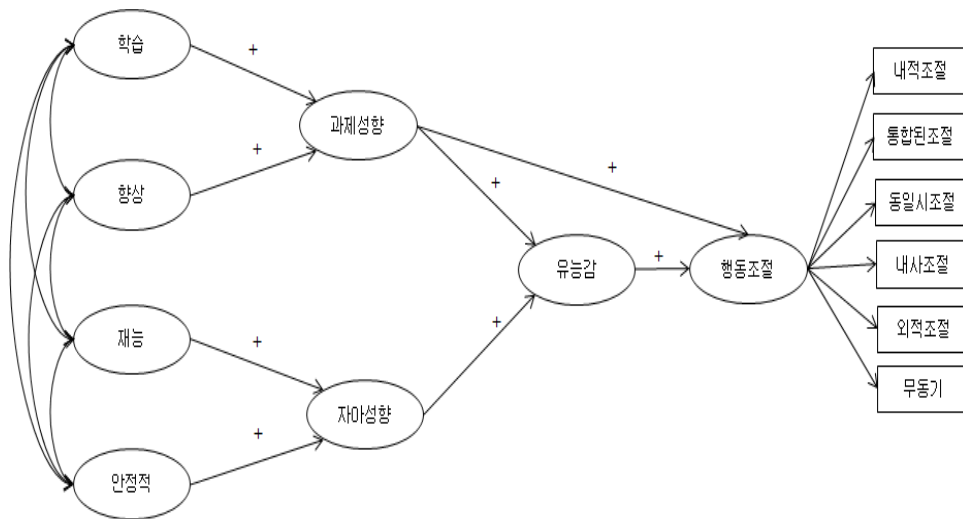


그림 9. 학생-운동선수의 스포츠 능력 믿음과 성취목표 및 행동 조절의 구조적 관계(박중길, 김기형, 2010 인용)

박중길, 김기형(2010)은 Biddle(2003)이 개발한 4요인 12문항의 운동능력검사지(CNAAQ-2)를 번안하여 3문항씩 총 12개의 예비문항을 확정지었고, Lonsdale 등(2008)의 스포츠 행동 조절검사지(BRSQ) 및 SMS를 활용한 6요인 24문항으로 구성된 스포츠 행동 조절검사지를 번안하여 운동선수들과의 면담을 통해 3문항씩 총 18개의 새로운 문항을 도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확정된 4요인(항상, 재능, 학습, 안정적), 12문항의 스포츠 능력믿음 검사지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하위요인 모두에서 .60이상의 신뢰도계수를 보였다. 검사-재검사의 과정을 따른 상관계수는 모든 요인에서 .70이상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그

림 5참조>. 또한 검사지가 단일척도로써 성별, 학교급별 및 종목별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의 구인동등성 검증과 잠재평균 분석을 한 결과, 구인 동등성이 모두 검증되어 12문항의 한국판 스포츠 능력믿음 검사지는 성별, 교급별, 종목 특성에 관계없이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능력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는데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연구결과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일반계열과 체육계열 중고교 선수들을 구분하지 않고 도출되었다는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다(이경선, 2011). 검사지에서 사용된 문항들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측정도구의 개발에 있어 동등성에 관한 문제는 매우 고려되어야 한다(Li, Harmer, Chi & Vongjaterapat, 1996)고 제안한다(이경선,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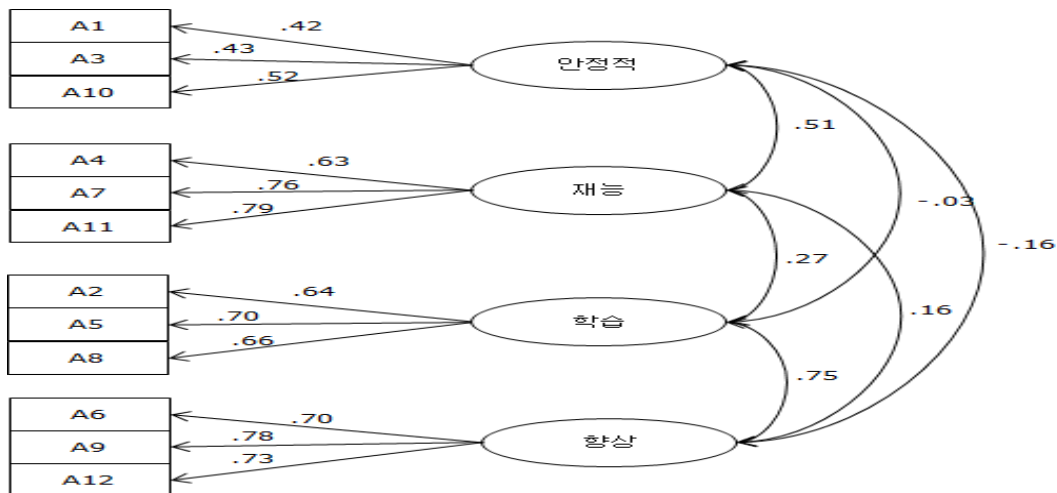


그림 5. 스포츠 능력믿음 검사지의 확인적 경로 모형(박중길, 김기형, 2010 인용)

다음은 경일수, 서은영, 김혜균, 탁진국(2018)이 개발한 성장지향성 척도가 있다. 이 측정도구는 인간의 심리적 욕구에 주목하여 인간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하려고 한다는 개인의 신념, 사고방식 및 태도를 심리적 특성으로 하여 성장지향성으로 정의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운명신념, 지능신념, 재능신념, 과정지향수행태도, 실패·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총 5요인이며, 기존 성장 마인드셋 척도와 비교하여 차이를 나타내는 세 개의 요인을 추가하였다(경일수, 서은영, 김혜균, 탁진국, 2018).

Ⅲ. 연구 1

1. 문제 제기

1) 연구목적

연구 1의 목적은 스포츠 상황에 따른 실천지능척도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및 대학 운동선수들이 경험할 수 있는 스포츠 환경과 인식을 바탕으로 암묵적 이론에서 제안하는 신념을 확장하여 문헌 연구와 마음가짐의 구성개념을 토대로 예비 문항수집에 있다. 이를 위해 연구 1은 4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부합되는 문항들을 수집하기 위한 과정으로 선행문헌과 질문지를 고찰하여 스포츠 상황에 따른 마음가짐 구인들을 탐색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스포츠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 속성들과 관련한 마음가짐 개념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개방형 척도를 사용하여 자유기술응답을 얻고자 하였다. 세 번째, 요인 및 세부 문항의 정제와 평가단계로 설정하여 2단계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귀납시킨 내용을 토대로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네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질문지를 제작하여 어떠한 요인구조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 1의 목적은 신뢰롭고 타당한 스포츠실천지능척도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문헌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차원들은 무엇인가?

둘째,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귀납적 내용분석의 범주는 어떠한가?

셋째, 사전조사에서 나타난 요인구조와 문항수는 어떠한가?

넷째, 본조사에서 개발된 스포츠실천지능척도의 요인구조와 문항수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1은 우리나라 스포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스포츠실천지능척도를 개발하는 단계로 청소년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담 집단, 개방형조사 집단, 사전조사 집단, 본조사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였으며 구체적으로 심층면담은 운동선수 8명, 코치 2명, 개방형 조사에는 100명(남학생 87명, 여학생 13명), 사전조사에는 52명(남학생 41명, 여학생 11명, 본조사에는 300명(남학생 218명, 여학생 82명) 총 462명이 참여하였다. 참여대상자는 개인종목(검도, 유도, 태권도, 골프, 수영, 복싱, 주짓수, 씨름, 레슬링)과 단체종목(축구, 배구, 야구)에서 참여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심층면담 집단

연구 1의 목적은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훈련장 및 경기장에서 운동선수에게 요구되는 실천지능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하여 스포츠 실천지능척도를 제작하고 이를 타당화하는 것이다. 먼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 다음 선행 연구된 신명진(2014)의 스포츠 환경을 검토한 후 하위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스포츠 환경을 훈련 상황, 진로 결정에 따른 상황, 팀 구성원들과의 상황으로 설정한 후 제시문항을 개념화하고 3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포츠 상황에 따라 운동선수들이 어떠한 신념적 관점을 갖는지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별된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구조를 확인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우선 청소년 운동선수 8명과 운동부 지도자 2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운동 종목은 3개 종목(야구, 골프, 검도)으로 선정하였고 운동경력과 나이, 명성 등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심층면담의 목적은 운동선수가 훈련장 또는 경기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신명진(2014)이 제시한 운동선수 갈등 상황들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가장 부합되는 상황들을 발췌하기 위해서이다. 신명진(2014)은 청소년 운동선수 생활실천지능 구성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7개 운동종목을 선정하여 지도자 7명을 대상으로 생활실천지능 구성개념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신명진(2014)의 면담질문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신명진(2014)의 면담질문 내용

청소년 운동선수 실천지능 하위 구성요인은 무엇인가요?	
1.	수행력을 제외하고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위한 능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2.	수행력은 뛰어나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선수들은 능력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3.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나. 개방형조사 집단

개방형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대상은 제주도 및 경상북도에 소재한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참여하였다. 개방형조사에 참여한 운동선수들의 구체적 일반특성은 <표 1-2>와 같다.

표 1-2. 개방형조사 집단의 일반적 특성

배경변인	구분	표집수	
성별	남자	87(87.0%)	
	여자	13(13.0%)	
교급	고등학교	73(73.0%)	
	대학교	27(27.0%)	
학년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4(14.8%)
	2학년	18(24.7%)	13(48.1%)
	3학년	55(75.3%)	7(25.9%)
	4학년		3(11.1%)
운동종목	개인종목	76(75.2%)	
	단체종목	24(23.8%)	
운동기간	1년 이상	1(1.0%)	
	2년 이상	6(6.0%)	
	3년 이상	3(3.0%)	
	4년 이상	90(90%)	
	합계	100명(100%)	

다. 사전조사 집단

개방형조사 실시 후 귀납적 내용분석을 한 자료를 토대로 71문항의 예비문항을 제작하였다. 사전조사에서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선택지 채점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각 지시문의 상황을 읽고 제시된 마음가짐 전략이 각 상황에 얼마나 적절한지를 5점 기준(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으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예비조사는 60명의 대학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60명에게 검사지가 배부되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8부의 자료를 제외시킨 52부의 자료를 토대로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 일반특성은 <표 1-3>과 같다.

표 1-3. 사전조사 집단의 일반적 특성

배경변인	구분	표집수
성별	남자	41(78.8%)
	여자	11(21.2%)
교급	대학교	52(100%)
	1학년	1(1.9%)
학년	2학년	11(21.2%)
	3학년	16(30.8%)
	4학년	24(46.2%)
	합계	52명(100%)
운동종목	개인종목	39(70.0%)
	단체종목	13(25.0%)
운동기간	1년 이상	11(21.2%)
	2년 이상	11(21.2%)
	3년 이상	30(57.7%)
	합계	52명(100%)

라. 본조사 집단

예비검사 후 하위영역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들을 제외하였고, 전문가협의를 통하여 문항 정제 및 평가 과정을 거쳐 선별된 45문항에 대해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대구·경북 및 충청도에 소재한 체육고등학교 및 대학 운동부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30명에게 검사지가 배부되었으나 회수되지 못한 25부와 반응고정화 현상을 보이는 5부의 자료를 제외한 300부의 자료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 일반특성은 <표 1-4>와 같다.

표 1-4. 본조사의 일반적 특성

배경변인	구분	표집수	
성별	남자	218(72.7%)	
	여자	82(27.3%)	
교급	고등학교	206(68.7%)	
	대학교	94(31.3%)	
학년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68(33.2%)	20(21.1%)
	2학년	60(29.3%)	29(30.5%)
	3학년	77(37.6%)	28(29.5%)
	4학년	.	18(18.9%)
운동종목	개인종목	283(94.3%)	
	단체종목	17(5.7%)	
운동시기	초등이전	17(5.7%)	
	초등학교	109(36.3%)	
	중학교	154(51.3%)	
	고등학교	20(6.7%)	
	합계	300명(100%)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척도개발의 방법론과 절차를 다른 문헌들에 근거하여 Spector(1992)의 연구 절차를 준용하였다. 연구 절차는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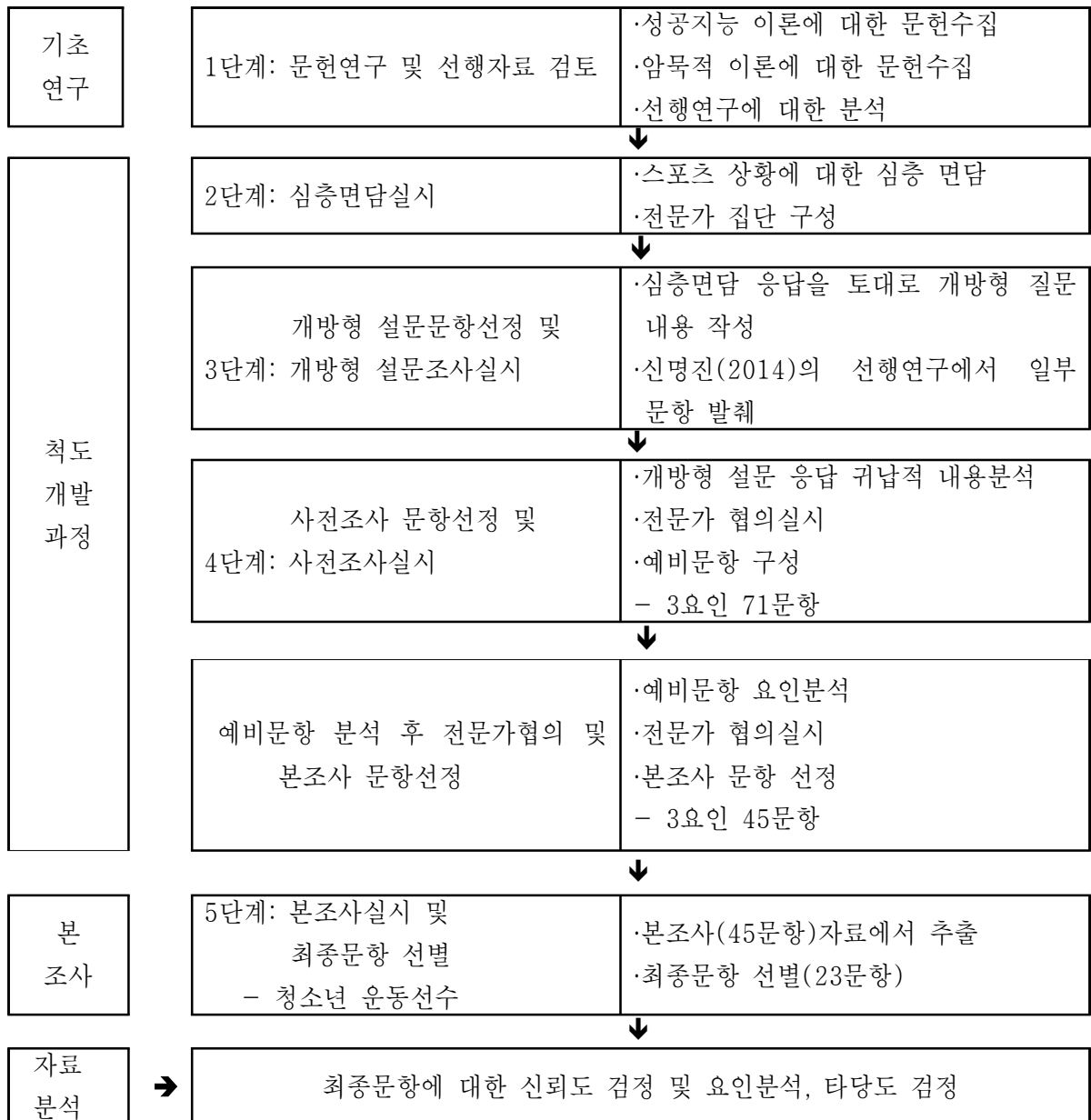


그림 6. 스포츠실천지능 척도개발 절차

Spector(1992)는 Likert의 연구절차를 세분화하여 총 5단계로 구분하였다. 그 첫 단계로 개념정의(define the construct)의 단계로 본 연구에서의 첫 번째 단계는 개념정의를 위한 선행연구 검토 및 기초 연구단계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선행연구를 통해 실천지능의 하위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한 후 운동선수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동선수 및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척도설계(define the scale)의 단계로, 예비 요인 및 문항 선정을 위해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단계 면담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스포츠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에 따른 마음가짐의 구성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유기술응답방식의 개방형 조사를 하였다. 질문 내용은 전문가 집단 회의를 통해 문항 내용에 대한 평가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면담을 통한 예비 질문과 신명진(2014)이 제시한 스포츠 갈등 상황 중 일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유사성 문항 구분을 통해 예비 요인 선정 및 해당 요인의 세부 문항을 제작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사전조사 문항의 선정단계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귀납시킨 내용을 토대로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는 최종문항의 선정을 위한 본 조사의 단계로 사전조사를 통해 선별된 문항을 토대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구조의 적합성과 신뢰도검증 및 최종문항의 선별단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1단계 문헌 연구 및 선행연구 검토

먼저, 예비문항의 구성을 위해 운동선수 스포츠 상황의 구성요인과 개념정립을 위해 문헌고찰 → 면담 → 구성요인 선정단계 순으로 실시하였다.

문헌검토는 첫째, 원칙도인 Sternberg의 상황판단검사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홈페이지(<https://www.assessmentday.co.uk/situational-judgement-test.htm>)에서 외국어로 된 Sternberg의 상황판단검사 도구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상황판단검사척도에 대한 번역 절차는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이중언어 사용자가 참여하였으며, 이중언어 사용자는 해외에서 1년 이상 연수 경험이 있

고 영어영문학을 전공한 제 3의 학자를 선정하였다. 번역본은 본 연구자와 상호 비교·검토하였으며, 번역된 문항들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번역된 내용들과 청소년 운동선수 생활실천지능(신명진, 2014)과 유사한 개념들을 조사 및 구성요인을 살펴보았다. 둘째, 지능은 하나의 단일 구인이 아닌 많은 인지 기술들의 집합체라고 보는 지능의 변화내용을 바탕으로 Sternberg(1977)의 성공지능이론에서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성공지능이론은 분석적 능력을 중심으로 지능의 개념을 폭넓게 확장 시켜 교육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학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암묵적 이론과 성공지능이론 두 이론 모두 능력의 가변성에 초점을 둔 지능연구로 본 연구는 Sternberg의 성공지능이론을 토대로 하되 암묵적 이론에서 주장하는 능력의 가변성에 입각한 측정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성공지능, 암묵적 이론과 성공지능의 특성을 분석한 문헌 연구는 <표 1-5>와 같다. 이러한 문헌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과 전문가 회의를 거친 후 심층면담 질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표 1-5. 성공지능 및 암묵적 이론 문헌연구 검토내용

대상문헌	연구대상	구성개념
이나영(2021)	리듬체조 선수	분석지능(특성분석, 지식학습, 평가)/ 실천지능(적응, 선택, 조성)/창의지능(잠재력, 유용성, 창조)
김명섭, 황혜영, 장유진 (2020)	대학생	의지력 제한 신념/ 의지력 비제한 신념
여상인(2020)	초등 영재 교사	수업분위기/ 수업운영/ 수업내용/ 평가내용/ 평가방법
윤영길(2015)	축구	환경이나 상황을 객관적 분석
신명진(2014)	운동선수	상황판단능력/ 상황대처능력/ 대인관계능력
강지훈, 윤영길(2013)	운동선수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아이디어 분석 및 평가
백순근, 임현수(2006)	교사	교과지도 및 생활지도를 통한 교사와 학생관의 관계/ 행정적, 사무적 업무와 관련한 교사와 학교 경영진과의 관계
하대현(2005, 2009)	문헌연구	유용한 선택/ 분석 및 평가/ 문제의 본질 정의/ 문제해결
문용린, 강민수(2004)	학생 (초,중,고)	문제해결, 비교/ 새로운 지식을 학습/ 정보처리 과정
김명소, 김혜원(2001)	대학생	대인관계/ 자기관리/ 창의력 및 상황판단 능력/ 실제문제해결능력
권준모(2001)	문헌연구	명시적/암묵적 태도이론과 측정방법
Ian J. Deary, Robert J. Sternberg(2021)	문헌연구	이안 데어리 와 스텐버그의 지능의 차이
Weekley & Ployhart(2005)	대학생	상황대처/자기관리능력/대인적응능력/지식 획득 및 활용능력
Woong Lim, Jonathan A. Plucker, Kyuhye Im,(2002)	대학생 및 일반인	사회적 능력/ 문제해결능력/ 상황대처/ 실무능력/ 자기관리능력/ 기억력
Steven E. Stemler, Elena L. Grigorenko, Linda Jarvin, Robert J. Strnberg(2006)	대학 입시 평가원	인지이론을 교육평가에 접목
Martin, Keiko Bostwick, Collie, & Tarbetsky(2017)	학생	암묵적 이론, 학습동기, 참여, 행동
Diener & Dweck, (1978, 1980)	초등학교	실패에 대한 관점/ 실패 대처능력

나. 2단계 심층면담

심층면담에서는 내용분석 질문지를 작성하기 위한 예비조사의 차원에서 신명진(2014)이 면담을 통해 제작한 청소년 운동선수 실천지능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집단 심층면접(FGI-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선행연구된 신명진(2014)이 제시한 스포츠 수행 중 경험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이 개인종목(골프), 단체종목(야구)에서 운동선수로 있는 학생들이 운동 중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인지와 다른 종목의 운동선수들에게도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질문 문항을 일부 발췌하여 심층면담의 질문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심층면담은 2020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운동선수(골프, 야구) 8명과 코치 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면담 질문의 예는 아래의 내용과 같으며 신명진(2014)의 선행연구에서의 면담 내용은 앞에서 제시한 <표 1-1>의 내용과 <표 1-6>과 같다.

Q 1. 귀하가 평소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경험해 본 ‘스포츠 상황에서의 갈등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요?

갈등상황 응답: _____

Q 2. 귀하는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경험해 본 ‘스포츠 상황에서의 갈등상황’들에 어떠한 대처 방법을 선택했었나요?

갈등상황 대처응답: _____

Q 3. 귀하가 평소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느낀 적이 있다면 어떤 상황일 때 느끼게 되었나요?

마음가짐응답: _____

표 1-6. 선행연구 신명진(2014)의 생활실천지능 측정을 위한 면담질문(신명진, 2014 인용)

면담질문: 운동선수 생활실천지능 측정을 위한 구체적 갈등상황은 무엇인가요?

1. 운동선수 시절 심하게 다룬 경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2. 운동선수 시절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을 준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3. 운동선수 시절 시기/질투한 경우나 짜증 난 경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4. 운동선수 시절 가장 위기의 순간은 무엇이고, 어떤 상황이었나요?
5. 운동선수 시절 이런 상황에서는 “정답이 없다”라고 느낀 경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6. 운동선수 시절 가장 고민되었던 경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7. 운동선수 시절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었나요?
8. 운동선수 시절 동안 중요한 선택의 순간(팀 선택, 포지션 선택, 종목 선택 등)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9. 운동선수 시절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변화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언제이고 무엇인가요?
10. 운동선수 시절 시합 전.중.후에서 심하게 다룬 경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11. 운동선수 시절 시합 전.중.후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을 준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2. 운동선수 시절 시기/질투한 경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13. 운동선수 시절 시합 전.중.후 짜증 난 경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14. 운동선수 시절 시합 전.중.후 이런 상황에서는 “정답이 없다”라고 느낀 경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5. 운동선수 시절 시합 전.중.후에서 고민되었던 경우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6. 운동선수 시절 시합 전.중.후에서 많은 고민을했던 선택의 순간(팀 선택, 포지션 선택, 종목 선택 등)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다. 3단계 개방형 조사

개방형 조사는 국내의 스포츠 상황에서 새롭고 독특한 문항이 있거나 선행연구에서 반영하지 못한 개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청소년 운동선수 생활실천지능(2014) 선행연구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회의를 거친 후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겪을 수 있는 스포츠 상황에 따른 마음가짐 내용분석 질문 문항(6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이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스포츠심리학 교수 1인, 박사1인, 박사과정 3인과 대학생 2인의 소집단 회의를 통해 문항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평가하였으며, 내용분석을 위한 예비문항 선정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스포츠 상황을 제시한 후 그에 따른 마음가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도록 제시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사회과학 조사 방법 중 하나로, 본 연구에 사용된 개방형 질문은 Sternberg(1986)의 상황판단검사(SJT: Situational Judgment Test)도구를 스포츠 상황에 맞게 변안한 신명진(2014)의 청소년 운동선수 실천지능 측정 도구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Sternberg(1986)의 상황판단검사 도구는 업무 수행과정에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갈등 상황을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전략을 고르거나 각 대처전략에 평점 하는 방법 등으로 되어있다. Sternberg의 상황판단검사 도구를 적용한 신명진(2014)의 청소년 운동선수 실천지능 측정 도구는 면담을 통해 도출한 15개의 갈등 상황(상황대처 능력, 상황판단 능력, 대인관계 능력)을 제시한 지시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황 2의 예시문과 상황 3의 예시문에 일부 포함되었다. 신명진(2014)의 측정 도구에서 응답 형태는 7점 리커트(1점: 가장 나쁨 ~ 7점: 가장 좋음)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개방형 질문은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필요한 마음가짐을 탐색하고자 상황에 따른 마음가짐의 설명과 함께 6가지의 상황예시문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운동 기술을 연습해 가는 과정이나 체력훈련 시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떠한 마음가짐이 드는지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보십시오”, “대학진학 및 실업팀에 입단 등 앞으로 진로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명문 대학을 선택할 만큼 내 실력이 부족하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을 적어보십시오”의 질문에 각각 3개씩 기재하도록 요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7>과 같다.

개방형 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20년 9월 제주도 및 경상북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운동선수 및 체육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절차 과정은 해당 학교 교수 및 지도자에게 사전 협조를 구한 후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자가 해당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지에 응답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마음가짐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며, 평소 자신이 경험한 스포

츠 상황들을 떠올리며 이때 필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일지 느껴지는 생각들을 질문 내용에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질문지는 즉시 회수하였으며, 질문지에 걸린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표 1-7. 스포츠 상황에 따른 마음가짐 내용 분석 문항

문항 수	문항내용
1	“새로운 운동 기술을 연습해 가는 과정이나, 체력훈련 시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	대학진학 또는 실업팀에 입단 등 앞으로 진로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팀 성적도 좋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명문 대학이지만 내가 갈 수 있는 실력(기량)이 부족하다”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마음가짐은?
3	“평소 수행력을 높이기 위해 나만의 스타일에 맞는 운동 방법이 있는데, 감독님(지도자)은 오히려 잘못됐다고 편찬을 주며 감독님 스타일에 맞추기를 고수한다”이러한 상황일 때 드는 마음가짐은?
4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변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
5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갖춰야 할 능력(조건)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6	“나는 나의 운동수행 향상을 위해 일상에서_____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 4단계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요인 및 세부 문항의 정제와 평가단계로 설정하여 2단계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귀납시킨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 3개의 상황예시에 따른 질문 문항(71문항)을 구성하였다. 사전조사 문항들은 스포츠 상황에 따른 마음가짐 요인을 분류하기 위한 문항으로, 스포츠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고 상이한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문항분석과 신뢰도 검정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8>은 스포츠 상황에 따른 실천가능척도의 하위요인 분류를 위한 예비 질문 문항이다. 조사된 71문항에 대해 불필요하게 구성된 요인의 문항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문항의 의미를 알기 쉽고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추출하는 정제 및 평가단계를 진행하였다. 추출된 문항을 토대로 2차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견 수렴 후 본 조사 45문항을 선별하였다.

표 1-8. 스포츠 상황에 따른 실천가능 하위요인별 예비문항

요인명	문항내용
적용	“새로운 운동 기술을 연습해 가는 과정이나, 체력훈련 시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
예시문	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 상황일 때 느껴지는 마음가짐은?
상황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실력 향상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2.실력향상을 위해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3.열심히 해야 더 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4.힘든 순간 한번만 더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5.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6.계속 도전하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7.훈련이 끝났을 때의 뿌듯함을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을 갖는다. 8.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 9.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10.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11.나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참고 훈련에 집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12.지금 포기하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각오를 갖는다. 13.힘든 순간을 참고 견뎌야 시합에서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정신력을 갖는다. 14.새로운 동작을 연습한 부분이 시합에서 성공적이었을 때를 생각하며 자신감을 갖는다. 15.운동을 포기한 뒤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집중한다. 16.이 훈련이 끝나면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버틴다. 17.성공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18.죽기 살기로 덤벼보자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19.후회했던 상황을 생각하며 다시 몰입한다. 20.힘든 것은 잠시다 조금만더 힘내자 라는 마음을 가진다. 21.잘하는 친구를 보며 자극을 받는다.

	<p>22.내가 운동을 시작한 이유를 생각한다.</p> <p>23.라이벌을 생각하며 꼭 이기겠다는 마음을 갖는다.</p> <p>24.체력훈련을 통해 매일 실력이 늘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p> <p>25.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p> <p>26.힘든 것은 당연하므로 즐기려는 마음을 갖는다.</p> <p>27.메달을 딸 수 있다는 상상을 하며 힘을 낸다.</p> <p>28.나는 내 능력을 믿는다.</p> <p>29.나는 규칙적으로 훈련한다.</p> <p>30.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p> <p>31.충분한 휴식을 갖는다.</p> <p>32.꾸준히 자기관리를 한다.</p> <p>33.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정한다.</p>
선택 예시문	<p>대학진학 또는 실업팀에 입단 등 앞으로 진로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팀 성적도 좋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명문 대학이지만 내가 갈 수 있는 실력(기량)이 부족하다” 이러한 진로를 위한 나의 행동은?</p>
상황2	<p>34.꾸준한 자기관리를 한다.</p> <p>35.평소 부지런함을 실천한다.</p> <p>36.운동 장비를 잘 점검한다.</p> <p>37.평소 훈련루틴을 만들어 실천한다.</p> <p>38.악착같이 노력한다.</p> <p>39.훈련에 집중하며 개인 훈련을 더 강화 한다.</p> <p>40.나 자신의 실력을 믿고 도전하는 자세를 갖는다.</p> <p>41.그 팀을 목표로 정하여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p> <p>42.실수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치려는 마음을 갖는다.</p> <p>43.굳이 유명한 대학이 아니어도 나의 실력에 맞춰서 지원한다.</p> <p>44.부족한 부분을 더 연습한다.</p> <p>45.평소 체력훈련으로 몸 만들어 놓는다.</p> <p>46.자신의 실력을 믿고 자신감을 갖는다.</p> <p>47.그 팀을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p>
대처 예시문1	<p>“평소 수행력을 높이기 위해 나만의 스타일에 맞는 운동 방법이 있는데, 감독님(지도자)은 감독님 스타일에 맞추기를 고수한다” 이러한 훈련 상황일 때의 대처 방법은?</p>
대처 예시문2	<p>“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동료와의 관계는 도움이 된다. 아니면 방해가 된다.” 이러한 훈련 상황일 때의 대처 방법은?</p>
상황3	<p>48.감독님을 믿고 감독님 훈련방식에 따른다.</p> <p>49.감독님 스타일과 자기 스타일을 병행 해보고 어느 것이 좋은지 선택한다.</p> <p>50.감독님 스타일로 연습하다 안되면 상의(대화)한다.</p> <p>51.감독님 말을 따르고 개인운동을 더한다.</p> <p>52.나만의 운동스타일로 한다.</p> <p>53.훈련 방법에 대해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54.감독님과 훈련방법에 대해 충분히 의사소통한다.</p> <p>55.나의 부족한 부분과 감독님 스타일을 더해서 실력을 기른다.</p> <p>56.감독님을 믿고 서로 완충하려는 마음을 갖는다.</p> <p>57.열심히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p> <p>58.선배가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 선배이므로 참고 다 들어준다.</p> <p>59.팀원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일 때 함께 동참한다.</p>

- | |
|--|
| 60. 팀원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일 때 나만 불이익을 면한다면 집단 따돌림을 당할 것 같아 단체행동에 동참한다.
61. 선후배 및 동료선수들과 다툼이 생기면 그 자리를 피한다.
62. 선후배 및 동료선수들과 시합이 끝난 후 부족한 것에 대해 종종 이야기 나눈다.
63. 팀 동료들의 감정에 공감을 잘한다.
64. 새로운 동작 연습 시 선배 및 동료선수의 도움을 잘 받아들인다.
65. 선후배 및 동료선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66. 선후배 및 동료선수와의 관계는 성적에 영향을 끼친다.
67. 선후배 및 동료선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68. 선후배 및 동료선수와의 논쟁이 발생되면 잘 설득할 수 있다.
69. 선후배 및 동료선수와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한다.
70. 선후배 및 동료선수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71. 선후배 및 동료선수와의 관계에서 감정조절을 잘 하려고 노력한다. |
|--|

마. 5단계 본조사

다섯 번째 단계인 본조사는 고등학교 및 대학 운동선수 300명의 자료를 토대로 하위영역별 탐색적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들을 제외한 다음, 신뢰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청소년 운동선수 생활실천지능(신명진, 2014)의 구성요인을 최대한 적용한 문항을 제작하고자 하였고, 운동선수들이 성장하려는 특성과 노력하는 태도의 내용을 포함한 문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생활실천지능의 구성요인은 상황대처 능력, 상황판단 능력, 대인관계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암묵적 이론에 기반을 둔 마음가짐은 주변 환경에 관해 학습, 노력, 도전, 평가를 포함하는 상황을 해석하는데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의미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Hong, Chiu, Lin & Wan, 1999). 이러한 의미체계는 성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 방향과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Dweck, 1991, 2000)한다. 이에 마음가짐 내용과 자기이론(Self-theory)에 대한 정보와 식견이 높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문항 검토와 수정과정을 거친 뒤 실천지능 3요인(실천행동능력 8, 자기관리능력 8, 대인관계능력 7), 총 23문항으로 최종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예비문항과 비교했을 때 문항이 보다 간결하면서도 이해가 쉽도록 수정하였으며, 스포츠 상황에 따른 실천지능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과 함께 각 구인들을 측정하는 척도로 구성하였다. <표 1-9>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스포츠상황에 따른 실천지능의 문항들을 제시한 결과이다.

표 1-9. 스포츠 상황에 따른 실천지능 하위요인별 최종문항 선별

요인명	문항내용
실천행동 능력	2.나는 힘든 순간 ‘한 번만 더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3.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4.나는 계속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5.나는 훈련이 끝났을 때의 뿌듯함을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6.나는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11.나는 죽기 살기로 덤벼보자는 마음을 갖고 있다. 12.나는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15.운동이 힘든 게 당연하기 때문에 즐겨보자는 마음을 갖는다.
자기관리 능력	17.나는 꾸준히 자기관리를 한다. 19.나는 운동 장비를 잘 점검한다. 20.나만의 훈련 루틴(계획)을 만들어 실천한다. 21.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한다. 22.나는 시합에 대비하여 개인 훈련을 더 강화한다. 25.나는 시합에 대비하여 부족한 기술 동작을 더 연습한다. 26.나는 시합에 대비하여 체력훈련으로 몸을 만든다. 27.나의 운동실력을 분석해본다.
대인관계 능력	37.나는 동료선수들과 잘 공감한다. 39.나는 동료선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41.나는 동료선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42.나는 동료선수와의 논쟁 발생 시 상대를 잘 설득할 수 있다. 43.나는 동료선수와 의견이 다를 때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한다. 44.나는 동료선수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45.나는 동료선수와의 관계에서 감정조절을 잘 하려고 노력한다.

바. 자료분석

자료 분석(data analysis)은 최종 질문지 제작을 위하여 2단계와 3단계, 4단계의 결과를 토대로 스포츠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고, 상이한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문항 분석과 신뢰도 검정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타당성검증(validity measures)은 연구 2에서 진행하였다.

3. 자료처리

연구 1의 자료처리는 수집된 폐쇄형 자료로 SPSS 18.0과 Amos 18.0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국내의 스포츠 상황에 따른 마음가짐에 대한 독특한 문항이 출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질문지를 귀납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첨도 및 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값을 산출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선행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1) 개방형 설문조사

스포츠 상황에 따른 마음가짐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스포츠 상황을 제시한 질문에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운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는 유사한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나 문장을 하나의 공통요인으로 분류하는 귀납적 내용분석에 의해 분류되었다. 귀납적 방식에 의해 분류되는 범주와 자료들은 자료를 간결하게 축약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학과 심리학 영역 등 사회과학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이다(김덕진, 2010). 주제를 범주화함에 있어 자료의 내적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분류방식을 참고하였으며, 소집단 회의를 통해 내용을 분류하였고, 애매한 내용은 의견일치를 보일 때까지 논의하는 다각적 검증(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0건의 원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300건의 원자료는 11개의 1차 세부영역으로 범주화되었고 이 자료들은 다시 끈기, 유능성 믿음, 태도, 노력, 도전 5개의 2차 일반영역에서 1개의 주제영역으로 분류과정을 거쳐 구체적 내용으로 범주화하였다. <표 1-10, 11, 12, 13, 14>는 개방형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로 귀납적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문항으로 귀납시킨 내용이다.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귀납시킨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 6개의 상황에서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6개의 상황에서 질문은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스포츠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암묵적 이론에서 제안하는 마음가짐의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외재적 환경 조건에 따른 구체적 질문 1번 문항 ‘스포츠 훈련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 습득 시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상황’, 2번 문항의 ‘진로 선택의 상황에서 자신의 실력이 부족 할 때’와 5번 문항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등의 상황질문에(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 노력하는 마음가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려는 마음, 도전, 목표, 수용, 끈기, 자신감 등) 구체적 성장마음가짐과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질문 문항 3번 수행 방법 과정에 감독님 성향과 자신의 성향에서 적절한 대응전략

을 보기 위한 질문에(감독님과 대화, 감독님 스타일의 연습 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더 연습한다, 감독님의 피드백을 받고 어떻게 더 효과적인지 고민해 본다)라고 성장마음가짐의 유형에 관한 응답유형으로 나타났다. 상황 4번 스포츠 경기상황에서 경기결과에 관해 선수 자신이 보이는 태도에서는 (상황을 피한다. 물어보지 않았음 좋겠다. 아무 말하기 싫다. 무시한다)회피와 같은 응답과 (상대 선수가 강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등의 고정 마음가짐에 대한 응답유형을 보였다.

표 1-10. 상황 1-적응 요인의 내용분석 결과

상황1[적응]		
“새로운 운동 기술을 연습해 가는 과정이나, 체력훈련 시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느껴지는 마음가짐은?		
면담 내용	하위범주	상위범주
돌덩이 같은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목표를 생각하며 열심히 연습한다는 마음가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 지금 포기하면 더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이걸 견뎌야 강해진다, 후회했던 상황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잡기, 조금만 더 연습하면 잘 될 것이다. 부모님을 생각한다, 그 상황에 집중한다, 체력훈련을 통해 매일 실력이 늘고 있다는 마음가짐.	강인한의지 운동능력	실천행동능력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과정이다, 힘든 때 더 힘내야 시합에서 이길 수 있다, 더 열심히해야 잘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 동작을 시합 때 쓸 수 있는지 생각한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후회했던 상황을 생각해본다, 배움에 감사, 이미지트레이닝, 내가 운동을 시작한 이유를 떠올린다.	유능성믿음	
이번만 참고 더 견디자, 한 번만 더 참아보자, 끈기, 정신력, 각오, 인내, 강, 노력한 만큼 돌아온다, 극복하는 정신력, 될 때까지 한다	끈기, 인내	
메달을 따겠다는 마음가짐, 미래를 생각하며 힘을 낸다, 입상, 라이벌을 떠올리며 이기겠다는 마음을 갖는다,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꿈을 이루자, 이 고비만 넘기면 메달을 딸 수 있다.	포부	

표 1-11. 상황 2-선택 요인의 내용분석 결과

상황2[선택]		
대학진학 또는 실업팀에 입단 등 앞으로 진로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팀 성적도 좋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명문 대학이지만 내가 갈 수 있는 실력(기량)이 부족하다” 이러한 진로극복을 위한 마음가짐은?		
면담 내용	하위범주	상위범주
휴식한다, 보조운동, 연습한다, 꼭 지킬 수 있는 훈련루틴, 이미지 트레이닝한다, 관리한다, 생활 습관을 바꾼다, 잘 먹는다,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한다, 하루쉬면 내가알고 이틀쉬면 상대가 안다, 개인훈련, 집중한다, 다치지 않는다, 실천한다, 목표를 실천한다, 꾸준한 자기관리를 한다, 잠을 잔다, 학업에 신경쓴다, 반복훈련, 운동장비 점검, 멘탈을 기른다,	실천행동 자기관리	자기관리능력
그 학교를 목표로 노력한다, 그 팀을 이길 수 있도록 한다, 오늘 할 일 미루지 말자, 노력한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자신감을 기른다, 진심을 다해 노력한다, 끝까지 노력한다, 의지력을 기른다, 마음의 휴식을 갖는다, 포기하지 말자, 마음가짐, 믿음, 자신감, 긍정적 생각, 강인한 정신력, 끈기를 갖는다, 습관, 재미, 흥미.	목표설정 끈기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인다, 인성을 갖춘다, 예의 갖춘다, 겸손한다, 주의환경(코치, 친구, 학교생활)을 살핀다, 기도한다, 바른태도	인성	

표 1-12. 상황 3-조성 요인의 내용분석 결과

상황3[조성]		
“평소 수행력을 높이기 위해 나만의 스타일에 맞는 운동 방법이 있는데, 감독님(지도자)은 감독님 스타일에 맞추기를 고수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마음가짐은?		
면담 내용	하위범주	상위범주
감독님을 믿고 존중하는 마음가짐, 감독님 방식에 따른다, 감독님 의견을 수용하며 나를 바꾼다, 존중한다, 지도자의 말을 경청한다, 이해한다, 감독님에게 맞춘다, 지도자의 방식대로 해본다, 감독님을 믿는다, 적응한다, 감독님 말을 인정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감독님 스타일에 맞춘다, 받아들인다, 믿고 서로 완충하려 한다, 감독님은 나의 단점을 알고 있는 분이다, 무조건 따라야 한다, 감독님의 피드백을 듣고 연습한다.	긍정적 수용 믿음 상황대처	관계적 능력
지도자 방법과 나의 방법을 연습해보고 선택한다, 개인 연습을 더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 따르다 안되면 내 방식으로 한다, 개인 운동을 틈틈이 한다, 감독님과 대화 한다, 감독님과 상의한다, 네 스타일도 추가한다, 서로 맞춰본다, 감독님 스타일과 다른 스타일 연습한 후 내 것으로 만든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로 한다, 감독님 말 따르고 개인 운동 더한다.	선택적 대응 관계풀기	
적당히 듣는다, 싫다고 말한다, 내 맘대로 한다, 혼자 운동하고 싶다, 자유롭게 한다, 친구들과 상의한다, 운동은 혼자 하는 것이 힘들다, 혼자 생각해 방법을 찾는다, 네 스타일을 고수한다, 개인적 의견제시, 고집부린다, 어떤게 나한테 효과적인지 확인한다.	개인 추구 자기 인식 동료	

표 1-13. 상황 (4, 5, 6)에 따른 마음가짐 내용분석 결과

상황4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변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		
면담 내용	하위범주	상위범주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 노력한 과정이 중요하다, 기회는 언젠가 다시 온다, 더 열심히 하겠다, 오늘만이 아니므로 실망하지 않는다, 안 물어보면 좋겠다, 몸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상황을 피한다,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딱히 아무말 하기 싫다, 상대팀이 강했다, 무시한다, 부상으로 인해, 더 강한 팀을 만났다, 연습량을 늘리겠다. 애들이 잘한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하게 돼서 본 경기에 집중을 못 했다. 상대가 준비를 잘해와서 진 것 같다.	노력, 자세 -성장 상황회피 핑계-고정	마음가짐
상황5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갖춰야 할 능력(조건)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면담내용	하위범주	상위범주
마음가짐, 인내, 자신감, 노력, 끈기, 열정, 재능, 신체, 자기관리, 신체능력, 책임감, 의지력, 성실함, 겸손, 재능, 정신력, 힘, 기술, 민첩성, 부모재력, 동기부여, 코치, 신체조건, 예의, 운동 센스, 윤리, 도전정신, 승부근성, 보는 눈, 멘탈, 집중력, 하고자 하는 마음, 협동심, 굳은 다짐,	태도 자기조절	운동능력
상황6		
“나는 나의 운동수행 향상을 위해 일상에서_____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면담 내용	하위범주	상위범주
생활습관, 휴식, 정신력, 운동을 열심히 하자, 자유, 꾸준함, 관심, 절제, 의지력, 자신감, 노력, 마음가짐, 믿음, 겸손, 개인 훈련, 습관, 학업, 이미지 트레이닝, 예의, 실천, 목표를 실천, 꾸준한 자기관리, 집중력, 강인한 체력, 끈기, 동료선수, 코치와의 관계, 재활, 영양 보충	태도 노력 실천 대인관계	자기관리

2) 사전조사

(1) 문항추출 및 문항분석

예비 질문지(총 71문항)의 문항들이 국내의 스포츠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문항 분석에서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 제거 시 알파 값의 증가, 문항-척도 상관계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탈락될 문항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균이 2.50 이하이거나 6.00 이상이며 표준편차가 1이하이거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절대값이 ± 2 이상인 문항 그리고 문항-전체 상관계수가 .30 이하인 문항을 탈락의 기준으로 삼았다. 3개 범주의 45문항을 토대로 전문가 협의를 통하여 요인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단어를 수정 및 간결하게 보완과정을 거쳤다. 모든 문항의 평균이 3점 이상이어서 45문항을 사전조사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추출된 45문항에 대한 청소년 운동선수 300부의 자료를 토대로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과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합도 값을 점검한 결과(KMO 측도=.952, Bartlett의 구형성 점검, Approximate $\chi^2=10034.428$, $df=99$, $p<.000$)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절한 문항임을 확인하였다. 3개의 요인 수를 지정한 설명분산은 52.34%로 요인 구성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14.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계수(n=300)

측정변인	A	B	C	M	SD	왜도	첨도
상황1-실천행동(A)	1.000			3.87	.72	-.33	-.28
상황2-자기관리(B)	.697**	1.000		3.76	.70	-.27	-.14
상황3-대인관계(C)	.580**	.594**	1.000	3.86	.65	-.25	-.47

* $p<.05$, ** $p<.01$

(2)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은 각각의 요인들에 대해 먼저 요인분석을 한 후 선행연구(신명진, 2014; Sternberg & Wagner, 1993)를 토대로 요인 수를 3개로 지정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스포츠실천지능 척도의 구성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300부의 자료로 상황 1, 상황 2, 상황 3요인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축요인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법과 직접 오블리민(Oblimin) 사각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한 문항선별은 공통분(communality), 요인적재치, 여러 요인에 중복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공통분인 경우 1에 가까우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의심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낮으면 변인들 간 선형 조합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통분이 지나치게 높거나 .40 이하로 낮은 경우는 삭제하였고, 요인의 적재치가 .50 이상이면서 다른 문항들과 중복 여부를 고려하여 요인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황1- 실천행동능력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KMO 측도=.948, Bartlett의 구형성 점검, Approximate $\chi^2=3159.308$, $df=120$, $p<.00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황2-자기관리능력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KMO 측도=.931, Bartlett의 구형성 점검, Approximate $\chi^2=2255.211$, $df=78$, $p<.000$)로 나타났으며<표 1-16참조>, 마지막으로 상황3-대인관계능력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KMO 측도=.921, Bartlett의 구형성 점검, Approximate $\chi^2=3233.189$, $df=36$, $p<.001$)<표 1-17참조>.

표 1-15. 상황1-실천행동능력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문항내용	요인 실천	공 통 성	M	SD	α	
4.나는 계속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756	.683	3.93	.856	.95	
3.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799	.626	3.83	.899		
7.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는 신념을 갖고 있다.	.669	.625	4.04	.841		
12.나는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853	.728	3.88	.931		
1.나는 열심히 해야 더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655	.557	4.27	.804		
6.나는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727	.573	4.07	.958		
2.나는 힘든 순간 '한번만 더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725	.575	4.00	.838		
15.운동이 힘든 게 당연하기 때문에 즐겨보자는 마음을 갖는다.	.727	.614	3.77	1.03		
5.나는 훈련이 끝났을 때의 뿌듯함을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715	.518	3.96	.948		
11.나는 죽기 살기로 덤벼보자는 마음을 갖고 있다.	.738	.629	3.72	1.03		
14.나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720	.558	3.88	.993		
16.내 능력을 믿는다.	.752	.544	3.83	1.03		
13.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는다.	.675	.552	3.38	1.17		
10.나는 운동선수로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689	.464	3.43	1.17		
8.나는 새로운 기술이 시합에서 성공했을 때를 생각하며 자신감을 갖는다.	.653	.443	4.09	.924		
9.나는 시합에서 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려 더 집중한다.	.407	.373	3.80	.994		
KMO의 표본적합성 측정=.948,		고유치	8.556	.50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3159.308$,		공통분산%	53.474	3.169		
df=120, $p<.001$		누적분산%	53.474	56.643		

표 1-16. 상황2-자기관리능력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문항내용	요인 관리	공통 성	M	SD	α
24.나는 실수한 부분을 고치기 위한 합리적 방법을 선택한다.	.764	.633	3.86	.877	
25.나는 시합에 대비하여 부족한 기술동작을 더 연습한다.	.763	.596	3.97	.888	
26.나는 시합에 대비하여 체력훈련으로 몸을 만든다.	.760	.577	3.91	.951	
22.나는 시합에 대비하여 개인 훈련을 더 강화한다.	.759	.637	3.58	1.05	
21.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한다.	.751	.570	3.68	.931	
27.나의 운동실력을 분석해본다.	.740	.600	3.78	.971	
19.나는 운동 장비를 잘 점검한다.	.723	.538	3.81	.888	.93
17.나는 꾸준히 자기관리를 한다.	.722	.622	3.82	.943	
20.나만의 훈련 루틴(계획)을 만들어 실천한다.	.706	.543	3.40	1.02	
18.나는 일정시간에 기상 및 개인훈련 등 시간 관리를 잘한다.	.693	.580	3.80	.950	
28.나는 경쟁상대를 이길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운다.	.666	.529	3.73	1.03	
23.나의 운동실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도전한다.	.659	.497	3.74	.957	
29.나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449	.261	3.81	.998	
KMO의 포본적합성 검증=.931	고유치	6.533	.61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2255.211$	공통분산%	50.250	4.739		
$df=78, p<.001$	누적분산%	50.250	54.989		

표 1-17. 상황3-대인관계능력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문항내용	요인 관계	공통 성	M	SD	α	
41.나는 동료선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885	.680	4.21	.800	.93	
43.나는 동료선수와 의견이 다를 때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한다.	.856	.709	4.10	.845		
45.나는 동료선수와의 관계에서 감정조절을 잘 하려고 노력한다.	.825	.653	4.06	.842		
44.나는 동료선수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825	.644	3.92	.884		
39.나는 동료선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812	.672	4.13	.791		
37.나는 동료선수들과 잘 공감한다.	.789	.581	4.04	.874		
42.나는 동료선수와의 논쟁 발생 시 상대를 잘 설득할 수 있다.	.757	.595	4.20	.800		
38.나는 새로운 동작을 연습할 때 동료선수의 조언을 잘 수용한다.	.726	.605	3.94	.924		
36.동료선수들과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676	.566	4.00	.943		
40.동료선수와의 관계는 나의 시합성적에 영향을 미친다.	.422	.206	3.49	1.20		
35.최고의 수행을 위해 지도자를 믿고 잘 따른다.	.398	.475	4.01	.858		
33.지도자와 훈련방법에 대해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125	.733	3.47	1.12		
32.나만의 훈련 방법에 대해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025	.521	3.41	1.06		
30.지도자의 훈련방법으로 연습하다 잘 안되면 상의한다.	.078	.522	3.44	1.11		
34.나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지도자의 지시를 따른다.	.391	.536	3.99	.865		
31.지도자 지시를 따르고 별도의 개인운동을 더한다.	.283	.367	3.65	.978		
KMO의 포본적합성 검증=.921	고유치	7.691	1.37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3233.189$	공통분산%	48.070	8.574			
$df=120, p<.001$	누적분산%	48.070	56.644			

(3) 문항분석 및 신뢰도분석

문항분석은 선행연구(신명진, 2014; Sternberg & Wagner, 1993)를 토대로 요인수를 3개로 지정하고 사전조사에서 제시한 동일한 문항 선별 기준을 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포츠실천지능 척도의 구성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300부의 자료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축요인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법과 직접 오블리민(Oblimin) 사각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한 문항선별은 공통분(communality), 요인적재치, 여러 요인에 중복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총 45문항에 대한 요인을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항-전체 상관계수가 크게 다른 문항과 문항 제거 시 신뢰도가 향상되는 문항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예비조사에서 보다 엄격히 적용하였다. 총 45문항 중 신념 9번, 신념 23번, 신념 28번, 신념 29번, 신념 31번 문항을 제거하여 1차적으로 40문항을 선별하였다. 다음은 5문항이 탈락된 40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분인 경우 1에 가까우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의심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낮으면 변인들 간 선형조합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통분이 지나치게 높거나 .40 이하로 낮은 경우, 요인의 적재치가 .50 이상이며, 다른 문항들과 중복여부를 고려하여 요인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0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공통분이 .40 이하로 낮은 신념 30번, 신념 32번, 신념 33번, 신념 34번, 신념 35번, 신념 36번 문항을 제거한 후 이러한 방식으로 수 차례 요인분석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23문항을 선별하였다.

23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KMO의 표본 적합성지수를 살펴본 결과 적합도 지수는 .949로 나타났으며 문항 간 상관성도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Bartlett의 구형성검증 결과($X^2=4872.184$, $df=253$, $p<.001$)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문가 회의를 거쳐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여 실천지능 3요인 총 23문항을 최종 선택하였으며, 실천행동능력(8문항), 자기관리능력(8문항), 대인관계능력(7문항)에 대한 요인 명을 명명하였다<표 1-18참조>.

최종 선별된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항 간 상관계수와 신뢰도 계수를 살펴본 결과, 문항의 상관계수가 .26 ~ .72의 범위에 분포하였고, 신뢰도 계수도 실천행동능력 .92, 자기관리능력 .91, 대인관계능력 .93으로 나타났다.

표 1-18. 실천지능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도 검증

요인	문항	요인적재치			공통분
		1	2	3	
실천행동능력	12.나는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832	.465	.575	.694
	4.나는 계속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813	.435	.551	.661
	3.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782	.428	.522	.611
	11.나는 죽기 살기로 덤벼보자는 마음을 갖고 있다.	.778	.422	.600	.619
	15.운동이 힘든 게 당연하기 때문에 즐겨보자는 마음을 갖는다.	.761	.428	.584	.590
	2.나는 힘든 순간 '한번만 더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757	.455	.442	.578
	6.나는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740	.481	.476	.557
	5.나는 훈련이 끝났을 때의 뿌듯함을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717	.455	.442	.523
자기관리능력	22.나는 시합에 대비하여 개인 훈련을 더 강화 한다.	.546	.823	.407	.678
	20.나만의 훈련 루틴(계획)이 있다.	.448	.782	.389	.621
	21.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한다.	.608	.765	.443	.604
	26.나는 시합에 대비하여 체력훈련으로 몸을 만든다.	.658	.714	.526	.581
	17.나는 평소 꾸준히 자기관리를 한다.	.559	.714	.440	.524
	19.나는 운동 장비를 잘 점검한다.	.539	.684	.438	.484
	27.나의 운동실력을 분석해본다.	.590	.679	.538	.522
	25.나는 시합에 대비하여 부족한 기술동작을 더 연습한다.	.599	.674	.598	.550
대인관계능력	43.나는 동료선수와 의견이 다를 때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한다.	.494	.472	.882	.780
	44.나는 동료선수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400	.456	.828	.696
	45.나는 동료선수와 관계에서 감정조절을 잘 하려고 노력한다.	.463	.459	.827	.685
	41.나는 동료선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434	.405	.817	.669
	42.나는 동료선수와 의견 발생 시 상대를 잘 설득할 수 있다.	.491	.452	.799	.642
	39.나는 동료선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522	.472	.789	.634
	37.나는 동료선수들과 잘 공감한다.	.460	.353	.706	.602
KMO의 표본적합성 측정=.949		고유치	10.839	2.112	1.06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4872.184		공통분산%	47.127	9.182	4.612
df=253 p<.001		누적분산%	47.127	56.310	60.922
Cronbach's Alpha			.92	.91	.93

3) 본조사(최종문항 개발)

개방형 조사와 사전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23문항의 최종문항을 선정하여 사전조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능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기술통계치, 신뢰도 검정을 통해 요인구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1-19>는 최종 질문지의 기술 통계치(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한 결과이다.

표 1-19. 최종문항의 기술 통계치와 문항-전체 상관계수(n=300)

요인	문항	M	SD	왜도	첨도
실천행동능력	12.나는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3.88	.932	-.557	-.166
	4.나는 계속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3.98	.856	-.484	-.302
	3.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3.83	.899	-.277	-.640
	2.나는 힘든 순간 '한번만 더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4.00	.838	-.515	-.167
	6.나는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4.01	.958	-.799	-.020
	5.나는 훈련이 끝났을 때의 뿌듯함을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3.96	.947	-.626	-.293
	15.운동이 힘든 게 당연하기 때문에 즐겨보자는 마음을 갖는다.	3.77	1.03	-.434	-.517
	11.나는 죽기 살기로 덤벼보자는 마음을 갖고 있다.	3.73	1.03	-.382	-.604
자기관리능력	20.나만의 훈련 루틴(계획)이 있다.	3.40	1.02	-.085	-.600
	22.나는 시합에 대비하여 개인 훈련을 더 강화 한다.	3.58	1.05	-.247	-.744
	17.나는 평소 꾸준히 자기관리를 한다.	3.82	.943	-.268	-.497
	21.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약착같이 노력한다.	3.68	.931	-.307	-.404
	19.나는 운동 장비를 잘 점검한다.	3.81	.888	-.203	-.540
	26.나는 시합에 대비하여 체력훈련으로 몸을 만든다.	3.91	.951	-.547	-.307
	25.나는 시합에 대비하여 부족한 기술동작을 더 연습한다.	3.97	.888	-.611	.094
	27.나의 운동실력을 분석해본다.	3.78	.971	-.444	-.376
대인관계능력	43.나는 동료선수와 의견이 다를 때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한다.	4.07	.845	-.569	-.239
	41.나는 동료선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4.21	.800	-.548	-.767
	44.나는 동료선수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3.92	.884	-.309	-.811
	45.나는 동료선수와 의 관계에서 감정조절을 잘 하려고 노력한다.	4.06	.842	-.581	.011
	37.나는 동료선수들과 잘 공감한다.	4.04	.874	-.676	.232
	39.나는 동료선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4.13	.791	-.596	.020
	42.나는 동료선수와의 논쟁 발생 시 상대를 잘 설득할 수 있다.	3.88	.898	-.299	-.679

4)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요인구조가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형 인정평가와 적합도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해석하였다. 최종 23문항 3요인(실천행동능력, 자기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은 다변량정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고, 구성개념과 변수구성의 최적 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요인구조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에서 X^2 통계량, Q값,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준거로 삼았으며, 상대 적합도 지수에서는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IFI), 비교부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와 비표준화적합지수(Tucker-Lewis Index: CFI)와 비표준화적합지수(Tucker-Lewis Index: TLI, NNFI)를 준거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0에서 1까지 값을 갖고 있는 증분적합지수, 비교부합지수와 비표준적합지수는 .90이상이면 양호하고 1이면 완전히 적합한 모델로 평가하며(김계수, 2007; 오영택, 양명환, 2017재인용), IFI, TLI, CFI 모두 .90이상을 나타낸다. RMSEA는 .05미만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이며, .80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10미만이면 보통적합도(mediocre fit)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표 1-20>은 전체 300명의 표본 자료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표 1-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X^2=546.882$, $df=227$, $p<.001$, $Q=2.409$, $IFI=.933$, $TLI=.925$, $CFI=.933$, $RMSEA=.069$ 로 모든 적합도에서 전체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을 보여 3요인 구조의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표 1-20. 실천지능 척도의 적합도 지수(n=300)

모형	CMIN (df)	p	CMIN (df)	IFI	TLI	CFI	RMSEA (90%CI)
				.90이상	.90이상	.90이상	.80이하
3요인	546.882						
연구모형	(227)	.000	2.409	.933	.925	.933	.069

측정모형에 대한 경로추정치는 <표 1-21>에 제시하였으며, 표준화 추정치는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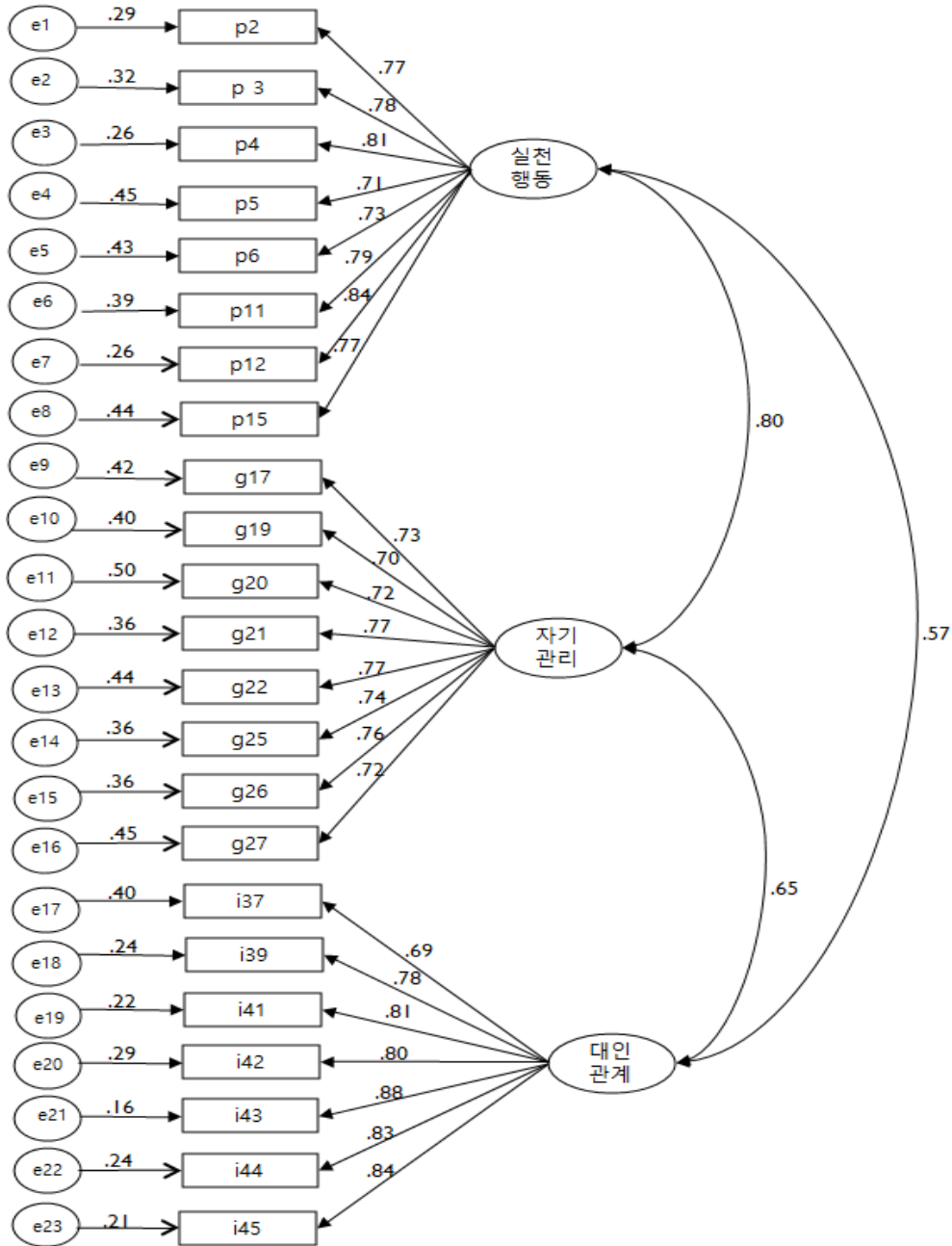


그림 7. 스포츠 상황에 따른 실천지능 확인적 요인분석

표 1-21. 스포츠 상황에 따른 실천지능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추정치	S.E (C.R, P)	표준화 추정치	SMC	AVE	CR	α
p15←실천행동	1.000		.768	.589			
p12←실천행동	.982	.063(15.539***)	.836	.699			
p11←실천행동	1.027	.070(14.580***)	.793	.629			
p6←실천행동	.879	.067(13.164***)	.728	.530	.395	.93	.92
p5←실천행동	.843	.066(12.716***)	.706	.499			
p4←실천행동	.869	.058(14.862***)	.806	.649			
p3←실천행동	.883	.062(14.270***)	.779	.607			
p2←실천행동	.812	.058(14.057***)	.769	.592			
g27←자기관리	1.00		.724	.524			
g26←자기관리	1.048	.080(13.104***)	.775	.601			
g25←자기관리	.930	.075(12.437***)	.737	.543			
g22←자기관리	1.159	.089(13.091***)	.774	.600	.318	.91	.91
g21←자기관리	1.015	.078(12.961***)	.767	.588			
g20←자기관리	1.044	.086(12.089***)	.717	.514			
g19←자기관리	.884	.075(11.815***)	.701	.491			
g17←자기관리	.976	.079(12.287***)	.728	.530			
i45←대인관계	1.00		.838	.703			
i44←대인관계	1.042	.059(17.707***)	.831	.691			
i43←대인관계	1.059	.054(19.607***)	.884	.782			
i42←대인관계	1.020	.061(16.738***)	.802	.643	.554	.95	.93
i41←대인관계	.919	.054(17.027***)	.811	.658			
i39←대인관계	.879	.054(16.170***)	.784	.615			
i37←대인관계	.859	.063(13.564***)	.693	.481			

<표 1-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요인 모형에 대한 모든 문항의 비표준화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요인의 적재치들(C,R)은 1.96Z 값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요인 적재치(C,R)값이 1.96Z 값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이순목, 2000), 이것은 표준화추정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각 요인간에는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노형진, 2008). 또한 표준오차(S.E)도 최소 .054(대인관계 → i39, i41, i43)에서 최대 .089(자기관리 → s22)까지의 범위에 있어 한계치 ±2.5이상의 경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각 문항의 표준화 추정치도 .69에서 .89까지 안정적인 값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와 경로 추정치를 고려할 때, 3요인의 측정모형은 수용할 수 있는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한 구성개념 타당성의 조사를 위해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살펴보았다. 개념 신뢰도는 실천행동능력 .931, 자기관리능력 .914, 대인관계능력 .948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음, 분산추출지수값을 구한 결과 실천행동능력 .395, 자기관리능력 .318, 대인관계능력 .554로 대인관계능력을 제외한 두 요인은 기준 값 .50에 약간 못 미치지만 전체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나 신뢰성과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Fornell & Lacker, 1981). 한편,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 대상이 되는 두 잠재변인의 분산추출지수값을 그 두 잠재변인간의 상관계수 제곱(p^2)과 비교하였다. 즉, 평균분산추출지수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두 요인 사이에서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분산추출(AVE) 값이 상관계수(p)의 제곱값보다 크기 때문에 스포츠실천지능척도에 대한 판별타당성도 확보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22. 구성개념의 상관행렬과 분산추출지수

요인	A	B	C	AVE	C.R
실천행동능력 (A)	1			.395	.931
자기관리능력 (B)	.443(.196)	1		.318	.914
대인관계능력 (C)	.319(.102)	.322(.104)	1	.554	.948

*대각선의 값은 분산추출지수 값을 의미

5. 논의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개인의 일반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측정 방법을 선택한다. 특히 성격, 태도 등과 같은 심리 특성들을 포함한 행동과학 전반에서 가설적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유용한 방법이 척도화(Scaling)이다(장승민, 2015). 사회과학 분야에서 심리 특성과 같은 심리적 변인들을 측정하는 평정척도 중에서 다문항 척도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가 대표적이다. 리커트 척도의 진술문은 사실에 대한 판단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묻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한 응답자의 심리 특성을 측정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측정치를 합산하여 평가 대상자의 태도와 상대적인 강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Gurwitz, 1987). 따라서 연구 1은 상황판단검사방법을 적용하여 개발한 생활실천지능 척도(신명진 2014)에서 제시한 요인구조가 리커트 척도로 개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구성개념 및 요인구조와 동일한가를 살펴본 후, 문항 선별 및 척도 구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타당성 검증을 입증하는 것이다.

연구1의 목적은 암묵적 이론에 기초하여 스포츠 상황에서의 적용 가능한 실천지능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단계로 개방형 조사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통해 스포츠 상황에 따른 마음가짐 구인탐색과 이를 적용한 척도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척도개발의 방법론과 절차를 다룬 문헌들에 근거하여 Churchill(1979) 및 Netemeyer, Bearden & Sharma(2003)의 척도개발 절차와 Spector(1992)의 절차 과정을 참조하여 선행 연구된 오영택, 양명환(2017)의 연구 절차를 준용하였다. Spector(1992)는 Likert의 연구절차를 세분화하여 총 5단계로 구분하였다. 그 첫 단계로는 개념정의(define the construct), 두 번째 단계로 척도설계(design the scale), 세 번째 단계로 예비조사(pilot test), 네 번째 단계로 자료 분석(data analysis),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당성검증(validity measure)의 절차로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오영택, 양명환, 2017). 따라서 연구 1에서의 연구 절차과정은 4단계의 과정을 통해 예비 질문지를 제작하였으며, 마지막 5단계에서 문항분석, 신뢰도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실천지능 3요인(실천행동능력, 자기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총 23문항을 최종 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 및 고등학생은 물론 어린 운동선수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맥락에서 적용 가능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먼저, 1차 개방형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스포츠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갈등 상황에서 마음가짐의 속성을 보다 잘 반영한 개념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 연구된 신명진(2014)의 청소년 운동선수 생활실천지능 척도에서 구성요인을 개념화하기 위한 심층면담은, 운동선수로 성공할 수 있는 요소에 관한 질문을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은퇴선수, 심판, 생활체육지도자, 감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운동선수 성공 요소로 경제적, 물질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명문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선수 성공 요소로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가 집단(운동선수, 지도자)을 구성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개인 성공을 예측하는 요소로 경제적, 물질적 지원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 되지만 반드시 명문 고등학교나 대학이 운동선수로 성공 요소는 아니라는 의견을 수립하였다. 이는 대학에 지원하는 운동선수도 있지만 실업팀에 입단을 목표로 하는 선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적 요소 중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고 운동선수로 성공한 황영조 선수처럼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위한 요소에서 개인의 태도와 신념도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들을 수립하여 개방형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헌조사와 사전 면담을 통하여 구성된 스포츠 상황 지시문에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 내용을 토대로 귀납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운동선수 실천지능과 관련한 연구에서 윤영길(2009)은 연습과 시합에서 선수들의 기량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선수의 실천지능차이로 가정하며, 선수들이 문제 직면 시 기존 환경과 방식에 적응하는 능력이 용이하지 않으면 대안을 모색하고 모색한 대안을 선택하는 능력이 선수의 경기 경험, 확산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상황 1-마음가짐의 질문에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과정”, “지금까지의 훈련 과정을 생각한다”, “그 상황에 집중한다”, “실력 향상을 위해 복합훈련에 집중한다”, “후회했던 상황을 생각하며 다시 몰입”, “목표를 이루었을 때를 상상하며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 등과 같은 응답은 한계를 넘어 과정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의 대처 능력이 확산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결과

라 사료된다. 또한 구체적 마음가짐의 응답 예를 들면, “돌덩이 같은 마음”, ““깡” 등은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는 것으로 선수들 자신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성취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에 의한 대안을 선택한 방법일 것이다. 암묵적 이론에서는 각자의 내면에 내재한 질문과 추론은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 밝혀진다고 보고한다. 특히 Dweck(2000)은 인간의 능력과 관련하여 암묵적 이론에서 제시하는 동기의 발현은 ‘어떠한 행동의 순수한 원인이 무엇인가?’보다는 ‘어떠한 행동의 원인을 무엇이라 지각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유추해 봤을 때 본 연구에서 상황 2-마음가짐 지시문 “진로 극복을 위한 상황”에서 “힘들더라도 부족한 실력을 채우기 위해 연습하기”, “부족하다 여기면 실력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자신의 모든 단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마음가짐” 등의 응답 형태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노력을 중요시하며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마음가짐의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장 마음가짐과 목표 달성 간의 관계를 본 연구들이 수행되면서 성장 마음가짐이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노력에 대한 믿음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대처전략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한다(Yeager & Dweck, 2012).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Dweck (2000, 2008)은 학생들이 학습에 몰입하고, 도전을 마주하고 실패로부터 회복되는 속도도 빠르게 한다는 연구 결과에서처럼, 본 연구 상황 2-마음가짐에서의 응답내용은 성취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습득할 수 있다는 신념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경일수(2018)의 성장지향성 척도 요인 중 과정수행태도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상황 3-마음가짐의 지시문은 훈련 방법과 관련하여 감독님의 지도 스타일과 자신의 운동 방법을 통해 겪을 수 있는 내적 심리 갈등 상황에 관해 제시한 지시문이다. 구체적으로 “평소 수행력을 높이기 위해 나만의 스타일에 맞는 운동 방법이 있는데, 감독님(지도자)은 감독님 스타일에 맞추기를 고수한다”, “감독님 스타일과 나의 스타일 비교”, “자신이 추구하는 방법을 잃지 않는 마음”, “타인에 의해서 운동 방법을 바꾸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따른다”, “동료들과 이야기 나눈다” 등의 응답 반응은 선수 개인의 경기 능력에 관해 감독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자신의 행동계획을 만들고 실천하게 하는 동기적 힘이 작용하였으며, 동료관계와 관련한 응답 형태는 자기 주변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팀의

소속감 혹은 심리적 안녕감을 가질 수 있다는 신념을 평가한 것이라 사료된다. 다만, 상황판단검사기법을 사용한 신명진(2014)의 생활실천지능 연구에서는 운동선수들의 인성요인 중 상대선수 존중, 예의 및 배려, 책임감 3요인에서 부적 관련성을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실천지능은 성공지능의 한 요인으로 일반지능, 인성, 성격, 도덕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써 전통적 관점의 대안적인 실천지능에 입각하였다면 본 연구는, 암묵적 이론에 기초하여 운동선수가 가진 실천능력들을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즉, 신념을 확인해보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선행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신명진의 연구에서 스포츠 환경을 경쟁환경 과 일반환경으로 구분하여 주체, 즉 대상자들이 직면하는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체에 따른 상황을 구분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환경을 통틀어 경쟁환경으로 봤으며 환경과 상황을 반드시 구분하여야 하는 이론적 적절성에 대한 당위성이 없다는 논의에 입각하여 스포츠 경쟁환경과 운동선수로 구분하였다.

이어서 본조사에서 확인된 3요인구조는 생활실천지능(신명진, 2014)의 요인과 동일하게 나타나 본 연구 1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천지능 관련 국내 연구들은 각 분야 고유의 영역특수성을 반영한 모습을 확인하고 밝히기 위하여 직업 영역과 학교 영역에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밝혀내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동희(1998)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천지능의 요인으로 ①자기관리 및 책임감 ②통찰력 및 정보 수집력 ③수용 및 배려 ④대인관계 및 적응력 ⑤사고 및 판단력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김명소와 김혜원(2001)은 대학생의 실천지능 요인으로 ①대인관계 ②자기관리 ③창의력 및 상황판단 능력 ④리더십 및 자기효능감 ⑤현실주의적 성향 ⑥상식 및 정보수집 ⑦자기평가 ⑧실제문제 해결능력 등 8가지 요인을 탐구하고 대학생의 실천지능을 도출하였다. 영역특수성이라는 실천지능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학교생활에서의 성공이 학업성취수준, 친구들과의 대인관계 등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볼 때,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실천행동능력, 자기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은 매우 적절한 운동선수의 실천지능 구성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양수정과 이순목(1999)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암묵적 이론의 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학문지능과 실천지능의 구성개념을 확인한 결과, 대학생들에게 필

요한 실천지능의 구성요인으로 ①자기관리 능력 ②대인관계 능력 ③문제해결 능력 ④사회규범 능력 ⑤창의력 ⑥언어능력 ⑦이해타산적 성향과 지배적 성향 등을 도출하였고, 학문지능의 구성요인으로 ①자기관리능력 ②개인주의적 성향 ③자기효능감 등 학문지능과 실천지능의 대비를 통하여 대인관계능력, 사회규범능력, 성향과 같은 사회적 역량 등을 대학생에게 필요한 실천지능 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암묵적 이론에 기초한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연구 1에서 설정한 구성 요인들은 신뢰할만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척도를 개발함에 있어 요인구조를 탐색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의 측정모형이 적합한지, 또한 이론적으로 관련된 준거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타당도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최종 확정된 23문항의 3요인 구조가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준거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스포츠실천지능척도의 타당도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도구의 안정성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2

1. 문제 제기

1) 연구목적

연구 2의 목적은 연구 1에서 완성된 스포츠 실천지능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장하기 위한 단계로 준거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준거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사회인지 동기 이론가들(Dweck, 1985; Dweck & Leggett, 1988; Deci & Ryan, 1985, Moldern & Dweck, 2006)은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 자체보다는 행동의 원인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행동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Dweck, Walton & Cohen(2014)에 의하면 마음가짐이 자신에 대한 믿음, 학교나 사회적 소속감에서 드는 감정, 그리고 자율규제 능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기 및 행동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인지적 요인으로 자아탄력성, 자기조절동기, 친사회적·반사회적 행동의 변인들과의 관계를 구명함으로써 타당도를 입증하고 시간에 따른 안전성을 살펴보기 위해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 결과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스포츠 실천지능 척도를 고등학교 및 대학 운동 특기생 집단을 대상으로 스포츠 상황에 적용하였을 때, 요인구조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고자 측정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2) 연구모형

연구 2의 측정모형은 <그림 8>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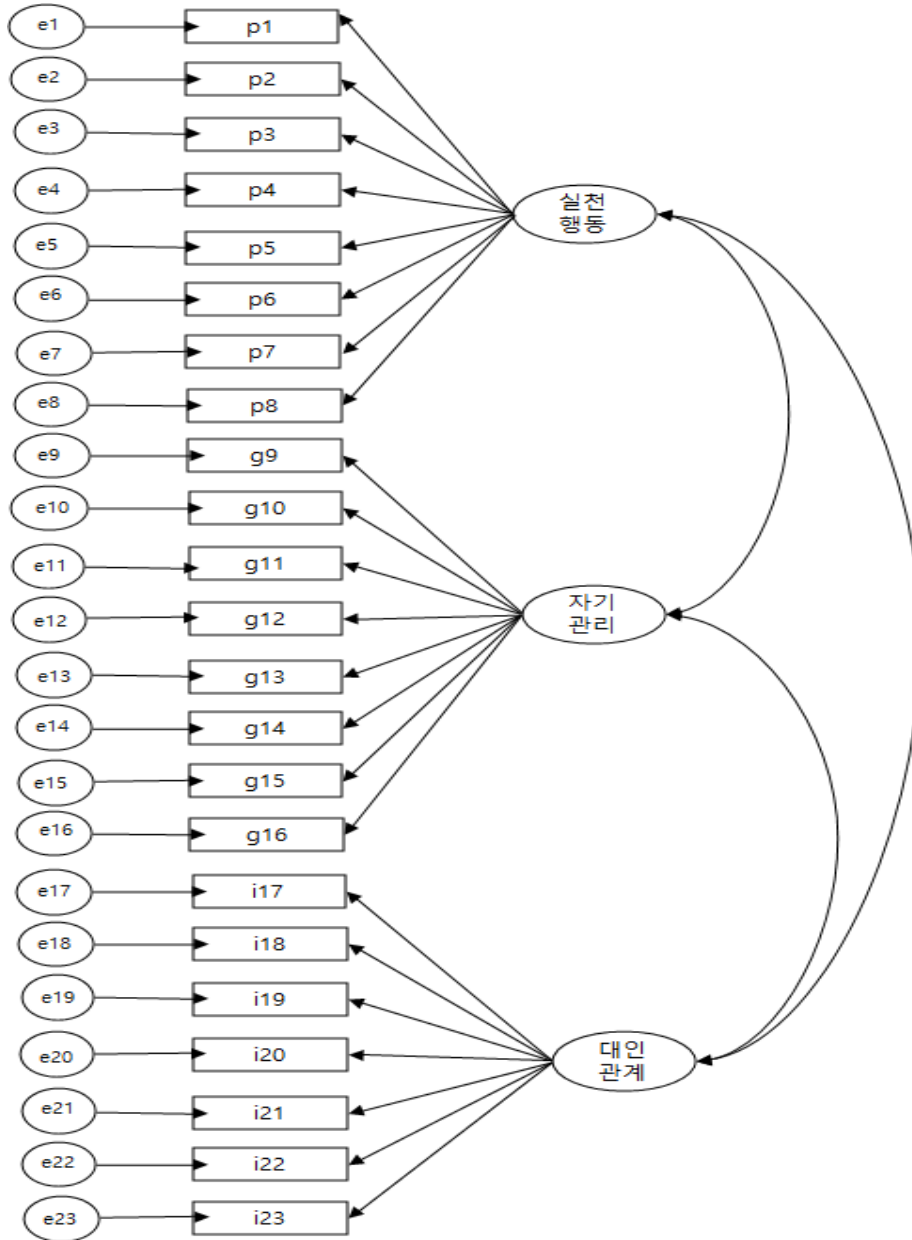


그림 8. 연구 2의 연구모형

3) 연구문제

연구 2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1에서 개발한 스포츠 실천지능척도의 요인구조가 연구2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둘째, 문항합치도에 따른 스포츠 실천지능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셋째, 스포츠 실천지능척도의 준거 관련 타당도는 어떠한가?

넷째, 스포츠 실천신념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2의 대상은 대구 및 충청도에 소재한 체육 전공 고등학생 및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운동 특기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으며, 표집방법은 비확률적 표집방식인 유목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이용하였다. 검사지는 300부가 회수되었으며, 반응고정화 현상을 보이는 응답과 무기입 된 자료 8부를 제외한 292명의 자료만을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 234명(80.1%), 여학생 58명(19.9%)이며, 연령별로는 고등학교 177명(60.6%), 대학교 115명(39.4%)으로 총 29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종목은 개인종목(골프, 검도, 태권도, 유도, 레슬링, 씨름, 수영) 229명(78.4%), 단체종목(축구, 야구) 63명(21.6%)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일반적 특성은 <표 2-1>과 같다.

표 2-1. 인구특성학적 배경변인 (n=292)

성별		교급		학년		운동종목	
남학생	여학생	고등부	대학부	고등부	대학부	개인	단체
234명 (80.1%)	58명 (19.9%)	177명 (60.6%)	115명 (39.4%)	1학년-76명 (42.9%) 2학년-43명 (24.3%) 3학년-58명 (32.8%)	1학년-50명 (43.5%) 2학년-19명 (16.5%) 3학년-32명 (27.8%) 4학년-14명 (12.2%)	229명 (78.4%)	63명 (21.6%)
합계				292명(100%)			

2) 측정도구

연구 2의 질문지는 연구 1에서 개발된 실천지능 척도 23문항과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 6문항,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할 목적으로 자아탄력성(17문항), 자기조절동기(19문항), 스포츠 피슨십(11문항), 반사회적행동(13문항)의 준거변인을 사용하였다. 암묵적 이론에 따르면 심리적 특성인 신념체계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 성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개인의 동기양식, 행동방향, 인지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암묵적 이론과 관련이 있는 자아탄력성, 자기조절동기, 스포츠 피슨십, 반사회적 행동 4개의 변인들을 사용하여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측정도구의 응답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1) 실천지능

실천지능 척도는 연구 1에서 추출된 3개 요인 23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반복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1과 동일한 연구구조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Varimax적교회전방식을 이용하여 고유치가 1이상, 요인적재치가 .05이상, 그리고 공통분(commuanlity)이 .40이상인 문항을 선별하여 요인을 추출한 결과 연구 1과 마찬가지로 3개 요인 26문항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3개 요인의 KMO의 표본 적합성지수는 .958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검증 결과 $X^2=6316.144$, $df=253$, $p<.001$ 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천행동능력의 Cronbach's $\alpha=.95$, 자기관리능력의 Cronbach's $\alpha=.93$, 대인관계능력의 Cronbach's $\alpha=.94$ 로 나타났다.

다음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780.978$, $df=227$, $p<.001$, $Q=3.440$, $IFI=.912$, $TLI=.901$, $CFI=.911$, $RMSEA=.092$ 로 RMSEA값을 제외한 나머지 측정값은 양호하게 나타나 3요인 구조의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실천지능 척도는 각 하위요인별로 평균값을 사용하여 각각 실천행동능력, 자기관리

표 2-2. 실천지능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요인	문항	요인적재치			공통분
		1	2	3	
실천행동능력	4.나는 계속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875			.785
	8.나는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869			.789
	6.나는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869			.758
	5.나는 훈련이 끝났을 때의 뿌듯함을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867			.754
	2.나는 힘든 순간 ‘한번만 더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854			.734
	7.나는 죽기 살기로 덤벼보자는 마음을 갖고 있다.	.846			.750
	3.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824			.687
	9.운동이 힘든 게 당연하기 때문에 즐겨보자는 마음을 갖는다.	.791			.675
	자기관리능력	15.나는 시합에 대비하여 개인 훈련을 더 강화 한다.		.863	
16.나는 시합에 대비하여 부족한 기술동작을 더 연습한다.			.850		.728
14.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한다.			.836		.730
18.나의 운동실력을 분석해본다.			.824		.681
17.나는 시합에 대비하여 체력훈련으로 몸을 만든다.			.814		.667
10.나는 평소 꾸준히 자기관리를 한다.			.791		.627
13.나만의 훈련 루틴(계획)이 있다.			.786		.639
12.나는 운동 장비를 잘 점검한다.		.770		.602	
대인관계능력	25.나는 동료선수와 의견이 다를 때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한다.			.897	.813
	26.나는 동료선수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872	.780
	24.나는 동료선수와 의견의 논쟁 발생 시 상대를 잘 설득할 수 있다.			.863	.762
	27.나는 동료선수와 관계에서 감정조절을 잘 하려고 노력한다.			.862	.752
	23.나는 동료선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854	.774
	22.나는 동료선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828	.720
20.나는 동료선수들과 잘 공감한다.			.760	.617	
KMO의 표본적합성 측정=.958		고유치	13.655	1.925	.99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6316.144		공통분산%	59.371	8.372	4.336
df=253 p<.001		누적분산%	49.371	67.743	72.079
Cronbach's Alph			.95	.93	.94

능력, 대인관계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실천지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Oshio, Nakaya, Kaneko & Nagamine(2003)의 청소년 탄력성 척도(Adolescent Resilience Scale: ARS)를 김덕진(2015)이 번안하고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3요인 17문항으로 감정조절 8문항, 새로움 추구 5문항, 긍정적 미래 성향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요인구조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공통성이 낮은 5문항을 삭제한 후 단일요인을 추출(KMO 측도=.940, Bartlett의 구형성검정 $\chi^2=2369.340$ $df=66$, $p<.001$)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95수준으로 나타났다<표 2-3 참조>.

표 2-3. 자아탄력성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	문항	요인적재치	공통성	
		1		
자아 탄력성	10.나는 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835	.696	
	8.나는 다양한 방면에 흥미나 관심이 있다.	.833	.693	
	14.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830	.689	
	12.나는 새롭고 다양한 것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820	.672	
	9.나는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819	.671	
	1.나는 다양한 경험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819	.660	
	15.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804	.646	
	17.나는 미래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790	.624	
	5.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	.784	.615	
	4.나는 새로운 것이나 독특한 것을 좋아한다.	.757	.573	
	3.나는 미래에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752	.565	
	6.나는 나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744	.554	
	KMO의 표본적합성 측정=.940		고유치	7.66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2369.340		공통분산%	63.831
$df=66$ $p<.001$		누적분산%	63.831	
Cronbach's Alpha			.948	

(3) 자기조절 동기

자기결정성 이론을 토대로 동기적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Mullen & Markland(1997)에 의해서 개발된 15문항 운동행동규제질문지(Behavioral Regulation in Exercise Questionnaire: BREQ)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Wilson & Rodgers(2004)가 재구성한 19문항 운동행동규제질문지-2(Behavioral Regulation in Exercise Questionnaire-2: BREQ-2)로 김영호, 양재근, 이종훈(2007)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내재적 동기(4문항), 확인적 동기(4문항), 외재적 동기(4문항), 내사적 동기(3문항), 무동기(4문항)등의 변인들을 포함하여 5요인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와 확인적 동기를 합하여 자율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라 하였고, 무동기, 외재적 동기와 내사적 동기를 합하여 통제적 동기(controlled motivation)로 분류하여 2개의 요인으로 측정하였다<표 2-4 참조>.

표 2-4. 자기조절동기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	문항	요인적재치		공통분	
		1	2		
통제적 동기	3.왜 운동하려고 애쓰는지 모르겠다.	.897		.880	
	8.다른 사람이 운동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	.887		.803	
	2.내가 왜 운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863		.823	
	4.운동의 좋은 점을 모르겠다.	.853		.794	
	5.나는 다른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한다.	.848		.738	
	7.다른 사람들은 내가 운동을 안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다.	.842		.723	
자율적 동기	6.나의 친구나 가족 또는 선생님이 운동을 하라고 해서 한다.	.817		.694	
	1.운동은 시간 낭비이다.	.762		.610	
	18.나는 운동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902	.830	
	16.나는 운동이 재미있어서 한다.		.879	.800	
	19.나는 운동으로 만족감을 느낀다.		.859	.790	
	17.나는 운동시간을 즐긴다.		.846	.764	
	15.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842	.750	
	14.운동하려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		.769	.611	
	13.나는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		.747	.599	
	KMO의 표본적합성 측정=.905		고유치	5.984	5.25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4047.075		공통분산%	39.893	34.833
	df=105 p<.001		누적분산%	39.893	74.726
	Cronbach's Alpha			.951	.938

요인구조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문항을 제거하여 15문항으로 구성된 2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측도=.905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점검, Approximate $X^2=4047.075$, $df=105$, $p<.001$)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자율적 동기 .95, 통제적 동기 .94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4)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한 김선옥, 양명환(2015)의 스포츠퍼슨십 성향 척도를 사용하였다. 스포츠퍼슨십 성향척도(Multidimensional Sportspersonship Orientation Scale: MSOS)는 Vallerand, Briere, Blanchard & Provencher(1997)가 개발한 다차원 스포츠퍼슨십 성향척도로 5요인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 행동의 5가지 하위차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전념, 규칙과 심판판정 존중, 사회적 관습 존중, 상대방 배려, 승리집착에 따른 부정적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선옥, 양명환(2015)은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1요인 11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김선옥, 양명환(2015)의 선행 연구에서처럼 1요인 11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는 실력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

표 2-5. 친사회적 행동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	문항	요인적재치	공통분
		1	
친사 회적 행동	1.나는 실력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다.	.792	.672
	8.나는 매 시험 결과에 승복한다.	.763	.582
	7.나는 내 자신의 결과나 잘못을 인정한다.	.754	.568
	2.나는 여러 차례 실수 후에도 포기하지 않는다.	.751	.564
	3.나는 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751	.563
	11.나는 심판의 잘못된 판정에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한다.	.722	.522
	6.나는 비록 시험에 졌지만 상대선수를 축하해 준다.	.703	.495
	9.나는 심판 판정에 항의하지 않는다.	.673	.453
	10.나는 판정오류 시에도 심판 의견을 존중한다.	.645	.416
	4.시험 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638	.408
	KMO의 표본적합성 측정=.828	고유치	5.19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1652.694	공통분산%	51.986	
$df=45$ $p<.001$	누적분산%	51.986	
Cronbach's Alpha		.888	

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자료에서 얻은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개 문항을 제거하여 10문항 1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측도=.828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검, Approximate $X^2=1652.694$, $df=45$, $p<.001$)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89로 양호하게 나타났다<표 2-5 참조>.

(5) 반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척도는 Kavussanu와 Boardley(2009)가 개발한 친사회적, 반사회적 스포츠행동 척도(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Sport Scale, PABSS)를 선행 연구한 김선욱, 양명환(2015)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김선욱, 양명환(2015)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는 팀 동료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5문항), 상대 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8문항)을 측정할 수 있으며, 팀 동료에 대한 행동은 특성상 전부 언어적인 것으로 구성하였고, 상대 선수에 대한 행동은 언어적, 신체적인 것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한 김선욱, 양명환(2015)의 반사회적 스포츠행동 문항만을 번안하여 상대 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8문항과 본 연구에 맞게 5문항을 추가하

표 2-6. 반사회적 행동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	문항	요인적재치	공통분
		1	
반사 회적 행동	6.나는 고의로 경기규칙을 어긴 적이 있다.	.864	.746
	11.나는 넘어진 선수를 가격한 적이 있다.	.860	.740
	9.나는 심판 몰래 반칙을 하였다.	.857	.734
	4.나는 신체적으로 상대 선수를 위협하였다.	.854	.730
	5.나는 의도적으로 상대 선수를 괴롭힌 적이 있다.	.850	.722
	2.나는 상대 선수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시도하였다.	.840	.705
	10.나는 상대 선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821	.673
	13.나는 상대방과 코치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나간 적이 있다.	.795	.631
	8.나는 상대 선수를 비난한 적이 있다.	.779	.606
	7.나는 상대 선수가 반칙을 한 후에는 반드시 보복을 한다.	.759	.575
	1.나는 고의로 상대 선수에게 반칙을 한 경험이 있다.	.730	.532
	12.나는 심판판정에 거칠게 항의한 적이 있다.	.728	.530
KMO의 표본적합성 측정=.931		고유치	7.92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2726.996		공통분산%	66.038
$df=66$ $p<.001$		누적분산%	66.038
Cronbach's Alpha			.950

여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는 고의로 상대 선수에게 반칙을 한 경험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없다’(1점)에서 ‘매우 많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자료에서 얻은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반사회적 행동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반사회적 문항 중 1문항이 제거되어 10문항 1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측도= .931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점검, Approximate $X^2=2726.996$, $df=66$, $p<.001$)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95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3. 연구절차

연구 2의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자료 수집은 2곳의 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 및 고등학교 운동선수들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체육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및 운동부 지도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검사지를 배부한 후 응답요령 등의 부차적인 설명과 성실한 응답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전지훈련에 참여한 학교 감독 및 코치에게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질문지 응답에 대한 비밀의 보장과 지도자가 응답한 내용은 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연구윤리에 따라서 응답참여 여부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참가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질문지를 완료하는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지 작성도중 애매한 단어나 이해가 안가는 문항에 대해서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총 300부였으나 50%이상 응답하지 않은 자료와 응답 고정화 현상을 보이는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92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처리

연구 2의 자료처리는 SPSS 18.0과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의 Alpha 값을 산출하였으며, 각 측정 도구의 구성개념의 타당도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Varimax 직교회전방식을 이용하여 고유치가 1이상, 요인적재치가 .05이상, 그리고 공통분(commuanlity)이 .40이상인 문항을 선별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셋째, 내적 일관성을 기준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의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넷째, 선행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으로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델의 적합성 판단기준은 학자들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카이제곱(X^2), 터커-루이스 지수(Turker-Lewis),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값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다섯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가 확인된 요인들은 외적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준거관련 타당도(공인타당도, 예언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타당도의 검증은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여섯째, 시간 차이에 따른 측정도구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4주간의 간격을 두고 2차에 걸쳐 검사/재검사(test-retest)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5. 연구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요인 간의 기존 관계를 확인하고 이 척도의 가설적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3개의 측정변수가 3개의 잠재요인에 부하하고 잔차들간에는 모두 상관이 없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X^2 검증을 기본적으로 평가하지만,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크기와는 비교적 독립적이고 모형의 간명성을 나타내주는 RMSEA, IFI, TLI와 CFI등의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였다. <표 2-7>은 실천지능 척도 3요인의 이론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가설화된 3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RMSEA값을 제외한 나머지 측정값은 기준치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어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X^2= 780.978$, $df= 227$, $p=.001$, $Q=3.440$, $TLI=.901$, $CFI=.911$, $RMSEA=.092$). 측정모형에 대한 경로추정치는 <표 2-8>에 제시하였으며, 표준화추정치는 <그림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2-7. 스포츠실천지능 척도의 적합도 지수(n=292)

모형	CMIN (df)	p	CMIN (df)	IFI	TLI	CFI	RMSEA (90%CI)
3요인	780.978				.90이상	.90이상	.80이하
연구모형	(227)	.000	3.440	.912	.901	.911	.092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요인 모형에 대한 모든 문항의 비표준화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요인의 적재치들(C.R)은 1.96Z값 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요인 적재치(C.R) 값이 1.96Z값 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이순목, 2000), 이것은 표준화추정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각 요인간에는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노형진, 2008). 또한 표준오차(S.E)도 최소 .050(대인관계→ i19, i21)에서 최대 .071(자기관리→ s11)까지의 범위에 있어 한계치 ± 2.5 이상의 경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각 문항의 표준화 추정치도 .71에서 .89까지 안정적인 값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표와 경로 추정치를 고려할 때, 3요인의 측정모형은 수용할 수 있는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표 2-8. 측정모형에 대한 경로 추정치 결과

모형	비표준화 추정치	S.E	CR	p	표준화 추정치	SMC
p8←실천행동	1.000			.000	.797	.635
p7←실천행동	.979	.054	18.190	.000	.891	.794
p6←실천행동	1.031	.060	17.144	.000	.856	.732
p5←실천행동	.860	.053	16.176	.000	.821	.674
p4←실천행동	.886	.054	16.372	.000	.828	.686
p3←실천행동	.969	.054	18.065	.000	.887	.787
p2←실천행동	.925	.058	15.871	.000	.810	.656
p1←실천행동	.872	.054	16.250	.000	.824	.679
g16←자기관리	1.000			.000	.789	.622
g15←자기관리	1.032	.069	14.967	.000	.787	.620
g14←자기관리	1.044	.064	16.414	.000	.844	.712
g13←자기관리	1.083	.064	16.846	.000	.860	.740
g12←자기관리	1.020	.062	16.519	.000	.848	.719
g11←자기관리	1.046	.071	14.685	.000	.776	.602
g10←자기관리	.951	.070	13.668	.000	.733	.538
g9←자기관리	.934	.068	13.721	.000	.736	.541
i23←대인관계	1.000			.000	.840	.706
i22←대인관계	1.059	.056	18.769	.000	.861	.741
i21←대인관계	1.010	.050	20.062	.000	.895	.800
i20←대인관계	1.036	.054	19.126	.000	.871	.758
i19←대인관계	.833	.050	16.801	.000	.805	.648
i18←대인관계	.866	.055	15.723	.000	.771	.594
i17←대인관계	.764	.054	14.202	.000	.719	.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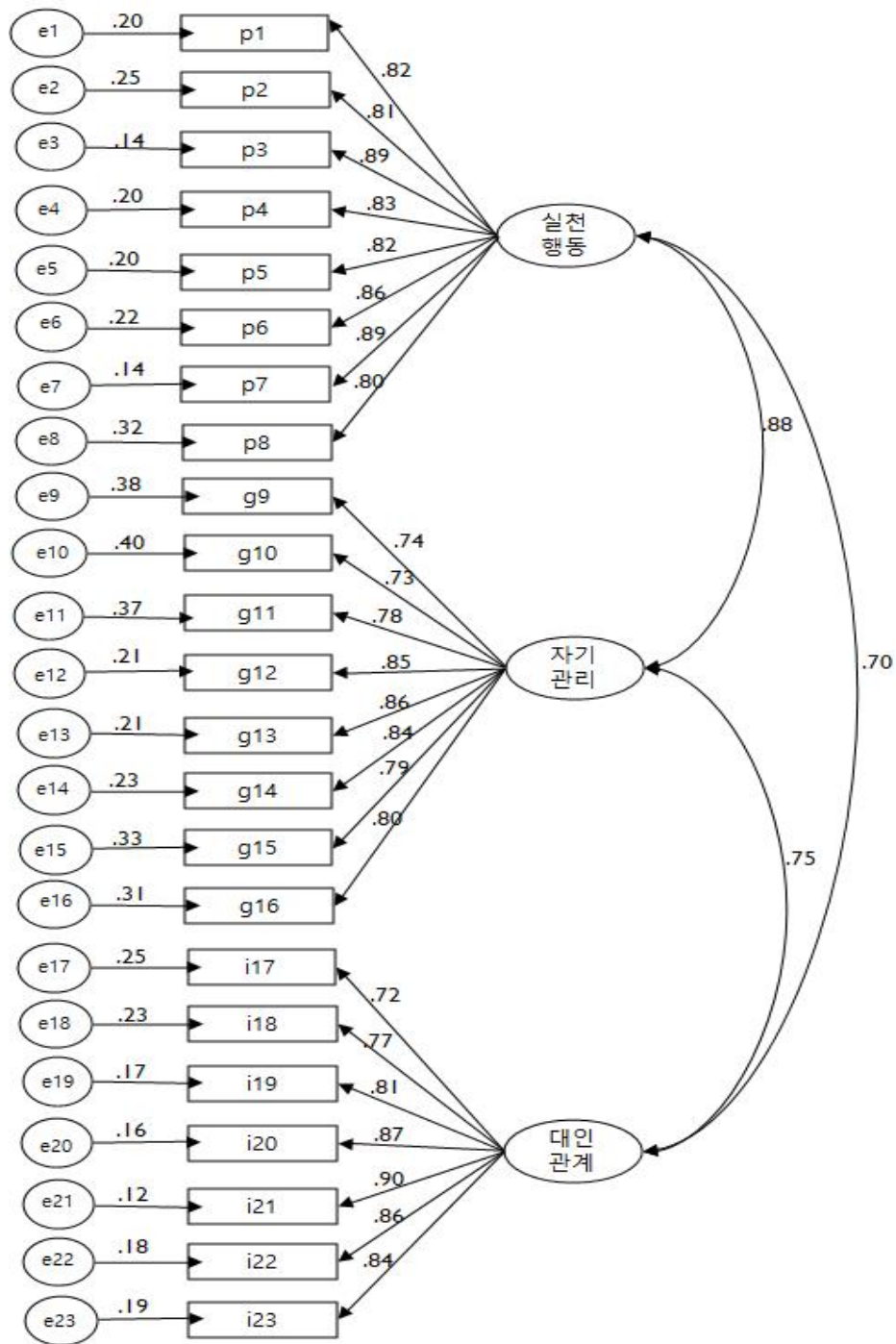


그림 9. 스포츠실천지능 측정모형의 경로도형

2) 준거 타당도

실천지능과 외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준거변인으로 운동능력, 자아탄력성 및 자기조절동기, 친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실천지능과 관련이 있는 외적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준거관련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다. 먼저, 실천지능의 각 하위요인들과 외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공인타당도를 입증하고자 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실천지능의 구인들이 각 외적 변인들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예언 타당도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표 2-9. 스포츠실천지능과 준거변인과의 상관관계(n=292)

변인	A	B	C	D	E	F	G	H	M±SD
실천행동 A	1.000								4.18±.699
자기관리 B	.821**	1.000							3.96±.750
대인관계 C	.701**	.746**	1.000						4.21±.659
자아탄력 D	.677**	.683**	.666**	1.000					4.03±.695
통제적 동기 E	-.459**	-.417**	-.426**	-.350**	1.000				1.64±.740
자율적 동기 F	.644**	.610**	.508**	.592**	-.425**	1.000			3.70±.935
친사회적 행동 G	.523**	.546**	.624**	.551**	-.362**	.450**	1.000		3.99±.672
반사회 행동 H	.019	-.033	-.145	-.109	.306**	-.075**	-.370**	1.000	1.41±.643

**p<.01

<표 2-9>는 스포츠실천지능의 하위요인들과 자아탄력성, 통제적 동기, 자율적 동기 및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2-9>에서 보는바와 같이, 스포츠실천지능의 하위요인인 실천행동능력은 4개의 준거변인인 자아탄력성($r=.677$), 자율적 동기($r=.644$), 친사회적 행동($r=.523$)과 높은 정(+의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통제적 동기($r=-.459$)와는 부(-)의 상관을 보임으로써 이론적

근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한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자기관리능력은 4개의 준거변인인 자아탄력성($r=.683$), 자율적 동기($r=.610$), 친사회적 행동($r=.546$)과 높은 정(+)의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통제적 동기($r=-.417$)와는 부(-)의 상관을 보임으로써 이론적 근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한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대인관계능력은 3개의 준거변인인 자아탄력성($r=.666$), 자율적 동기($r=.508$), 친사회적 행동($r=.624$)과 높은 정(+)의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통제적 동기($r=-.426$)와는 부(-)의 상관을 보임으로써 모두 이론적 근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한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대인관계능력요인 만이 반사회적 행동($r=-.145$)과 유의한 부(-)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천행동능력, 자기관리능력 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포츠실천지능 척도의 공인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3) 스포츠실천지능과 준거변인과의 다중회귀분석

<표 2-10>은 상관관계에 근거하여 실천지능 구인들이 자아탄력성, 자기조절동기, 친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개의 독립변수(실천행동능력, 자기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VIF(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을 확인한 결과 10 미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을 확인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천행동능력, 자기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아탄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탄력성에 대한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54.2%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97.300$, $p<.001$, Durbin-Watson=1.910). 실천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대인관계능력(Beta=.292)이 자아탄력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실천행동능력(Beta=.285), 자기관리능력(Beta=.231)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자기조절동기의 하위요인인 통제적 동기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제적 동기에 대한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22.1%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F=23.296$, $p<.001$, Durbin-Watson=1.795) 실천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동기의 두 번째 하위요인인 자율적 동기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율적 동기에 대한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43.2%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62.736$, $p<.001$, Durbin-Watson=2.008). 실천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실천 행동능력($Beta=.420$)이 자율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기관리능력($Beta=.231$), 대인관계능력($Beta=.0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4.02%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55.302$, $p<.001$, Durbin-Watson=1.613). 실천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대인관계능력($Beta=.447$)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기관리능력($Beta=.186$), 실천 행동능력($Beta=.0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5.8%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5.040$, $p=.002$, Durbin-Watson=1.927). 실천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실천 행동능력($Beta=.263$)이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기관리능력($Beta=-.016$), 대인관계능력($Beta=-.3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천 행동능력, 자기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은 4개의 준거변인(자아탄력성, 자기조절동기, 친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들을 적절히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실천지능척도의 예언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포츠실천지능척도가 암묵적 이론에 근거한 경험적 자료들과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묵적 이론, 즉 자기이론(Self-theory)에서 설명하는 성장신념 구인과 실천지능구인들이 자아탄력성, 자기조절동기, 사회적 행동과 같은 결과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구명함에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10. 스포츠실천지능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Beta)	t	p	공차 한계	VIF
		B	S.E					
	상수	.805	.199		4.043	.000		
자아 탄력성	실천행동	.270	.080	.285	3.400	.001	.264	3.785
	자기관리	.210	.079	.231	2.663	.008	.248	4.040
	대인관계	.305	.066	.292	4.643	.000	.434	2.132
R=.736, R ² =.542, Adj R ² =.536, F(3.247)=97.300, p<.001, Durbin-Watson=1.910								
	상수	3.815	.276		13.803	.000		
통제적 동기	실천행동	-.250	.110	-.248	-2.270	.024	.264	3.785
	자기관리	-.106	.109	-.110	-.970	.333	.248	4.040
	대인관계	-.172	.091	-.155	-1.886	.061	.469	2.132
R=.470, R ² =.221, Adj R ² =.221, F(3.247)=23.296, p<.001, Durbin-Watson=1.795								
	상수	.142	.298		.477	.634		
자율적 동기	실천행동	.536	.119	.420	4.505	.000	.264	3.785
	자기관리	.282	.118	.231	2.397	.017	.248	4.040
	대인관계	.056	.098	.040	.570	.570	.469	2.132
R=.658, R ² =.432, Adj R ² =.426, F(3.247)=62.736, p<.001, Durbin-Watson=2.008								
	상수	1.257	.220		5.718	.000		
친사회적 행동	실천행동	.047	.088	.051	.535	.593	.264	3.785
	자기관리	.162	.087	.185	1.869	.063	.248	4.040
	대인관계	.451	.072	.447	6.221	.000	.469	2.132
R=.634, R ² =.402, Adj R ² =.395, F(3.247)=55.302, p<.001, Durbin-Watson=1.613								
	상수	1.834	.264		6.945	.000		
반사회적 행동	실천행동	.231	.105	.263	2.188	.030	.264	3.785
	자기관리	-.014	.104	-.016	-.131	.896	.248	4.040
	대인관계	-.313	.087	-.325	-3.601	.000	.469	2.132
R=.240, R ² =.058, Adj R ² =.046, F(3.247)=5.040, p=.002, Durbin-Watson=1.927								

*p<.05, **p<.01, ***p<.001

4) 검사/재검사 신뢰도

<표 2-11>은 대학생 32명을 대상으로 4주 간격을 두고 동일한 척도에 2회 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검사표본과 재검사 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거의 유사하며, 검사 표본과 재검사 표본간의 스포츠실천지능척도의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도 높게 나타나 스포츠실천지능척도의 시간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포츠실천지능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양호하게 입증되었다.

표 2-11. 스포츠실천지능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 결과(n=32)

요인	검사신뢰도		재검사신뢰도		r	α
	M	SD	M	SD		
실천행동	3.94	.794	3.90	.832	.812	.942
자기관리	3.74	.867	3.82	.634	.812	.839
대인관계	4.10	.764	4.13	.660	.901	.922

6. 논의

국내 체육학 분야에서 상황판단검사 방법을 적용하여 제작된 생활실천지능척도(신명진, 2014)는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 도구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상황판단검사의 채점 방식과 절차 과정이 단순하지 않아 일반적인 측정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의 연구방법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황판단검사의 질문 유형이 개인의 성향이나 사회 문화적 차이에 따라 응답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반응편향성(Response Set Bias)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인간의 능력이나 특성 및 지적 능력을 측정함에 있어 아는지, 모르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므로 정의적 행동을 측정할 때 Likert 척도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다(성태제, 1998)는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연구 2의 논의는 선행 연구된 청소년 운동선수 생활실천지능(신명진, 2014)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1, 2)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2는 연구 1에서 개발된 스포츠실천지능척도의 요인구조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측정모형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으며,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4개의 외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검증하고자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연구 2의 첫 번째 목적은 연구 1에서 확인된 3 요인구조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1에서 확인된 3 요인구조는 본 연구에서 지지되었으며, 다음 단계로 스포츠실천지능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요인 23문항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별로 요인간 상관을 살펴보면, 실천행동능력과 자기관리능력이 .87, 자기관리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77, 실천행동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72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구 1의 결과뿐만 아니라 Neisser(1976)이 실생활에서 야기되는 실제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실천능력이라고 규정한 문헌적 근거에 부합되는 결과로, 운동선수들이 실제로 운동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실천

행동과 태도에 바탕을 둔 암묵적 학습을 통해 실제적이면서도 실천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된다(양수정, 이순목, 1999; 하대현, 1996, 2004, 2005; Sternberg 외,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포츠실천지능척도가 암묵적 이론이나 실천지능에서 제안하는 기본적인 실천지능 개념들을 응집력 있게 포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목적은 개발된 실천지능척도의 하위요인들과 선정된 4개의 외적변수(자아탄력성, 자기조절동기, 친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천지능의 하위요인들과 4개의 외적변인들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실천행동능력, 자기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의 실천지능 요인들은 자아탄력성, 자기조절동기(자율적 동기), 친사회적 행동에 정(+)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공인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이어서 실천지능척도의 하위요인들이 4개의 외적변인들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천행동능력, 자기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요인 모두 4개의 외적변인들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언타당도 역시 입증되었다. 실천지능과 자아탄력성 및 자기조절 동기 간의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것과 관련하여 유추해 보면 자아탄력성, 자기조절 동기는 삶의 다양한 도전에서 개인의 긍정적인 적응과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하는 매개요인으로 개인이 속한 맥락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 수준 차이를 보이는 개별화된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합의를 보인다(이영주, 김덕진, 2020). 이는 다양한 환경적 변화나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사람 혹은 실패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수준 차이를 의미한다. 즉, 자기 통제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유지하거나 지속하기 위해서 개인이 지각하는 성취감 또는 만족감과 같은 내재적 동기는 자기통제 능력을 강화하거나 지연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며(Stocker, Seiler, Schmid & Englert, 2019; Hagger, 2015), 성공적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자기 열망은 이로운 행동을 하도록 자아 강화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혹과 충동에 대한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한 Milyavskaya, Inzlicht, Hope & Koestner(2015)의 연구 결과를 어느 정도 재현한 결과로 해석한다. 또한 국내의 양명환(2003)의 연구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요인들이 스포츠맨십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대인간, 상황적 변인(코치와 팀 동료)들로부터의 압력, 성적 등은

스포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양명환과 김덕진(2006)은 심리적 욕구가 내재적 동기와 심리적 웰빙뿐만 아니라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에서처럼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유추해 봤을 때, 인간의 심리적 욕구는 성장 잠재력을 실행하려는 욕구로 자신을 성장시켜 성공과 성취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작용하여 상황을 극복하고 더 분발할 수 있도록 동기 수준을 높여준 선행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암묵적 이론의 선행연구에 기초해 살펴보면, Dweck와 동료들(Erdley, Cain, Loomis, Dumas-Hine, & Dweck, 1997; Moldern & Dweck, 2006)은 암묵적 이론에서 사람들이 도전이나 삶의 좌절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주장한다. 암묵적 이론에서 제시하는 동료관계는 사회적 도전(예, 동료 거부, 갈등)이 사람들의 안녕을 저해하고 있는지 또는 사회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암묵적 이론과 학교 적응의 연구를 수행한 Cheung(2016)은 부정적 동료 경험(예; 희생)을 한 고정 마음가짐을 가진 학생들은 개인의 성향과 사회적 관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노력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성장 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돌리려는 태도에 의해 동료 관계가 향상된 것으로 보고한다. Dweck & Leggett(1988)의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고정 마음가짐을 가진 학생은 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느라 고심했고, 그러한 고심은 도전이나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능력 부족으로 인한 실패로 간주해 도전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한다. 이에 반해 성장 마음가짐을 가진 학생들은 도전이나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인지하고 자신의 전략을 바꾸거나 노력 지속과 같은 행동 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Job, Dweck, & Walton (2010)는 자아 고갈의 발생 여부는 개인의 믿음에 달려 있다고 제안한다. 이들의 연구에서 업무가 고갈된 후나 힘든 기간 동안 자제력이 감소하면 실제 자원 고갈보다는 의지력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개인이 가진 특성이나 문화성 및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운동선수들의 실천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노력과 신념은 필수요인으로 간주 된다. 요컨대 운동선수 자신의 전문성이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는 신념에 의해 자기관리능력, 실천행동능력, 대인관계능력에 의미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어서 집단 간 차이 비교를 통하여 실천지능척도의 구인타당도를 입증한 결과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4주간의 간격을 두고 2차에 걸쳐 3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시간에 따른 스포츠실천지능 척도의 안정성도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스포츠실천지능 척도와 심리 변인들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국내의 스포츠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임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실천지능의 암묵적 이론과의 연관성을 통해 청소년 운동선수 개인이 갖는 운동 태도, 즉 신념의 관점에서 실천지능의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암묵적 이론과 실천지능의 연구들은 대부분 학업지능에 중점을 두고 타인을 지능으로 평가하는 암묵적 이론에 집중하였다. Sternberg 등(198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타인의 일상생활지능을 평가할 때 학업지능의 암묵적 이론과의 상관은 0.31, 일상생활지능의 암묵적 이론과의 상관은 0.17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한다. 본 연구는 학문지능과 암묵적 이론의 관련성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실천지능과 암묵적 이론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었다. 기존의 학습과 관련한 지능검사에 반영된 언어·수리력, 추리력, 기억력 등과 같은 학문지능에 비해, 스포츠라는 영역 특수성이 갖는 문화와 환경에 정의되는 실천지능과 암묵적 이론으로 특정 영역에 있는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차별성을 둔다. 이는 암묵적 이론에 기초해 스포츠실천지능척도를 개발하였기에 결과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척도를 개발함에 있어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표본자료에 잘 부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연구자가 불변의 진 모형을 찾아냈다고 보다는 특정표본에서 주어진 상황을 잘 요약해주는 모형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측정모형이 어느 정도 정밀하고 확신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모형이 특정표본뿐만 아니라 다른 표본이나 상황에서도 잘 들어맞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김덕진,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실천지능척도가 다른 표본과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V. 종합논의

상황판단검사(SJT)는 인력 선발 절차에 효과적으로 잘 확립되어 현재 널리 사용되는 측정 방법이다(Christian, Edwards, & Bradley, 2010; Ryan & Ployhart, 2014). 상황판단검사는 예측 타당성, 지원자들 간의 양호한 수용성 및 직무 시뮬레이션과의 유사성(Christian, Edwards, & Bradley, 2010; Ryan & Ployhart, 2014) 뿐만 아니라 학업 성과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었다(Lievens & Sackett, 2012). 그러나 심리 측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측정된 개념 구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측정 도구의 구성 타당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Gessner & Klimoski, 2006). 이는 특정 상황의 맥락과 상황판단검사 개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대 사건 기법(CIT; Flanagan, 1954)이 유도적 접근 방식으로 항목을 구성해 핵심 구조의 이질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Lievens & Coetsier, 2002)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판단검사는 상황 지식 또는 행동 여부에 따라 유효성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측정된 요인구조에 대한 투명성과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연구 주제의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Muck, 2013). 지난 10년 동안 상황판단검사는 다양한 응답 형식 또는 채점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보고됐지만(Bergman et al., 2006; De Leng et al., 2017; Weng, Yang, Lievens, & McDaniel, 2018), 상황과 항목을 구성하는 새로운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Weekley, Ployhart 및 Holtz(2006)는 상황판단검사와 심리 측정 동등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신명진(2014)이 제시한 스포츠 상황(적용, 선택, 조성)에 따른 구성요인과 본 연구의 구성요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Likert 측정 방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실천지능을 국내 스포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두 편의 순차적인 연구를 통해 스포츠실천지능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증하였다.

본 연구(연구1과 2)에서는 실천지능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3요인 구조는 상황판단검사에서 제안하는 3가지 상황(적용, 선택, 조성)들로 구성된 문항을 토대로 생활실천지능(신명진, 2014)에서 제안하는 요인구조와 동일하

게 나타났다. 세 차례의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천행동능력, 자기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의 3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세 개의 요인 모형의 부합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입증하였다. 또한 준거변인인 자아탄력성, 자기조절동기, 친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과의 유의한 상관을 통해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준거 관련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다만 **자기관리능력에서** 낮은 상관을 보인 것에 대한 이유로서 개인의 관점을 제시한다면, 운동선수마다 그 상황과 그때의 기분 감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무엇보다 운동 경험이 풍부한 대학생들은 타인의 압력이 아닌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려는 태도를 갖추고 있는 반면, 고등학생들은 다소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이나 대학교 운동선수들의 사고(개개인의 기질적인 성향에 따른 태도, 신념 등)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판단 짓기에는 인식이나 사회 문화적 차이는 면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어서 생활실천지능과 본 연구의 또 다른 차이점으로 운동선수들이 운동 수행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암묵적 이론을 고려하였다.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ies)에서 제안하는 핵심은 사람들이 지능과 같은 자질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성장 또는 실패로 이어진다는 인간 특성의 부적응성에 관한 것이다(이영주, 김덕진, 2019). 이러한 암묵적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써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신념 혹은 믿음 체계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며,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암묵적 이론이 관여한다는 것이다(Berg & Sternberg, 1992; Runco,1990). 특히 인간의 행동은 특정 목적에 가정을 두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 등이 수반되어 진다는 의미에서, 운동선수들이 운동수행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기준이 무엇이든 선수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선수가 소속되어진 팀 분위기의 사회적 견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응용되었다. 결과적으로 암묵적 이론에서 제안하는 성장신념, 고정신념, 관계적 신념의 개념을 적절하게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묵적 이론에 기초한 실천지능의 구성개념의 중점으로 문항을 직접 개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둔다.

종합해보면 실천지능, 암묵적 이론 두 구인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견해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이다. Sternberg의 실천지능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조성 및 선택하는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능력에 초점을 두었다면, Dweck의 암묵적 이론에서는 학습 환경에서 ‘지능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라는 지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주관적 신념에 집중되어 있다(Dweck, 2006, 2011). 또한 Sternberg의 실천지능은 인간 능력의 다양성을 인정한다(Sternberg,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포츠실천지능척도는 Dweck(2000, 2006)의 암묵적 이론에서 주장하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핵심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다른 차별성이 있다면,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스포츠 환경이라는 특정 영역에서 환경에 대한 적응, 선택, 조성에 따른 성장 지향적 신념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아울러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예, 유소년선수, 고등학교 운동선수, 대학 운동선수)에서 반복적으로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타당성을 입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재현하고 재검증함으로써 스포츠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신뢰롭고 타당한 스포츠실천지능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고,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첫째, 스포츠실천지능척도를 개발함에 있어 개방형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례수가 다소 적은 한계점이 있다. 특히 문헌고찰과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도출한 개방형 질문 문항을 토대로 실천지능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분석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고식 검사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에서 상대적으로 표본의 수가 큰 집단에서 자칫 오류가 범해졌을 수도 있다는 제한점을 밝힌다.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답하고자 하는 경우나, 현재 상황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상황이 일시적이거나 편파적일 수 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목적표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운동선수들을 대표한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본 척도를 재현하고 검증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천지능을 3요인으로 구성하였지만, 더 많은 요인을 갖는 척도와 문항개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I.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2편의 순차적인 연구를 통해 스포츠 상황에서 실천지능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작업을 하였으며, 개발된 스포츠실천지능척도가 암묵적 이론에서 제안하는 연구모형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1의 목적은 국내의 스포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지능 구인을 탐색과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개발을 하는데 있었다. 연구대상은 제주도 및 대구·경북, 광역시에 소재한 2곳의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부 학생 총 462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심층면담에 10명, 개방형 조사에 10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사전 조사에서는 52명, 본조사에서 3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5단계 연구절차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문항들은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실천행동능력, 자기관리행동능력, 대인관계행동능력 3요인 23문항의 스포츠실천지능척도척도를 개발하였다.

연구 2의 목적은 연구 1에서 추출된 스포츠실천지능척도의 3요인 구조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은 대구·경북 및 광역시에 소재한 2곳의 대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운동부 학생 292명이었다. 또한 시간에 따른 측정 도구의 안정성을 검사하기 위해 검사/재검사 표본으로 동일 집단의 대학생 32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1의 3요인 구조는 연구 2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 역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개의 준거변인(자아탄력성, 자조절동기, 친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준거관련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또한 양호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값을 확보함으로써 도구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참고문헌

- 강상범, 김덕진(2020). 청소년 골프선수의 마음가짐(Mindset)과 투지(Grit)간의 관계에서 자기결정동기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강민우, 윤창영, 이순목(2005). 지시과 채식에 상단검사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8(3), 547-565.
- 강유신, 이근모(2019).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학생의 동료 간 관계성 지지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 **교사교육연구**, 58(4), 483-500.
- 강영심, 송연주(2002). 성공지능과 전통지능의 고등학생 학업성취도에 대한 예측력 비교. **교육심리연구**, 16(4), 83-103.
- 강지훈, 윤영길(2013). 스포츠심리학 연구에서 성공지능 도입 가능성. **스포츠 사이언스**, (31)1, 1-10.
- 경일수, 서은영, 김혜균, 탁진국(2018). 성장지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 37(1), 1-31.
- 구본재(2015). 스포츠 도덕지능의 개념화. 한국체육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권준모(2003). 지능에 대한 암묵적 이론과 성취동기. **교육심리연구**, 17(1), 95-107.
- 김덕진, 양명환(2006). 체육수업 상황에서 기본적 욕구, 동기 유형 및 심리적 웰빙간의 관계모형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7(1), 25-45.
- 김덕진, 양명환(2009). 체육교사의 교수행동이 고등학생의 내재적 동기와 수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109-124.
- 김덕진, 양명환(2010). 스포츠 상황에서 기본적 심리욕구만족척도 개발과 자기결정이론의 모형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4(1), 29-58.
- 김덕진, 양명환(2013). 스포츠 상황에서 기본적 심리욕구만족척도 개발과 자기결정이론의 모형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4(1), 29-58.
- 김덕진(2015). 청소년 태권도 선수가 지각하는 코치-선수관계와 탈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 **대한무도학회지**, 17(2), 61-75
- 김기섭, 조경훈(2017). 학생운동선수의 자기효능감과 사고촉진 능력의 관계에 있어서 성

- 공지능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체육과학회지**, 26(1), 807-813.
- 김명섭, 황혜영, 장유진(2020). 학업상황에서의 의지력에 대한 암묵적 신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심리학회**, 34(3), 581-601.
- 김병준, 오수학(2011). **체육학 연구법**. 제3판. 서울 무지개사.
- 김선욱, 양명환(2015). 운동선수들의 동기분위기가 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 제주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서사학위논문.
- 김선욱, 양명환(2020). 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동기, 도덕적 이탈, 코칭유형의 다중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 제주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 김인수(2013). 초등학교 아동의 암묵적 믿음과 성취목표, 수업몰입 간 인과분석.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8(4), 63-76.
- 김인수(2014). 초등예비교사의 체육에 대한 능력 믿음, 관계-추론 효능감과 자기 효능감, 노력 및 운동수행과의 구조적 관계.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1), 61-72.
- 김인수(2018). 초등학생의 성장마인드와 자기조절, 그릿(Grit), 운동참여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 23(3), 191-203.
- 김영호, 양재근, 이종훈(2007). 신체활동의 변화단계를 예측하기 위한 자결성이론의 적용. **체육과학연구**, 18(4), 208-217.
- 김형수(2019).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마인드셋 및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예술 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9(12), 1059-1070.
- 나동진, 김진철, 이정규(2005). 성공지능이론의 관점에서 본 지능과 학업성취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9(1), 72-92.
- 노형진(2008). **Amos에 의한 공분산구조분석**. 서울: 한울출판사.
- 문용린, 강민수(2004). 성공지능 검사에 대한 경험적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8(3), 103-119.
- 박도순, 하대현, 성태제(2000). 신종합지능검사 요강.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협회.
- 박동훈, 박지혜, 오영택, 양명환(2017). 코칭행동과 상태불안의 관계: 심리육구의 매개효과 검증. **체육과학연구**, 23, 39-52.
- 박중길(2009). 능력믿음과 목표성향, 지각된 유능감 및 무용 내적동기간의 인

- 과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1), 165-184.
- 박중길, 김기형(2010). 학생-운동선수의 스포츠 능력믿음과 성취목표 및 행동 조절의 구조적 관계: 3가지 동기이론의 관점.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1(2), 101-129.
- 박중길(2012). 지각된 동기분위기와 상황적 동기와의 관계에서 학생의 운동능력 믿음과 유능감, 목표성향의 다중매개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3(1), 43-58.
- 백순근(2005). 교사용 실천지능검사의 구성 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교육평가연구**, 18(2), 59-77.
- 백순근, 임현수(2006). 중학교 교사용 실천지능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19(1), 223-240.
- 신명진 (2014). **청소년 운동선수 생활실천지능 구성개념 탐색 및 상황판단검사를 적용한 척도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신명진 (2015). 스포츠심리학에서 상황판단검사의 필요성과 채점방식에 따른 타당성 비교. **체육과학연구**, 26(1), 73-84.
- 신중호, 권희경(2004). 성공지능의 교육적 의의와 활용 가능성 탐색. **교육심리연구**, 18(3), 121-138.
- 신준하·오상훈(2019). “태권도 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지도자 신뢰 및 참여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0(2), 53-66.
- 신준하, 허진영(2019b). 태권도 선수들의 마인드셋이 실수인식에 미치는 영향: 조절효과.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0(4), 61-76.
- 안도희, 김옥분, 표경선(2005). 대학생의 지적능력에 대한 신념, 성취목표지향 및 학습접근책간의 관계 모형. **한국교육**, 32(4), 3-27.
- 안동근, 권유선, 이희현, 표정민(2018). Bifactor 구조모형으로 검증한 창의성의 일반성과 영역특수성, 그리고 창의적 마인드셋과의 관계. **창의력교육연구**, 18(1), 23-38.
- 양명환(2003). 스포츠맨십성향, 운동태도 및 성격 특성간의 관계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8(3), 69-91.
- 양명환(2012). 자기결정이론을 활용한 체육수업 동기전략 문헌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해양스포츠연구**, 2(2), 1-18.
- 양명환, 김덕진(2006). 마라톤 대회 참가자의 기본적 욕구, 동기, 심리적 웰빙

- 및 행동 의도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5(4), 251-262.
- 양수정, 이순목(1999). 지적능력의 암묵이론적 구조의 기능: 학업지능과 실천지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8(1), 17-47.
- 여상인(2020). 교사변인에 따른 초등 영재담당교사의 영재수업에 대한 신념과 행동의지. 일관성 및 잠재적 행동실천 효과 차이 분석. **영재교육연구**, 30(4), 623-643.
- 오영택, 양명환(2017). 자기결정이론에 기반한 열정, 운동열의 및 탈진의 구조 모형 검증. 제주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 오영택, 양명환(2017). 태권도 열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대한무도학회지**, 19(1), 101-121.
- 윤영길(2004). 축구 경기력 결정 심리요인의 위계적 중요도. **체육과학연구**, 15(3), 102-113.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2(4), 17-32.
- 윤영길(2009). 축구선수의 실천지능과 전술운용에서 실천지능의 활용 가능성.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9(2), 113-127.
- 윤영길(2011). 스포츠영재의 스포츠영재성.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2(4), 17-32.
- 윤영길(2015). 지능 논의를 통해 본 축구 경기력 논의의 향배와 시사. **체육과학연구**, 26(1), 163-173.
- 윤영길, 이용수(2006). 축구 경기력 결정 요인의 구조와 위계적 중요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7(4), 87-100.
- 윤영길, 황보관(2013). 축구 경기력의 심리학적 이해와 해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181-190.
- 이경선(2011). 청소년 운동선수의 스포츠 능력민음 검사지의 구인 동등성과 잠재평균 비교. **한국체육학회지**, 50(3), 313-321.
- 이나영(2021). 일반성과 특수성 관점에서 본 리듬체조선수의 성공지능.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 이상철, 이순목, 조영일(2003). 지필형 상황판단검사에 대한 비평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6(3), 129-154.
- 이순목(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영만(2006). 초등학생의 성공지능의 발달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19(2), 101-123.

- 이영만(2007). 성공지능이론의 교실 수업 적용을 위한 이론적 탐색. **교육방법연구**, 19(2), 97-122.
- 이영주, 김덕진(2019). 초등학교 무용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마인드셋과 또래 관계: 그릿,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4(2), 209-222.
- 이영주, 김덕진(2020). 의도적 연습, 마음가짐(Mindset) 및 분투(Grit)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4(4), 227-244.
- 임규혁, 임웅(2007). **(학교학습 효과를 위한) 교육심리학** = Educational psychology. 학지사.
- 임미희(2017). **지능신념, 목표유형, 귀인행동, 정서반응간의 관계: Dweck의 동기이론을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 임변장(2000). **스포츠사회학개론**. 서울: 동화문화사.
- 임정훈, 한기순, 이지연, (2008). **교육심리학**. 양서원, 서울.
- 임현수(2005). **교직수행검사의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 정승훈(2016). 태권도 공연 관람자의 인지된 가치 척도 개발 및 적용. **한국체육학회지**, 55(6), 417-435.
- 정청희(2004). **운동수행 향상을 위한 심리기술훈련**. 서울: 도서출판 무지개사.
- 정현성, 박동건(2009). 지식형 상황판단검사의 채점용 답(Scoring key) 결정과 채점 방식에 따른 준거관련 타당도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1(1), 53-70.
- 최윤미(2008). 비서용 실천지능검사의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비서·사무경영연구**, 17(2), 119-138.
- 최재수, 오주원(2018). Carol, S. Dweck의 마인드셋(Mindset)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예술 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8(12), 139-147.
- 하대연(1996). 인간 지능이론과 연구의 최근 동향과 과제. **교육심리연구**, 10(1), 127-161.
- 하대현(2003). R. Sternberg의 성공 지능이론에 대한 교육심리학적 고찰. **교육문제연구**,

- 19, 186-206.
- 하대현(2004). 성공지능이론의 타당화: 쟁점과 과제. **교육심리학회지**, 18(2), 99-121.
- 하대현(2005). R. Sternberg지능 이론의 발달 의의, 국내 연구 및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157-180.
- 하대현(2009). 성공지능이론의 구인 타당성. **한국교육학연구**, 15(1), 53-76.
- 한동욱, 황진(2011). 대학선수들의 시합 후 사후가정: 능력 믿음과 자기핸디캡의 역할.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2(3), 99-112.
- 한이석(2004). 스포츠 일탈. 형설 출판사.
- 허정훈(1998). 수업분위기 지각이 유능감과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현중환, 김덕진(2020). 청소년 무도선수들의 마인드셋과 성취목표성향, 팀워크간의 구조적 관계, **대한무도학회지**, 21(2), 91-104.
- 현중환, 김현주, 김덕진(2020). 무도수련자의 마음가짐(Mindset)과 의도적 연습의 관계: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대한무도학회지**, 22(1), 79-93.
- Ames, C. & Archer, J. (1988). Achievement goals in the classroom: Students' learning strategies and motivation process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260-267.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91). Social cognitive theory of moral thought and action. In W. M. Kurtines & J. L. Gewirtz(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Vol. 1, 71-129. Hillsdale, NJ: Erlbaum.
- Baumeister, R.,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y Bulletin*, 117, 497-529.
- Berry, J. W. (1984). Towards a universal psychology of cognitive compet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9, 335 - 361.
- Berg, C. A., & Sternberg, R. J. (1992). Adults' conceptions of intelligence across

- the adult life span. *Psychology and Aging*, 7, 221 – 231.
- Biddle, S. J. H., Soos, I., & Chatzisarantis, N. (1999). Predicting physical activity intentions using a goal perspectives. *Scandinavian Journal of Medicine Science & Sports*, 9, 353–357.
- Biddle, S. J. H., Wang, C. K. J., Chatzisarantis, N. L. D., & Spray, C. M. (2003). Motivation for physical activity in young people: Entity and incremental beliefs about athletic ability. *Journal of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9, 353– 357.
- Binet, A. (1905). Letter to De Sanctis. In E. Cicciola(2008). (a cura di), *Inventario del Fondo Sante De Sanctis, 1893-1935* [Sante De Sanctis Letters, 1893-1935]. Roma, Italy: Archivio di Storia della Psicologia. Retrieved from <http://www.archivioistoria.psicologia1.uniroma1.it/fondi%20e%20link.htm>.
- Block, J., & Block, J. H. (2006). Venturing a 30-year longitudinal study. *American Psychologist*, 61(4), 315–327.
- Cattell, R. (1965). *The scientific analysis of personality*. London: Penguin.
- Chan, D., & Schmitt, N. (1997). Video-based versus paper and pencil method of assessment in situational judgment tes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 143–159.
- Chan, D., & Schmitt, N. (2006). Situational Judgment Tests: Method or Construct. *Situational Judgment Tests: Theory, Measurement, and Application*. 135–155.
- Cheung, C. S. (2016). Adolescents' Implicit Theories of Peer Relationships and Their School Adjustment. *AERA Open* 2(4), 1–8.
- Churchill, G. A. (1979). A paradigm for developing better measures of marketing constru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6(1), 64–74.
- Christian, M. S., Edwards, B. D., & Bradley, J. C. (2010). Situational judgment tests: Constructs assessed and a meta-analysis of their criterion-related validities. *Personnel Psychology*, 63(1), 83-117.
- Cianciolo, A.T. & Sternberg, R.J. 2004. *A Brief history of intelligence*. Malden, MA: Blackwell.

- Cury, F., Da Fonseca, D., Rufo, M., & Sarrazin, P. (2002). Perceptions of competence, implicit theory of ability, perception of motivational climate, and achievement goals: A test of trichotomous conceptualization of endorse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the physical education setting. *Perceptual and Motor Skills, 95*, 233–244.
- Claudia M. Mueller and Carol S. Dweck (1998). Praise for Intelligence Can Undermine Children's Motiva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33–52.
- Clevenger, J., Pereira, G. M., Wiechmann, D., Schmitt, N., & Harvey, V. S. (2001). Incremental validity of situational judgment tes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3) 410–417.
- Csikszentmihalyi, M. (1997).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New York. NY; Harper Perennial.
- Chan, D., & Schmitt, N. (2002). “Video-based versus paper-and-pencil method of assessment in situational judgment tests: Subgroup differences in test performance and face validity percep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1), pp.143–159.
- Deci, E., & Ryan, (1985a)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 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less.
- Deci, E., & Ryan, (1985b)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 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less.
- Deci, E. L., Ryan, R. M., Gagne, M., Leone, D. R., Usunov, J., & Kornazheva, B. P (2001). Need satisfaction, motivation, and well-being in the work organization of a former. Eastern Bloc country: A cross-cultural study of self-deter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930–942.
- Duda, J. L. (1989). Relationship Between Task and Ego Orientation and Percived Purpose of Sport Among High School Athlete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1*, 318–335.

- Duda, J. L. (1992). Motivation in sport setting: A goal perspective approach. In G. C. Roberts (Ed.),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pp. 5~91).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Dweck, C. S. (1985). Intrinsic motivation, perceived control, and self-evaluation goal analysis. In R. Ames & C. Ames(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Vol. II*. New York: Academic Press.
- Dweck, C. S. (1986). Motivational processes affecting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41*, 1040-1048.
- Dweck, C. S. (1996). Implicit theories as organizers of goals and behavior. In P. Gollwitzer & J. Bargh (Eds.), *The psychology of action* (pp. Dweck, C. S. (1999). *Self-Theories: Their role in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Philadelphia: Yaylor and Francis, Psychology Press.
- Dweck, C. S. (2000). *Teorie del se':Intelligenza, motivazione, personalita'e sviluppo*. Trento, Italy: Erickson.
- Dweck, C. S. (2002). Beliefs that make smart people dumb. In R. J. Sternberg(ED.). *Why smart people do stupid thing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weck, C. S. (2006). Mindset: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 How We Can 69-90). New York: Guilford Press. *Learn to Fulfill Our Potential*. New York, NY: Ballantine Books.
- Dweck, C. S. (2007). *Self-Theories: The mindset of a champion.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international perspectives*. Morgantown, WV: Fitness Information Technology.
- Dweck, C. S. (2011). Self- Theories. In P. Van Lange, A. Kruglanski, and E. T. Higgins(Eds.). *Handbook of theories in social psycholog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weck, C. S. (2015). Carol Dweck revisits the 'growth mindset.' *Education Week, 35*(5), 20-24.

- Dweck, C.S . (2017). "The Journey to Children's Mindsets-and Beyond".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1(2): 139-144.
- Dweck, C. S., & Bempechat, J. (1983). Children's theories of intelligence: Implication for learning. In S. Paris, G. Olson, and H. Stevenson(Eds). *Learning and motivation in children*. Hillsdale, NJ: Erlbaum.
- Dweck, C. S., Chiu, C., and Hong, Y. (1993). mplicit theories and individual difference in the likelihood and meaning of dispositional infer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644-656.
- Dweck, C. S., Chiu, C., and Hong, Y. (1995). Implicit theories and their role in judgments and reactions: A world from two perspectives. *Psychological Inquiry*, 6, 267-285.
- Dweck C. S., & Elliot, E. S. (1983). Achievement motivation.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643-691). New York: Wiley.
- Dweck, C. S., & Leggett, E, L. (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 256-273.
- Dweck, C. S., Walton, G. M., & Cohen, G. L. (2014). *Academic Tenacity: Mindsets and Skills that Promote Long-Term Learning*. Journal Publication 2014, P43
- Eggen, P. & Kauchak, D. (2004) Educational Psychology: *Windows, Classrooms*. Upper Saddle River: Pearson Prentice Hall.
- Eisenberg, N., Fabes R. A., & Spinrad T.L. (2006). Prosocial development. In: Eisenberg N, Damon W, editor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ition Wiley; New York, Vol. 3*, pp. 646-718.
- Elliott, E. S., & Dweck, C. S. (1988). Goals: An approach to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1), 5-12.
- Elliot, A. J., & Church, M. A. (1997).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54(1), 5–12.
- Elliot, A. J. and Harackiewicz, J. M. (1996).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goals and intrinsic motivation: A mediatio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16–475.
- Elliot, A. J., & McGregor, H. A. (2001). A 2X2 achievement goal fram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501–519.
- Erdley, C. S., & Dweck, C. S. (1993). Children's implicit theories as predictors of their social judgments. *Child Development*, 64, 863–878.
- Erwin, P. (1993). Friendship and peer relations in children. Chichester, England: Wiley.
- File, Q. W. (1945). The measurement of supervisory quality in industr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29, 323–337.
- Frederick C. M., & Ryan, R. M., (1993). Differences in motivation for sport and exercise and their relations with participation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Sport Behavior*, 16, 124–146.
- Galton, F., (1869). *Hereditary Genius: Inquiry into its laws and consequences*. New York: Appleton.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ueva York, Basic Books. (Version castellana (2001): *Estructuras de la Mente. La Teoriade las Inteligencias Múltiples*. Mexico, FCE).
- Gardner, H. (1999): *Intelligence Reframed: Multiple Intelligences for the 21st Century*. Nueva York, Basic Books. (Version castellana (2001): *La Inteligencia Reformulada. Las Inteligencias Múltiples en el Siglo XXI*. Barcelona, Paidós).
- Gessner, T. L., & Klimoski, R. J. (2006). Making Sense of Situations. In J. A. Weekley & R. E. Ployhart (Eds.), *Situational judgment tests: Theory, measurement, and application* (pp. 13–38).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ueva York, Bantam Books. (Version castellana (1999): *Inteligencia emocional*. Barcelona, Kairos).
- Goleman, D. (1998): *Working with emotional intelligence*. Nueva York, Bantam Books. (Version castellana (2004): *La practica de la inteligencia emocional*. Barcelona, Kairos).
- Gurwitz, P. M. (1987). Ipsative Rescaling: an Answer to the Response Set Problem in Segmentation Analysis, *Journal of Advertizing Research*, June/July.
- Hagger, M. S. (2015).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and the 'Strength' Model of Self-Control: Conceptual Overlap and Commonalities. *Stress and Health*, 31(2), 89–94.
- Harackiewicz, J. M. Baron. K. E. Carter, S. M. Lehto. A. T., & Elliot, A. J. (1997).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achievement goals in the college classroom: Maintaining interest and making the grad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284–1295.
- Heyman, G. D., & Dweck, C. S. (1992). Achievement goals and intrinsic motivation: Their relation and their role in adaptive motivation. *Motivation and Emotion*, 16, 231–247.
- Howell, A. J., & Buro, K. (2008). Implicit beliefs, achievement goals, and procrastination.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1), 151–154.
- Hong, Dweck & Lin.(1998). A test of implicit theories and self-confidence as predictors of responses to achievement challenges. Unpublished manuscript.
- Hong, Y. Y., Chiu, C., Dweck, C. S., & Sacks, R. (1997). Implicit Theories and Evaluative Processes in Person Cogni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 296–323.
- Hong, Y. Y., Chiu, C., Dweck, C. S., Lin, D., & Wan, W. (1999). Implicit theories, attributions, and coping: A meaning system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588–599.

- Hughes, J. N., & Zhang, D. (2007). Effects of the structure of classmates' perceptions of peers' academic abilities on children's perceived cognitive competence, peer acceptance, and engagement.
- Jones, C., & DeCotiis, T. A. (1986) Video-Assisted Selection of Hospitality Employee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2, 400–419.
- Job, V., Dweck, C. S., & Walton, G. M. (2010). Ego depletion—Is it all in your head? Implicit theories about willpower affect self-regulation. *Psychological science*, 21(11), 1686–1693.
- Jourden, E. J., Bandura, A., & Banfield, J. T., (1991). The Impact of Conceptions of Ability on Self-Regulatory Factors and Motor Skill Acquisition. *Journal of Psychology of Sport Exercise*, 13(3), 213–226.
- Karwowski, M. (2014). Creative mindsets: measurement, correlates, consequences.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8(1), 62–70.
- Kavussanu, M. (2006). Motivational predictors of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ur in football. *Journal of Sport Sciences*, 24, 575–588.
- Kavussanu, M., & Boardley, I.D. (2009). The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Sport Scale.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31, 97–117.
- Kenyon, G. S. (1968). Six Scale for asseaaing attitude toward physical activity. *Research Quarterly*, 39. 566–674.
- Kent, K. G. (2018). Internal structures, external mandates: *How the best teachers stay true to their vocation*. Concordia University (Oregon).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 Knee, C. R., Patrick, H., & Lonsbary, C. (2003). Implicit Theories of Relationships: Orientations Toward Evaluation and Cultiv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1), 41–55.
- Koka, A., & Hein, V. (2003). Perceptions of teacher's feedback and learning environment as predictors of intrinsic motivation in physical

- education. *Psychology of Sport Exercise*, 4(4), 333–346.
- Koka, A., & Hein, V. (2005). The Effect of Perceived Teacher Feedback on Intrinsic Motivation in Physical Education. Institute of Sport Pedagogy Coaching Sciences, *Faculty of Exercise and Sports Sciences*, University of Tartu, Estonia.
- Latham, G. P., Saari, L. M., Pursell, E. D., & Campion, M. A. (1980). The situational inter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5(4), 422–427.
- Lazarus & Fo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1984.
- Levy, S. R., & Dweck, C. S. (1998). Trait- versus process-focused social judgement. *Social Cognition*, 16, 151–172.
- Lim, W., Plucker, J. A., & Lim, K. (2002). *We are more alike than we think we are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with a Korean sample*.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Educational Psychology,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201 N. Rose Avenue, Bloomington, IN 47405–1006, USA Korea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 Lintune, T., Valkonen, A., Leskinen, E., & Biddle, S. J. H. (1999). Predicting physical activity intentions using a goal perspectives approach: A study of Finnish youth. *Scandinavian Journal of Medicine Science and Sports*, 9, 344–352.
- Li, F., Harmer, P., Chi, L., & Vongjaturapat, N. (1996). Cross-cultural validation of the Task and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8, 392–407.
- Lievens, F., & Coetsier, P. (2002). Situational Tests in Student Selection: An Examination of Predictive Validity, Adverse Impact, and Construct Valid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election and Assessment* 10(4):245 – 257.
- Lievens, F., & Sackett, P. R. (2012). The Validity of Interpersonal Skills Assessment via Situational Judgment Tests for Predicting Academic Success and Job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7, 460.

- Lonsdale, C., Hodge, K., & Rose, E. A. (2008). The Behavioral Regulation in Sport Questionnaire(BRSQ): Instrument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30*, 323–355.
- Martin, A.J., Bostwick, K., Collie, R.J., & Tarbetsky, A. (2017).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In V. Zeigler–Hill & T.K. Shackelford (Eds.). *Encyclopedia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New York: Springer.
- Malmberg, L., & Little, T. D. (2007). Profiles of ability, effort, and difficulty. *Learning and Instruction, 17*, 739–754.
- McClelland, D. C.(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 1–14.
- McDaniel, M. A., & Nguyen, H. T. (2001). Situational judgment tests: A review practice and constructs assessed. *International Journal of Selection and Assessment, 9*, 103–113.
- McDaniel, M. A., Whetzel, D. L. (2005). Situational Judgment test research: Informing the debate on practical intelligence theory. *Intelligence, 33*, 515–525.
- Miller, J. D., Lynam, D., & Leukefeld, C. (2003). Examining antisocial behavior through the lens of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Aggressive behavior, 29*(6), 497–514.
- Milyavskaya, M., Inzlicht, M., Hope, N., & Koestner, R. (2015). Saying "No" to Temptation: Want–to Motivation Improves Self–Regulation by Reducing Temptation Rather Than by Increasing Self–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9*(4), 677.
- Millard, H. (1952). Training and Research in Puerto Rico.
- Mischel, W. Y., Shoda, y., & Rodriguez, M. I. (1989). Delay of gratification in children. *Science, 244*(4907), 933–938. Research Library, pg, 933.
- Molden, D., & Dweck, C. S. (2000). Meaning and motivation. In C. Sanaone & J. Harackiewicz(Eds.), *Intrinsic motivation*. San Diego,

- CA: Academic Press.
- Motowidlo, S. J., Dunnette, M. D., & Carter, G. W. (1990). An alternative selection procedure: the low-fidelity situ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6), 640-647.
- Motowidlo, S. J., Hanson, M. A., & Crafts, J. L. (1997). Low-fidelity simulations. In D.L. Whetzel & G.R. Wheaton (Eds.). *Applied measurement methods in industrial psychology* (pp. 241-260). Palo Alto, CA: Davies-Black.
- Muller, C. M., & Dweck, C. S. (1989). Intelligence praise can undermine motiva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33-52.
- Mullan, E., & Markland, D.(1997). Variations in self-determination across the stages of change for exercise in adults. *Motivation and Emotion*, 21, 349-362
- Netemeyer, R. G., Bearden, W. O., & Sharma, S. (2003). *Scaling procedures: Issues and applications*. CA: Sage Publications.
- Nguyen, N. T., Biderman. M. D., & McDaniel, M. A. (2005). Effect of response instructions on faking a situational judgment test. *International Journal of Selection and Assessment*, 13(4), 250-260.
- Nicholls, J. G. (1989). *The competitive ethos and democratic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Nun~es, T., (1994). *Street intelligence*. In: Sternberg, R.J. (Ed.), *Encyclopedia of Human Intelligence*, vol. 2. Macmillan, New York, pp. 1045 - 1049.
- Oshio, A., Nakaya, M., Kaneko, H., & Nagamine, S. (2003). Construct validity of the adolescent resilience scale. *Psychology Reports*, 93, 1217-1222.
- Peterson, K. K. (2009). *Measuring Mindset: The Development of the Reading Mindset Scale(RM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Doctor of Philosophy.
- Puente-Díaz, R., & Cavazos-Arroyo, J. (2017). The influence of creative mindsets on achievement goals, enjoyment, creative self-efficacy and

- performance among business students. *Thinking Skills and Creativity*, 24, 1–11.
- Royston, R., & Reiter-Palmon, R. (2017). Creative self-efficacy as mediator between creative mindsets and creative problem solving.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1, Dec.
- Runco, M. A. (1990). *Implicit theories and ideational creativity*. In M. A. Runco & R. S. Albert (Eds.), *Theories of creativity* (pp. 234–252). Sage Publications, Inc.
- Rudolph, K. D. (2010). Implicit theories of peer relationships. *Social Development*, 19, 113–129.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Ryan, R. M., & Frederick, C., (1997). ‘On energy personality and health: Subjective vitality as a dynamic reflection of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65, pp. 529–565.
- Ryan, A. M., & Ployhart, R. E. (2014). A century of selec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5, 693–717.
- Sage, L., & Kavussanu, M., & Duda, J. L. (2006). Goal orientations and antisocial functioning in male association football players. *Journal of Sport Sciences*, 24, 455–466.
- Sarrazin, P., Biddle, S., Famose, J. P., Cury, F., Fox, K., & Durand, M. (1996). Goal orientations and conceptions of the nature of sport ability in childre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5, 399–414.
- Seifriz, J. J. Duda, J. L., & Chi, L. (1992).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to Intrinsic Motivation and Beliefs About Success in Basketball.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4, 375–391.
- Sheldon, K. M., & Elliot, A. J., (1999). Goal Striving, Need Satisfaction,

- and Longitudinal Well-Being: The Self-Concordanc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3), 482-497.
- Smith, K. C., & McDaniel, M. A. (1998, April). Criterion and construct validity evidence for a situational judgment measure. Paper presented at the 13th annual convention of the Society for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Dallas, TX.
- Spector, H. (1992). *Autonomy and rights: the moral foundations of Liberalism* (pp. 109-11). Clarendon Press.
- Spray, C. M., Wang, C. K. J., Biddle, S. J. H., Chatzisarantis, N. L. D., & Warburton, V. E. (2006). An experimental test of self-theories of ability in youth sport.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7, 255-267.
- Sonstroem, E. J. (1978). Physical estimation and attraction scales: Rational and Research.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10, 97-102.
- Stephen, D. J. (2013). *The Impact of a Growth Mindset Intervention on the Reading Achievement of At-Risk Adolescent Students*. University of Virginia.
- Sternberg, R. J. (1985a). *Beyond IQ: A triarchic theory of human intellig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rnberg, R. J. (1985b). Implicit theory of intelligence, creativity, and wisdo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607-627.
- Sternberg, R. J. (1987). Teaching intelligence: The application of cognitive psychology to the improvement of intellectual skills. In J. B. Baron, & R. Sternberg (Eds), *Teaching thinking skills: Theory and practice*(pp. 182-218). New York: Freeman.
- Sternberg, R. J. (1988). Mental self-government: A theory of intelligence styles and their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31, 197-224.
- Sternberg, R. J. (1996). *Successful intelligence*. New York: Simon & Schuster.
- Sternberg, R. J. (1997). *Thinking style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rnberg, R. J. (1998a). Abilities are forms of developing expertise. *Educational Researcher*, 27, 11-20.
- Sternberg, R. J. (1998b). A Balance theory of wisdom.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347-365.
- Sternberg, R. J. (1999). Intelligence as developing expertis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4, 359-375.
- Sternberg, R. J. (2003). *Wisdom, Intelligence, and Creativity Synthesiz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rnberg, R. J. (2004). Culture and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59(5), 325-338.
- Sternberg, R. J., & Berg, C. A. (1986). Quantitative integration: Definitions of intelligence: A comparison of the 1921 and 1986 symposia. In R. J. Sternberg, & D. k. Detterman (Eds), *What is intelligence? Contemporary viewpoints on its nature and definition*(155-162). Norwood, NJ: Ablex.
- Sternberg, R. J., & Detterman, D. K. (Eds.). (1986). *What is intelligence?* Norwood, NJ: Ablex.
- Sternberg, R. J., Conway, B. E., Ketron, J. L., & Bernstein, M. (1981). People's conceptions of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7-55.
- Sternberg, R. J., & Grigorenko, E. L. (2004). Successful intelligence in the classroom. *Theory into Practice*, 43, 274-280.
- Sternberg, R. J., Grigorenko, E. L., Ferrari, M., & Clinkenbeard, P. (1999). A triarchic analysis of an aptitude-treatment interact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5, 1-11.
- Sternberg, R. J., & Hedlund, J. (2002). Practical Intelligence, g, and Work Psychology. *Human Performance*, 15, 143-160.
- Sternberg, R. J., & Lubart, T. I. (1996). Investing in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1, 677-688.
- Sternberg, R. J., Wagner, R. K., Williams, W. M., & Horvath, J. A.(1995). Testing

- common sense. *American Psychologist*, 50(11), 912–927.
- Sternberg, R. J., & Wagner, R. K.(1993). The g–ocentric view of intelligence and job performance is wrong.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 1–4.
- Sternberg, R. J., Wagner, R. K., Williams, W. M., & Horvath, J. (1995). Testing common sense. *American Psychologist*, 50, 912–927.
- Stocker, E., Seiler, R., Schmid, J., & Englert, C (2019). Hold your strength! Motivation, attention, and emotion as potential psychological mediators between cognitive and physical self–control. *Sport, Exercise, and Performance Psychology*.
- Tang, M., Werner, C., & Karwowski, M. (2016). Differences in creative mindset between Germany and Poland: The mediating effect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inking Skills and Creativity*, 21, 31–40.
- Tamborini, R., Bowman, N. D., Eden, A., Grizzard, M., & Organ, A. (2010). Defining media enjoyment as the satisfaction of intrinsic needs. *Journal of communication*, 60(4), 758–777.
- Terman, L. M., (1916). The uses of intelligence tests. *The measurement of intelligence*, 3–21.
- Thornton, G. C., & Cleveland, J. N. (1990). Developing managerial talent through simulation. *American Psychologist*, 45(2), 190–199.
- Vallerand, R. J., (1997). Toward a hierarchical model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9, pp. 271–360). New York: Academic Press.
- Vallerand, R. J., Briere, N. M., Blachard, C., & Provencher, P.(199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Sportspersonship Orientation Scale.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9, 197–206.
- Vallerand, R. J., & Losier, G. F., (1994). Research.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6(3), 229–245.

- Vallerand, R. J., Deci, E. L., & Ryan, R. M., (1987). Intrinsic Motivation in Sport. *Exercise and Sport Sciences Reviews*, 15(1), 389–426.
- Vazou, S., Ntoumanis, N., & Duda, J. L., (2005). Peer motivational climate in youth sport: a qualitative inquiry.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6(5), 497–516.
- Wagner, R. K. (1987). “Tacit knowdge in everyday intelligent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6), pp. 1236–1247.
- Wagner, R. K., & Sternberg, R. J. (1985). “Practical intelligence in real-world pursuits: the role of tacit knowled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2), 436–458.
- Wechsler, W., Franz, S. R., Clinton, F., & Herbert, Z., (1958). The compleate amino acid sequence of the bacteriochlorophyll c binding polypeptide from chlorosomes of the green photosynthetic bacterium *Chloroflexus aurantiacus*.
- Wechsler, D., (1958). *The measurement and appraisal of adult intelligence*, 4th ed. Williams & Wilkins Co.
- Weekley, J. A. & Jones C. (1997). Video-based situational testing. *Personnel Psychology*, 50, 25-49.
- Weekley, J. A. and Jones C. (1999) Further studies in situational tests. *Personnel Psychology*, 52, 679–700. *FEBS letters* 181(1), 173–178.
- Weekley, J. A. & Ployhart, R. E. (2005). Situational judgment: Antecedents and relationships with performance. *Human Performance*, 18, 81–104.
- Weekley, J. A., Ployhart, R. E., & Holtz, B. C. (2006). *On the development of situational judgment tests: Issues in item development, scaling, and scoring*. In J. A. Weekley & R. E. Ployhart (Eds.), *Situational judgment test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Associates.
- Weng, Q., Yang, H., Lievens, F., & McDaniel, A. M. (2018). Optimizing the validity of situational judgment tests: The importance of scoring method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4, 199–209.
- Whitehead, J., Andree, K. V., & Lee, M. J. (2004). Achievement

perspectives and perceived ability.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5, 291– 317.

Williams, W. M., Blythe, T., White, N., Sternberg, R. J. & Gardner, H. (1996). *Practical Intelligence for School*.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Inc.

Wilson, P. M., Rodgers, W. M.(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autonomy support, exercise regulations and behavioral intentions in women.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5, 229–242.

* 아래의 문항들은 귀하가 운동선수로서 운동 수행 시 필요한 마음가짐의 구성요인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포츠 활동을 하는 동안 경험을 통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각 물음에 한가지 이상은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I-1. “새로운 운동 기술을 연습해 가는 과정이나, 체력훈련 시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할지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II-2. 대학진학 또는 실업팀에 입단 등 앞으로 진로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팀 성적도 좋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명문 대학이지만 내가 갈 수 있는 실력(기량)이 부족하다” 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귀하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II-3. “평소 수행력을 높이기 위해 나만의 스타일에 맞는 운동방법이 있는데, 감독님(지도자)은 오히려 잘못 됐다고 핀잔을 주며 감독님 스타일에 맞추기를 고수한다” 이러한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에 귀하는 어떠한 마음가짐(태도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II-4.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 기대 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귀하는 경기 결과를 묻는 주변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II-5.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갖춰야 할 능력(조건)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II-6. “나는 나의 운동수행 향상을 위해 일상에서 _____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좌우명(모토)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바쁘신 시간 질문에 응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귀하가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 하나하나가 본 연구에 소중한게 활용될 것이오니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 설문지에 쓰이는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학문적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이 설명문을 읽었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인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적절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합니다.

본인은 연구기간 중 언제라도 중도에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 연구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서명)

※실명 기입은 하지 마십시오)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 영 주
지도교수 김덕진

※. 설문 방법

제시된 상황을 잘 읽어보시고 각 상황에 본인이 생각하는 점수를 1~5점 기준(1점:전혀 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5점:매우 그렇다)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상황 1]

“새로운 운동 기술을 연습해 가는 과정이나, 체력훈련 시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느껴지는 마음가짐은?

- 1.실력 향상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는다.(점)
- 2.실력향상을 위해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점)
- 3.열심히 해야 더 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점)
- 4.힘든 순간 한번만 더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다.(점)
- 5.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점)
- 6.계속 도전하는 마음가짐을 갖는다.(점)
- 7.훈련이 끝났을 때의 뿌듯함을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을 갖는다.(점)
- 8.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점)
- 9.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점)
- 10.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한다.(점)
- 11.나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참고 훈련에 집중하는 마음을 갖는다.(점)
- 12.지금 포기하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각오를 갖는다.(점)
- 13.힘든 순간을 참고 견뎌야 시합에서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정신력을 갖는다.(점)
- 14.새로운 동작을 연습한 부분이 시합에서 성공적이었을 때를 생각하며 자신감을 갖는다.(점)
- 15.운동을 포기한 뒤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집중 한다.(점)
- 16.이 훈련이 끝나면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버틴다.(점)
- 17.성공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점)
- 18.죽기 살기로 덤벼보자는 마음가짐을 갖는다.(점)
- 19.후회했던 상황을 생각하며 다시 몰입한다.(점)
- 20.힘든 것은 잠시다 조금만 더 힘내자 라는 마음을 가진다.(점)
- 21.잘하는 친구를 보며 자극을 받는다.(점)
- 22.내가 운동을 시작한 이유를 생각한다.(점)
- 23.라이벌을 생각하며 꼭 이기겠다는 마음을 갖는다.(점)
- 24.체력훈련을 통해 매일 실력이 늘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점)
- 25.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점)
- 26.힘든 것은 당연하므로 즐기려는 마음을 갖는다.
- 27.메달을 딸 수 있다는 상상을 하며 힘을 낸다.(점)
- 28.나는 내 능력을 믿는다.(점)
- 29.나는 규칙적으로 훈련한다.(점)
- 30.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점)

31.충분한 휴식을 갖는다.(점)

32.꾸준히 자기관리를 한다.(점)

33.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정한다.

[상황 2]대학진학 또는 실업팀에 입단 등 앞으로 진로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시문1-“팀 성적도 좋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명문 대학(팀)이지만 내가 갈 수 있는 실력(기량)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마음가짐은?

34.꾸준한 자기관리를 실천한다.(점)

35.평소 부지런함을 실천한다.(점)

36.운동 장비를 잘 점검한다.(점)

37.평소 훈련루틴을 만들어 실천한다.(점)

38.악착같이 노력한다.(점)

39.훈련에 집중하며 개인 훈련을 더 강화 한다.(점)

40.나 자신의 실력을 믿고 도전하는 자세를 갖는다.(점)

41.그 팀을 목표로 정하여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 한다.(점)

42.실수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치려는 마음을 갖는다.(점)

43.굳이 유명한 대학이 아니어도 나의 실력에 맞춰서 지원 한다.(점)

44.부족한 부분을 더 연습한다.(점)

45.평소 체력훈련으로 몸 만들어 놓는다.(점)

46.자신의 실력을 믿고 자신감을 갖는다.(점)

47.그 팀을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점)

[상황 3]대인관계 대처능력과 관련한 질문예시입니다.

예시문1-“평소 수행력을 높이기 위해 나만의 스타일에 맞는 운동방법이 있는데, 감독님(지도자)은 감독님 스타일에 맞추기를 고수 한다”

예시문2-“감독님은 체력을 중요시해서 체력훈련에 비중을 많이 두지만 나는 기술 습득이 중요하다고 생각 된다” 이러한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마음가짐(태도)은?

48.감독님을 믿고 감독님 훈련방식에 따른다.(점)

49.감독님 스타일과 자기 스타일을 병행 해보고 어느 것이 좋은지 선택한다. (점)

50.감독님 스타일로 연습하다 안되면 상의(대화)한다.(점)

51.감독님 말을 따르고 개인운동을 더한다.(점)

52.나만의 운동스타일로 한다.(점)

53.훈련 방법에 대해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점)

54.감독님과 훈련방법에 대해 충분히 의사소통한다.(점)

55.나의 부족한 부분과 감독님 스타일을 더해서 실력을 기른다.(점)

56.감독님을 믿고 서로 완충하려는 마음을 갖는다.(점)

57.열심히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점)

예시문3- 동료선수와의 관계

58.선배가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 선배이므로 참고 다 들어준다.(점)

59.팀원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일 때 함께 동참한다.(점)

60.동료선수가 무단이탈하여 불이익을 받는데 나만 함께 동참하지 않고 불이익을 면하면 집단 따돌림을 당할 것 같아 단체행동에 동참한다.(점)

61.선후배 및 동료선수들과 다툼이 생기면 그 자리를 피한다.(점)

62.선후배 및 동료선수들과 시합이 끝난 후 부족한 것에 대해 종종 이야기 나눈다.(점)

63.팀 동료들의 감정에 공감을 잘한다.(점)

64.새로운 동작 연습 시 선배 및 동료선수의 도움을 잘 받아들인다.(점)

65.선후배 및 동료선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점)

66.선후배 및 동료선수와의 관계는 성적에 영향을 끼친다.(점)

67.선후배 및 동료선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점)

68.선후배 및 동료선수와 의견이 발생되면 잘 설득할 수 있다.(점)

69.선후배 및 동료선수와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한다.(점)

70.선후배 및 동료선수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점)

71.선후배 및 동료선수와의 관계에서 감정조절을 잘 하려고 노력한다.(점)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I. 아래의 문항들은 '실천지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①	그렇 지 않다 ②	약간 그렇 다 ③	그렇 다 ④	매우 그렇 다 ⑤
<p>“새로운 운동기술을 연습해 가는 과정이나 체력훈련 시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 Q. 나는 _____.</p>						
1	열심히 해야 더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힘든 순간 ‘한번만 더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계속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훈련이 끝났을 때의 뿌듯함을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는 신념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새로운 기술이 시합에서 성공했을 때를 생각하며 자신감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시합에서 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려고 더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운동선수로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죽기 살기로 덤벼보자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운동이 힘든 게 당연하기 때문에 즐겨보자는 마음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 능력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대학 진학 및 실업팀 입단 등 진로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Q.나는 나의 진로 선택을 위해 평소에 나는 _____.						
17	꾸준한 자기관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일정시간에 기상 및 개인훈련 등 시간 관리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운동 장비를 잘 점검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만의 훈련 루틴(계획)을 만들어 실천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꿈을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개인 훈련을 더 강화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의 운동실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도전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실수한 부분을 고치기 위한 합리적 방법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부족한 기술동작을 더 연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체력훈련으로 몸을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의 운동실력을 분석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28	경쟁상대를 이길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29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①	②	③	④	⑤
<p>훈련 상황에서 지도자 및 팀원들과의 관계는 중요하다. “훈련 중 감독님은 체력을 중요 시 해서 체력훈련에 비중을 두지만 나는 기술습득이 중요하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능력을 발휘하는데 있어 동료와의 관계는 도움이 된다. 아니면 방해가 된다.” Q.운동 수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훈련 과정에 필요한 대처방법으로 나는 _____ 한다.</p>						
30	지도자의 훈련방법으로 연습하다 잘 안되면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지도자 지시를 따르고 별도의 개인운동을 더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만의 훈련 방법에 대해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	지도자와 훈련방법에 대해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지도자의 지시를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35	최고의 수행을 위해 지도자를 믿고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36	동료선수들과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7	동료선수들과 잘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새로운 동작 연습할 때 동료선수의 조언을 잘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동료선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40	동료선수와의 관계는 나의 시합성적에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41	동료선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2	동료선수와의 논쟁 발생 시 상대를 잘 설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3	동료선수와 의견이 다를 때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4	동료선수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5	동료선수와의 관계에서 감정조절을 잘 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아래의 문항들은 ‘실천지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힘든 순간 ‘한번만 더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계속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훈련이 끝났을 때의 뿌듯함을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죽기 살기로 덤벼보자는 마음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운동이 힘든 게 당연하기 때문에 즐겨보자는 마음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평소 꾸준히 자기관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운동 장비를 잘 점검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만의 훈련 루틴(계획)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시합에 대비하여 개인 훈련을 더 강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시합에 대비하여 부족한 기술동작을 더 연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시합에 대비하여 체력훈련으로 몸을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운동실력을 분석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동료선수들과 잘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동료선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동료선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동료선수와의 논쟁 발생 시 상대를 잘 설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동료선수와 의견이 다를 때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동료선수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동료선수와의 관계에서 감정조절을 잘 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여러분의 ‘자아탄력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다양한 경험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미래에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 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새로운 것이나 독특한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쉽게 실증을 잘 내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양한 방면에 흥미나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분노를 잘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새롭고 다양한 것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인내심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인생에 가치 있 는 일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기분전환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미래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은 여러분의 ‘운동동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운동은 시간 낭비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왜 운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3	왜 운동하려고 애쓰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4	운동의 좋은 점을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기 때 문에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친구나 가족 또는 선생님이 운동을 하라고 해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사람들은 내가 운동을 안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른 사람이 운동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운동을 결석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운동의 좋은 점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운동하려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운동이 재미있어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운동시간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운동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운동으로 만족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IV.아래의 문항들은 ‘스포츠 퍼슨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자신의 평소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숫자에 (○) 또는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실력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여러 차례 실수 후에도 포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시합 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시합 시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비록 시합에 졌지만 상대선수를 축하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자신의 결과나 잘못을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매 시합 결과에 승복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심판 판정에 항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판정오류 시에도 심판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심판의 잘못된 판정에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V. 아래의 문항들은 스포츠 상황에서 상대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질문내용입니다.

질문 내용		전혀 없다	없 는 편이 다	보 통 이 다	많 은 편이 다	매 우 많 다
1	나는 고의로 상대선수에게 반칙을 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상대선수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시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상대선수를 완전히 얼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신체적으로 상대선수를 위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의도적으로 상대선수를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고의로 경기규칙을 어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상대선수가 반칙을 한 후에는 반드시 보복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상대선수를 비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심판 몰래 반칙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상대선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넘어진 선수를 가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심판판정에 거칠게 항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상대방과 코치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나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